

11. 아나키즘 (속)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자와상호주의자

이상에서우리는프랑스혁명과고드윈에서시작하여푸르동에이르는아나키즘이념의발전을살펴왔다. 그후의발전은국제노동자협회 - 즉보불佛전쟁발발직전의 1866?70 년간에노동자에게는커다란희망을안겨주고부르주아에게는크나큰공포를일으킨이협회속에서이루어졌다.

이협회가 - 마르크스주의자들이즐거주장하듯이마르크스에의하여창설된것이아니라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 주지하듯이그것은 1862 년런던에서열린제 2 회만국박람회를방문하러온프랑스노동자대표들과그들을영접한영국노동조합대표및약간의영국급진파들과의회결의결과였다. 이방문으로생긴유대는 1863 년의폴란드반란에즈음하여열린동정의집회를기회로일층강화되고익년(1864)에드디어협회가설립된것이다.

이미 1830 년에영국에전국적대노동조합이창립되었을때, 로버트오언은‘국제적전노동조합’을수립하려고계획한바있었다.

그러나영국정부가전국조합에대하여야만적박해를가하는폭거로나갔기때문에이생각은포기되지않을수없었다. 하지만인터내셔널의이념은사라진것이아니었다. 그것은영국에서는미적지근히그을리고만있었지만프랑스에서지지자를얻게되었다. 1847 년의혁명이패퇴한후프랑스인망명자는이사상을갖고합중국으로건너가거기서『인터내셔널』지紙를통하여전파했다.

1862 년에런던을방문한프랑스의노동자들은거의모두푸르동주의자즉상호주의자였다. 다른한편으로영국의노동조합원들은주로로버트오언의학파에속하고있었다. 영국의‘오언주의’는이리하여프랑스의‘상호주의’와손을잡았고, 그결과노동자의유력한국제조직의창조를보게되었고, 주로경제적지반위에서고용주와싸웠으니순純정치적인급진적당파와는일체절연하려고노력했다.

사회주의적노동자들간의이들의두주요경향의결합은, 마르크스기타의사람들가운데서공산주의자들의비밀적정치결사의잔당에의한지지를발견했다. 이비밀정치조직은바르베스와블랑키의비밀결사의잔존분자들을규합하고있었던것이고그것은독일에서의바이트링의비밀공산주의적결사와같이그원류가바부프의음모단에서나오고있었다.

현대과학과아나키즘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1930

차례

1. 아나키즘의기원	4
2. 18 세기의지적운동	8
3. 19 세기초의반동	12
4. 콩트의실증철학	17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20
6. 스펜서의종합철학	25
7. 사회에있어서의법의역할	28
8. 근대과학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지위	32
9. 아나키스트의이상과선행의제혁명	35
10. 아나키즘	38
아나키즘의제이념 - 고대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40
11. 아나키즘 (속)	44
인터내셔널내부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권위주의적공산주의자와상호주의자	44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사회주의제이념 - 생시모니즘	47
12. 아나키즘 (속)	51
인터내셔널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푸리에주의	51
파리코뮌이준충격 - 바쿠닌	55
13. 아나키즘 (속)	59
현상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관념	59
국가의부정	62

그러나이미아나키스트저작가들, 최근에는프랑스의 V. 바시교수가그흥미로운노작 『아나키스트적개인주의, 막스슈티르너』 [파리, 1904] 에서지적했듯이, 이종류의개인주의는‘완전한발달’을사회의전성원에대해서가아니라가장유능하다고인정되는사람들에대해서만요구하는것이어서만인의발달에는무관심하다. 따라서그것은금일국가의비호아래소수‘귀족’이나부르주아를위해서행하여지고있는교육독점의가면을쓰고복귀하는것에불과하다는것은명백하다. 그것은특권적소수자에대한‘충분한발달의권리’인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독점은그것에상응하는독점적입법에의한보호와국가로조직된강제없이유지될수없다. 따라서사실상이들의개인주의자의요구는그들자신이강하게비판하는국가와권력이란이념으로불가피하게후퇴한다. 그들의입장은스펜서나맨체스터학파라불린경제학자들의입장과유사하다. 그들역시국가에대한맹렬한비판으로시작하여항상국가를최선의보호자로삼는재산독점의제도를유지하기위하여다시국가의전기능을승인하는데서끝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하여온갖사람들에의하여교환되는노동은등가等價로될것이다. 뿐더러국민은행은생산자의조합에대하여그생산에필요한상당액을화폐로서가 아니라노동권으로대부貸付할수있을것이다. 이대부는무이자로된다. 왜냐하면은행의경비를마련하는데는 1 년에대부총액의 1 퍼센트또는그이하로서죽할 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무이자대부라는제도에의하여자본은그유해한성격을 상실하고착취의수단이되기를그칠것이다.”

다시말하면푸르동의자기의상호주의의제도를상세히전개하여국가와 (통치적) 정부가불필요하고유해하다는사상을사실로써논증했다. 그럴적에그는영국인의선구자들이있었음을알지못했던것같다. 그러나사실인즉그의강령의경제학적부분은이미 1824 년에영국에서저명한경제학자윌리엄톰슨에의하여전개되고있었다 [톰슨은공산주의자로되기전에상호주의자였다]. 또한같은사상은 그후영국의톰슨문하들 - 존그레이 (1825?1831), 호지스킨 (1825?1832) 및 J.T. 블레이 (1839) 에의해서도전개되고있다. 물론이들의저자는푸르동과그의문하들처럼아나키즘을정식화하지는않았다. 그러나 - 영국의포크스웰교수가안톤멘가의주목할만한책『노동전수익권勞動全收益權』[비엔나, 1886] 의영역에불인서문가운데서말하고있는바와같이 - 사실아나키즘의사조는이시대의영국사회주의의전체속에분명히맥박을치고있었던것이다.

한중국에서는조사이워렌이같은경향을대표했다. 그는처음에오언의콜로니 ‘뉴하모니’의일원이었는데그후공산주의의반대자로되고 1827 년에신시티에서생산물을노동시간으로계산원가치를기초로해서‘노동권’에의하여교환하는 ‘상점’을열었다. 이러한제도는 1865 년에이르기까지‘공평상점’, ‘공평점’, ‘공평가’라는명칭으로존속했다.

생산에소요된노동량에의하여가치를계산하는방식에기초하여행하여지는 교환이란이념은독일에서도 1843 년과 1845 년에모제스헤스및칼그뤼네에의하여, 다른한편으로스위스에서는빌헬름마르에의하여주창되었다. 그들은바이트링의국가공산주의적교설의주장자들 [그것은프랑스의바브프주의자들의문하였다] 에반대하고있었다.

다른한편으로노동자중에서상당히많은동조자를모으고있던바이트링의국가공산주의에대항하여독일에서는한사람의독일인헤겔리안막스슈티르너 [본명요한카스파슈미트] 가나타나 1845 년에『유일자와그소유』를냈다. 이책은그뒤에 J.H 막케이의손으로, 말하자면재발견되어아나키스트서클에서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의일종의선언문으로간주되어큰선풍을일으켰다.

슈티르너의저작은국가에대한반역이고또한만약권위주의적공산주의가승리를거둔다면수립되어질터인새로운폭정에대한반역이다. 슈티르너는분명한헤겔학파의형이상학적사상가로서사색하여‘자아’의복권과‘개인의존엄성’을주장했다. 이런방식으로그는‘아모랄리즘 [무도덕주의]’과‘이기주의자의조합’을논설한다.

개인주의적조류	65
14. 아나키즘의약간의결론	69
15. 행동의수단	76
16. 결론	84

1. 아나키즘의기원

‘아나키’라는관념은어떤과학적연구에서나온것도아니고어떤철학체계에서나온것도또한아니다. 사회과학은지금도아직물리학이나화학처럼정확성을가지기에이르지못하고있다. 풍토나기후의연구에있어서조차 1 개월또는 1 주일뒤에어떤날씨가될지미리말할수없는형편이다. 하물며사회학과같은미숙한학문을가지고바람이나비따위보다무한히복잡한사물을다루어장래에일어날사태를과학적으로예측할수있는것처럼주장한다는것은어리석은짓이라하겠다. 우리는과학자역시보통인간에불과하다는것, 그들이대부분상류계급에속해있다는것, 따라서그계급의편견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것, 더욱이그들이대부분국가의봉급을받고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그러니까‘아나키’란관념이대학에서나오지않았다는것은아주명백하다.

사회주의일반과마찬가지로, 또한다른어느사회운동과도마찬가지로아나키즘은민중속에기원起源을갖고있다. 그래서민중의운동으로전개되는한에서만그것은활력과창조력을발휘한다.

예로부터인간사회의내부에는사상과행동의두개의조류가서로싸워왔다. 한편으로대중또는민중은자기네의생활방식에따라사회적생활을가능케하기위하여, 평화를유지하기위하여, 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 그리고또협력을요하는온갖상황아래상호부조를실행하기위하여, 필요한술한제도를만들어내었다. 미개인부락의풍속, 습관, 촌락공동체, 그후는중세기도시들의산업길드, 이들의도시상호간의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만들어낸국제법의기본원리들과기타타당한제도는법률에의하여생긴것이아니라대중의창조적정신에의하여형성되고발달하여왔다.

다른한편, 어느시대에나마법사, 요술사, 기우사祈雨師, 예언자, 승려, 신관神官등이있었다. 그들은자연에대한지식의최초의소유자였다. 또한각종종교적예배(태양숭배, 자연력숭배, 조상숭배등)를처음으로만들어내었다. 동시에각종족간의연결을확보하기위한각종의의식을창조했다.

이시대에는자연연구(천문학, 천기예보, 의학등)의최초의맹아萌芽는여러가지의식과예배에표현된온갖미신과불가분하게결부되고있었다. 예술이나기예技藝도또한여기에기원을갖고있으며, 연구와함께한미신에서발생했다. 그리고이것들은모두신비적인형식으로정식화定式化되어비전秘傳전수자에게만전하여지고민중의손에닿지않도록신중히보존되고있었다.

강권적경향과계급제도적규율의정신편에서기를택하는것이였다. 과학의여명기에도그들이즐거종사한연구대상은통치의기술이였다. 따라서아나키스트적경향을띤철학자들의수가정말얼마안된다는것은별로이상할것도없다.

그러나이중의한사람의철학자는그리스의스토아주의자제논이다. 그는(전제적)정부가없는자유로운공동체를역설하여그것을플라톤의‘공화국’에나타난국가주의적유토피아에대립시켰다. 제논은벌써인간에있어서의사회성의본능을지적하고있다. 그에따르면이본능은이기주의적자기보존의본능에대항하는것으로서자연이발달시킨것이였다. 그는인간이국경을넘어결합함으로써전세계적‘코스모스’를수립하여법률도, 재판소도, 사원도필요치않고상호의노력勞力을교환하기위한화해도필요치않게될시대를예견했다. 그의용어자체도금일아나키스트들이쓰는표현과놀랄만큼유사하다고생각되는것이다.

아르바의사교司敎마르코지로라모비다도 1553 년에국가에대한그리고국가의법률과국가의‘최고의부정의’에대한마찬가지의반대론을역설했다. 같은사상은후스주의자들[특히 15 세기의고예키]과초기의재세례파들, 그리고 9 세기에있어서의그들의선구자인아르메니아의합리주의자들에게서발견할수있다.

16 세기전반의라브레, 17 세기말의페느론, 특히 18 세기후반의백과전서파디도로도같은사상을전개하여전술한바와같이그것이프랑스대혁명기간에약간의실천적적용을봤던것이다.

그러나아나키즘의정치? 경제적원리를처음서술한것은 1793 년의『정치적정의에관한고찰』의저자영국인윌리엄고드윈이였다. 그는아나키라는말은쓰지않았지만그근본원리를아주훌륭히발혀법률을공격하고국가가필요치않은까닭을논하고재판소의폐지에의하여비로소진정한정의가 - 즉모든사회의유일의진정한기초가달성될것이라고주장했다. 재산권에관해서그는뚜렷이공유共有주의를요구했다.

푸르동은처음으로[무지배자라는의미에서의] ‘아나키’란말을사용했고, 그리고또부자에의한빈자의억압을방어함과함께피지배자들을통제아래놓으려는그런정부를세우려고하는무익한노력을사정없이비판한최초의인물이다.

푸르동은국가사회주의의모든형태에대한적대자였다. 당시[19 세기의 30 년대및 40 년대]의공산주의자들은이러한국가사회주의의일당一黨파를대표하고있었다. 그래서푸르동은이와같은혁명의전계획을맹렬히비판했다. 로버트오언에의하여제안된‘노동권勞動券’의제도를기초로해서그는‘상호주의’의관념을전개했는데, 이것은바로일체의통치적정부를무용의사족이되게하는것으로생각되였다.

푸르동은이렇게말했다. “모든상품의교환가치는사회에있어서당시각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량에의해서만계산되는것이므로사회에있어서의상품의전교환은노동권의지불을말는국민은행을매개로행하여질수있다. 그리고청산소는각은행이금일행하고있는바와같이국민은행의전지점의수지결산을하게될것이다.

지나친 안정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과거적, 일시적인 역사적 조건의 소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연구의 첫 대목에서 말했듯이, 아나키즘적 사조의 기원을 더듬어 보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주요한 원천으로서 다음 두 가지에 마주친다. 즉 한편으로는 계급적 조직과 권력관 일반에 관한 비판이고, 다른 한편은 과거의 그리고 특히 현재에 있어서의 인류의 전진적 운동 속에 발견되는 경향의 분석이다.

아득히 먼 석기 시대로부터 이제까지 인간이 자기네의 동료 중의 어떤 자에게 - 비록 그가 가장 지식이 있고 대담하고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 일단 권력의 보유를 허락하고 보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생각해 볼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자고로 이러한 권력의 확립을 막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들의 부족이나 민족, 내려와서는 농촌의 공동체와 중세의 길드 [인접 주민의 길드, 수공업이나 기예 [技藝]의 길드, 상인의 길드, 사냥꾼들의 길드 등등], 그리고 끝으로 12 세기에서 16 세기까지의 각 자유 도시 - 이것들은 모두 민중 속에서 일어난 제도였다. 그것들은 외래의 정복자나 혹은 또 그들 자신의 씨족, 부족 도시의 개성원들이 자기의 수중에 권력을 휘어잡는 데 대항하기 위하여 민중 자신에 의하여 -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 수립된 제도들이다.

마찬가지의 민중의 경향은 전 유럽의 민중적 종교적 운동 속에, 종교 개혁의 선구가 된 보헤미아의 후스 일파의 봉기나 아나바티스트 [재세례파] 의 운동 속에 나타나 있었다.

그후 1793 년?94 년에는 프랑스에서 다시금 마찬가지로 사조와 행동이 파리의 각 '구區'와 기타 대도시 및 소코원의 자못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활동 속에 보인다. 다시 그후 영국과 프랑스에 근대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가혹한 탄압을 물리치고 이 두 나라에서 형성된 노동 조합 속에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우리는 자본가들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위하려고 하는 똑같은 민중적 정신 작용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제이념 - 고대 중세 - 푸르동 - 슈티르너

아나키스트적 성질을 띤 민중의 운동은 문헌 속에도 나타나지 않는 바 아니다. 사실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 중에 벌써, 즉 중국의 노자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티포스와 견유학파 및 제논과 스토아 학파 중에 아나키스트적 제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민중 가운데서 나온 것이지 소수 귀족의 학자들 가운데서 생긴 것은 아니었다. 뿐더러 이들의 학자는 민중의 운동에는 별로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사상가들은 대개 민중의 운동을 언제나 고무해 온 이 깊은 이념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철학자 또는 학자들은

이들의 과학 및 종교의 최초의 대표자들과 병행하여, 켈트족의 음유시인 吟遊 詩人 이나 아일랜드의 브레흐 또는 스칸디나비아 제민족 간에 있던 법률 기술인들과 같이 의견 대립이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나 그 재결 裁決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통과 인습의 전승자로 간주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률 자기의 기억 속에 보존했다 (때로는 기호 記號의 도움을 빌려 보존했으니, 그것이 본래 문학의 시초였다). 그리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끝으로 전투단의 임시 지휘자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마법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들은 무기에 바르는 독약의 비방 秘方, 기타 군사적 비밀을 쥐고 있었다.

이 3 종의 인간은 자고로 상호 간에 비밀 조직을 구성하여 그 전문 지식의 비법을 보존함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고통스런 습득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했다. 가끔 그들 사이에 내분이 있을 때도 있으나 결국 서로 협력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중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네를 위하여 부려먹기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결속하고, 지원해 왔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아나키즘은 이러한 두 종류의 첫째에 속한다. 즉 소수 지배자에 대항하여 자기네를 옹호하기 위하여 관습법적 제도를 만들어 낸 대중의 창조적, 건설적 힘을 대표한다. 다른 아나키즘의 대중의 창조력과 현대 과학 기술의 힘에 바탕을 둔 민중의 건설 활동에 의거하여 아나키즘은 오늘날 사회의 자유로운 발달을 보증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아나키즘이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가혹한 규율을 갖고 민중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소수의 통치자에 의한 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이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아나키스트와 국가주의자가 대립하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느 시대에나 모든 제도가 본래는 평등, 평화 및 상호 부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최선의 제도조차도 노화함에 따라 고정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의 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소수 야심가의 지배하에 귀속하여 점차 일층 더 사회가 발달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하고 만다. 그럴 적에 다소 간에 고립한 개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반역하게 된다. 불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 노화 老 化하여 억압적인 것으로 되고 만 제도에 반역하여 그것을 대중의 이익에 맞도록 개혁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에 위태로워 그 것을 그 지배하에 거두어 들인 권력을 타도하려고 노력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자들은 사회 제도 (부족, 촌락 공동체, 길드 등등) 로부터 이탈하여 오로지 그 밖에, 그리고 그 위에서려고 하며, 사회의 다른 성원을 지배하여 그 희생을 발판으로 자기네의 부를 구축하려고 기도한다.

무릇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개혁자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중의 전자에 속하고 있다. 이들의 개혁자 중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형의 인물이 있었다. 즉 공동포의모두가, 아니 그 소수자마저 같은 견해에 물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하여 압제에 반역하고 나서서, 다소라도 많은 군중을 조직하기도 하나 따르는 군중이 없을 때는 단

신으로 싸우기조차 주저하지 않는다. 어느 세상에나 이러한 혁명의 혁명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혁명가 자신들도 두가지 다른 방향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 한편은 사회의 내부에 발생한 권력에 대하여 반역하기는 했으나 권력을 근절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수중에 넣으려 했을 뿐이다. 노후화하여 억압적으로 된 권력 대신에 그들은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그 권력의 소유자가 되려고 했다. 그들은 중종선의로이 새로운 권력이 민중의 이익을 회구하는 것이고, 민중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얼마안가서 반드시 그들이 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파기되거나 했다. 이리하여 로마에 있어서의 황제들의 권력, 그리스도교 등장 후 최초의 몇 세기 동안의 교회의 권력, 중세의 도시 공화제 쇠망기에 있어서의 독재자들의 권력 등이 탄생하였다. 같은 조류는 봉건 시대 말기에 있어서의 유럽의 왕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바였다. ‘인민주의’의 황제 시저에 대한 신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의 조류와 병행하여 기성 제도를 재검토하려는 시기에 는 다른 하나의 조류가 대두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어느 시대에도 다음과 같은 개인과 사상과 행동의 조류가 있었다. 즉 그것은 한 권력을 다른 권력으로 바꿔 놓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 제도 위에 덮여 씌워진 권력을 배제하고 그런 연후에 그 자리에 다 다른 권력을 창설하려고 하지 않는 개인과 사상과 행동의 조류가 곧 그것이다. 그들은 개인과 민중과의 주권을 선언하고 민중적 제도를 이상 異常 비대한 권력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했다. 그들의 의도한 것은 대중의 집단적 정신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생활 조건과 생존의 필요에 따라서 민중의 능력이 상호 보조와 상호 보호의 제도를 다시 한번 자유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제도 시나, 특히 중세의 제도 시 (피렌체, 프스코프 등) 에서 이러한 투쟁의 많은 실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개혁자와 혁명가 중에는 한편으로 자코뱅주의자와 다른 편으로 아나키스트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나키스트적 성격의 인상을 띤 강력한 민중 운동도 과거에 발생하고 있었다. 촌락이나 도시가 강권 強權의 원리에 반항하여 봉기하고, 국가의 제기관 및 재판소와 그 법률에 저항하여 인권의 절대권을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일체의 성문법을 부인하고 각인이 자기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하여 평등과 완전한 자유와 노동의 원칙에 바탕을 둔 사회를 건설코자 했다. 아우구스투스 제국의 치세 하에 로마의 법률, 로마의 국가, 당시의 도덕 또는 부도덕에 반대하여 유태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운동에는 확실히 분명한 아나키스트적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점차 고대 헤브라이 교회와 로마 제국 자체를 모방하여 구성된 교회의 운동으로 타락해 갔다. 그 결과, 창립 당시에 간직했던 그리스도교의 아나키스트적 요소는 드디어 질식하고 그리스도교회에 로마적 형태가 가하여져 이욕고 권력, 국가, 노예제 및 억압의 지주로 타락하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교

전복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혹은 또 뿌리를 내린 불평등 [노예제, 농노제, 전제, 일정한 카스트 또는 계급의 지배권] 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빛이 사회에 침투했을 때, 이런 때에는 언제나 민중이, 억압된 사람들이, 전술한 기본 원칙을 비록 그 일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키즘은 하나의 사회 이상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법률을 규정해 주기를 바라왔던 거의 모든 철학자, 정치가들이 고취해 온 것과 본질적으로 질이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아나키즘은 일찍이 한번도 특권 계급의 이상이었던 일은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때에 따라 다소 간자각한 대중의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아나키즘의 사회 이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일의 용어 법으로 말하면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함의 미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유토피아’란 말은 저술가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관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 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 속에 성취되고 있는 사물의 관찰에 기초한 관념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토피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의 공화국, 법왕들이 몽상한 보편적 교회, 나폴레옹의 제국, 비스마르크의 몽상, 신생이란 위대한 이념을 초래해야 할 구세주의 출현을 대망하는 시인들의 메시아니즘 등이 곧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나키즘과 같이 사회의 진화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제 경향의 연구에 기초를 둔 미래 상에다 ‘유토피아’란 말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토피아적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 과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유토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경향이 재삼 인류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니 만큼 더욱더 그릇된 견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이 아말로 이른바 관습법 - 즉 유럽에서 5 세기에서 16 세기까지의 기간에 통용해 온 법의 원천이 되어 왔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3 세기 간 국가적 생활 형태의 실체를 견문한 후, 이제야 다시금 문명 사회 속에 대두하게 되었다. 문명사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우리는 아나키즘이 가능한 이상, 실현될 수 있는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라고. 하지만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 18 세기 말의 일을 상기해 보자. 북미 합중국 이 건국된 일말이다. 군주제 이외의 방식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영토에 걸친 사회를 구축코자 하는 회구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였던 것이다. 현대에는 남북 양아메리카의 여러 공화국들이, 다음으로는 프랑스 공화국이 연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공화주의자 쪽이 아니라 군주주의자 쪽이 바로 ‘유토피아’인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토피아’이란 자기의 개인적 소원에 지배되어서 이미 얼굴을 보여주 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주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는 벌써 과거의 것으로 되어 버린 사물에다

10. 아나키즘

각종의역사적정치적경제적고찰에이끌려, 그리고또최근의역사의교훈에유의하여앞서말한바와같이아나키스트는국가권력을수중에넣으려고노력하는일체의정치적당파와는전혀다른사회관을구성하게되었다.

우리가마음속에그리는사회는다음과같은것이다. 즉, 거기서는각성원간의관계가과거의억압과횡포의유산인법률에의해서규제되지않고또한일체의권력자[그권력이선거에의하여얻어졌건상속권에의하여얻어졌건간에]에의해서규제되는일이없이, 오로지자유로성립한상호의합의에의하여, 그리고또마찬가지로자유로승인된습관이나풍습에의하여규제되는그런사회이다. 이들의습관은법률이나미신의영향아래경화되거나고정화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 그것들은생활의새로운제요구와과학및발명의진보에부응하고또한점점합리적으로되고점점숭고한것으로되어가는사회이상의발달에일치하여부단히발전해가는것이아니면안된다.

이와같이하여 - 여기에는남에게자기의의지를강제하는아무런권력도없고, 인간에대한인간의통치도없고, 생활에있어서의일체의정체도없다. 거기에는자연의생활자체에보이는바와같은, 어떤때는빠르게어떤때는느리게진행하는끊임없는전진이있을뿐이다. 이리하여각개인에게행동의자유가허용되고각자타고난천분을그리고그개성을 - 요컨대각자자기속에갖고있는독자적개성적인것을피워나갈수있을것이다. 바뀌말하면여하한행위도사회적형벌의공포나초자연적인신비적보복의두려움에의하여개인위에과課하여지는일은없다. 사회는개인에대하여이개인이소여시점에수행하기를자발적으로승낙아니하는일을일체강요하지않을것이다. 이와함께만인에대하여완전한평등의권리가주어진다.

우리는어떤종류의강제도없는평등인의사회를승인한다. 더욱이이러한일체의강제의결여에도불구하고평등인의사회에서는성원의반사회적행위가사회에대하여중대한위협으로되리라고는보지않는다. 자유인들로구성된사회는현대의우리들의사회보다도훨씬잘이들의반사회적행위로부터몸을지킬수있을것이다. 금일의사회는사회도덕의옹호를경찰, 스파이, 감옥 - 요컨대그것은범죄의대학인바 - 간수, 사형집행인및재판관들에맡겨져있는것이다. 반면, 자유인의사회는무엇보다도반사회적행위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물론금일까지이들의기본원칙을실제로실현한사회는어디에도존재하지않았다. 그렇지만이들의원칙을실현시키려는희구는어느시대에도나인류속에있었던것이다. 일류의어떤부분이, 비록일시적이거나마종래에그들을억압해온권력을

에도입된‘기회주의’의최초의종자는복음서와사도행전속에벌써, 적어도신약성서를구성하는이들의문서의편찬속에명백히발견된다.

마찬가지로도, 종교개혁을발달시켜그것을도래케한저 16 세기의재세레파의운동에도극히많은아나키즘적요소가있었다. 허나이운동은제후諸侯와결탁하여농민의반란에대한루터를지도자로한종교개혁자들에의해분쇄되고농민과도시의빈민들의피비린내나는대학살에의하여탄압되고말았다. 이리하여우익종교개혁자들은점점타락하여마침내자기의양심과국가와의타협을도모했으나, 이것이바로오늘의프로테스탄티즘인것이다.

요컨대이렇게해서일반적으로사회주의를낳은저비판적및혁명적인항의에서아나키즘도또한탄생한것이다. 현대일부의사회주의자들은자본을부정하고또자본에의한노동의예속에바탕을둔사회기구를부인할뿐, 그이상으로나가지않았다. 그들은자본의진짜힘을구성하는것 - 즉무엇보다도우선, 권력과자본의존속을위하여만들어진국가와그주요한지주가되는권력의중앙집권화, (항상변함없이소수자에의하여제정되고소수자의이익에봉사하는) 법률및재판등에대하여반항하지않았다.

다른한편아나키스트는이들의제제의비판만으로만족하는자가아니었다. 그것은단지자본에대해서뿐만아니라자본주의의지주支柱에대해서도감히신성神聖을모독하는칼날을세워항거했다.

2. 18 세기의지적운동

그러나비록아나키즘이다른모든혁명적조류와같이민중속의투쟁에서발생한것이지학자의연구실에서나온것은아니라할지라도, 그것이오늘날존재하는각종의과학적철학적사조思潮속에서어떤지위를차지하는가를아는것은역시중요하다. 아나키즘은이들각종사조에대하여어떤태도를취하는가. 이들의사조중에어느것에아나키즘은주로의거하려고하는가. 또한아나키즘은자기의결론을기초하고강화하기위하여어떤연구방법에의존하려고하는가. 바꿔말하면아나키즘은어느학파에속하는가? 아나키즘은근대과학의어떤조류와가장접근해있는가?

사회주의자들의서클안에서최근보이고있는경제학적형이상학에의몰두에비추어볼때이것은미상불흥미있는문제다. 그래서나는되도록간결하게어려운용어는피할수있는데까지피하면서이문제에대답해보겠다.

19 세기의지적운동은 18 세기중엽에서말기에걸친영국및프랑스의철학자들의저작著作에기원을갖고있다.

그당시시작된사상의고조는모든인간지식을하나의전반적체계 - 자연의체계속에포함시키려는소망을갖고이들의사상가를고무하고있었다. 그들은중세의스콜라철학이나형이상학을모두포기하고대담하게도전자연 - 별의세계, 태양계, 지구, 지구표면의식물, 동물및인간사회의발달 -을자연과학의일관된방법에의하여연구해야할일련의제사실로서내다보려고했다.

참된과학적방법 - 즉귀납? 연역적방법을광범위하게사용하면서그들은자연계에서관찰되는일체의현상 - 그것이별의세계에속하거나동물계에속하거나-을자연과학이물리학의문제를다루는것과같은방식으로연구하려고시도했다.

그들은처음에먼저사실을신중히수집했다. 다음으로이것을일반화하려고할때, 그들은귀납법으로이를수행했다. 그들은일정한가설을세우기는했지만, 그가설에대하여다윈이생존경쟁에의한신종의기원에관한가설이나멘데레프가그‘주기율週期律’에대하여부여한이상의의미를부여하지는않았다. 그들은가설을, 일시적설명을제공하고사실을수집하여그연구를용이케하기위한가정假定이라고보았다. 그러나그들은이들의가정이다수의사실에적용되는지어떤지를검토하고또한연역적방법에의하여확인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잊지않았다. 이들의가설이이러한검증에불여져그것들이표현하는상호간의항상적恒常的관계의원인이밝혀지기까지는‘법칙’(증명된일반화) 이라생각되는일은없었다.

산물과공업생산물과의생산, 교환, 소비를위한다소간에공산주의적결사의관념을마음속에그리고있는것이다.

각당파는이와같이미래에관한자기의관념을갖고있다. 그것은국민의정치? 경제생활의일체의사실에대하여각당파가제각기판정을하는데도움이되는이상이고그것은또각당파가그이상에접근하고각자의목적을향하여좀더잘전진하기위한행동수단을발견케한것이다.

아나키즘은일상투쟁속에서나온것이지만, 아나키즘도또한애써자기자신의 이상을구상했다는것은당연한일이라하겠다. 그리고아나키즘의이이상, 이목적, 이희구는그것을달성하는행동수단의면에서아나키스트들을마침내다른일체의정치적당파로부터, 마찬가지로또대개의경우사회주의적당파로부터도분리시키게되었다. 왜냐하면후자의제당파는구래舊來의로마적? 교회법적국가의 이상을보유하고이것을그들이꿈꾸는미래사회로전하여줄수있다고믿고있으니말이다.

국제결사에구축된정치권력이얼마나나쁜것인가를백일하에폭로했다. 이불행한결의의결과, 그때까지경제적혁명적투쟁, 즉고용주의자본주의에대한노동조합의직접투쟁에기울여왔던인터내셔널의힘은정치운동과선거와의회동으로돌려지게되었다. 그러나여기서는그힘이헛되이낭비되고파괴될수밖에없었다.

이결의는런던의총무위원회에대한라틴연합 - 스페인, 이탈리아, 유라및베르기의일부예의한공공연한반항을일으켰다.[프랑스에서는인터내셔널은엄중히금압되고있었다.] 아나키즘운동은이반향에서발생하여금일에이르기까지계속되고있다.

이처럼아나키즘운동은언제나어떤거대한실천적교훈의인상을받고발생했다. 그것은생활자체의혼계에서나온것이다. 허나일단발생하고보면, 그것은즉시자기의이론적, 과학적표현과기초를발견하려고노력했다. 여기서과학적이라함은불가해한은어隱語로가장하지도않거나와케게묵은형이상학과결부하는것도아니라그시대의자연과학속에자기의기초를발견하고스스로도자연과학의한부분部門으로전화하려고한다는의미다.

동시에아나키즘은자기의이상의전개를위하여꾸준히일했다.

어떠한투쟁도, 만약그것이무자각한것이라한다면 - 만약그것이자기의목적의구체적, 현실적파악을결하여있다면성공을거둘수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파괴와파괴로이끌어가는투쟁의시기에, 파괴하려고하는것대신에출현해야할것은무엇인가에대하여사람들이그관념을마음속에갖고있을것, 이것이긴요하다. 현재존재하는것대신에새로이만들어내고자하는것에관한소나마명확한이미지를머릿속에그리지않고서는지금존재하는것을이론적으로비판하기조차불가능할것이다. 현재제도의비판자라면누구나그심중의의식적으로선무의식적으로건이상 - 즉보다나은것에대한관념 - 이그려지고있는것이다.

‘우선자본주의를, 또는전제주의를파괴하자. 그런뒤에무엇이그뒤에올것인지알것이다’

이렇게말하는것은자기자신과남을속이는일에불과하다. 하지만기만예의하여힘이산출된예는없다. 사실인즉이렇게말하는사람조차도그가공격하는것대신에새로만들어내고자하는것에관하여얼마쯤의관념을품고있는것이다. 이를테면러시아에서전제주의를파괴하기위하여몸을바친투사들의어떤이는가까운장래에영국형또는독일형의헌법의수립을마음속에품고있다. 다른이는아마도자기네의당의강력한독재아래종속하는공화국을, 또는프랑스형의군주주의적공화국을, 혹은또복합중국형의연방공화제를꿈꾸고있다. 끝으로제 3 의사람들은국가권력을일층제한할것을 - 즉서로연합의메뉴대로결합된각도시, 코뮌, 노동조합및기타모든집단에보다큰자유를주려고생각하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자본주의를공격하는사람은누구나, 현재부르주아적자본주의에대체하기를바라는것에대해서의명료한또는막연한무엇인지의관념을갖고있다. 즉국가자본주의가아니면국가공산주의를, 그것도아니라면끝으로농업생

18 세기의철학운동의중심이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에서프랑스로 옮겨진 때, 프랑스의철학자들은그들에게고유한체계구성에대한열정을갖고자연과학도역사과학도모든인간지식을보편적계획에의하여동일의원리위에건설하기시작했다. 그들은보편적지식을 - 즉전우주와그생활의철학을엄밀히과학적형태로구성하려고노력했다. 그들은그럴적에, 전시대의철학자들이구축한일체의형이상학적구성을포기하고지구의기원과발달을만족스럽게설명할수있다고생각된물리적 (즉역학적) 제력諸力の운동에의하여모든현상을해명하려고했다.

나폴레옹 1 세가라프라스를향하여그의「우주체계론」에는어디에도신의이름이언급되어있지않다는것을지적했을때라프라스는“나는그러한가설의필요를느끼지않습니다.”라고대답했다는것이다. 그런데라프라스는그것만을한것은아니었다. 그는또현상의불가해성不可解性, 또는애매하고어중간한현상파악및제사실을계산할수있는양으로써구체적형식으로고찰하는능력의결여를배후에숨기고있는저허장성세의형이상학적미사여구에호소하려하지않았다. 라프라스는조물주라는가설과함께형이상학도폐기한것이다. 그러면서도그의「우주체계론」은조금도수학적계산을포함하지않고도교육받은독자면누구나알만한말로쓰여있었는데수학자들은후일이책에서술된개개의사상을정확히수학방정식으로, 즉계산될수있는양의상호간의관계로표현할수있었던것이다. 라프라스는그만큼정확히생각하고표현했던것이다.

라프라스가천체역학에관하여수행한것을 18 세기의프랑스철학자들은당시의과학의한계내에서생명현상의연구에대하여, 또한인간의이성과감정의연구 (심리학) 에대하여행하고자했다. 그들은그선구자들이나그후의독일의철학자칸트의저작에전개된형이상학적사변思辨을폐기했다.

사실주지하는바와같이, 칸트는인간의도덕적감정을증명코자하여그것이‘지상명령’의표현이라고말하고, 또행위의격률格率이의무로되는것은그것이‘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법칙’으로서받아들일수있는’경우라고논하였다. 그러나이정의예사용된용어는어느것이냐주지의도덕적사실을설명하는대신에애매모호해서이해하기어려운어떤것 (‘명령’이니‘지상’이니‘법칙’이니‘보편적’이니하는) 을표시하고있다.

프랑스의백과사전파는이러한‘거창한말’을갖고하는‘설명’에만족하지않았다. 스코틀랜드나영국의선배들과마찬가지로그들은인간이어디로부터선악의관념을얻어왔는가를증명코자할적에괴테의표현을빌린다면, ‘사상의공허함을숨기기위한언어’를삽입하려고하지는않았다. 그들은인간을연구했다. 그리고이미 1725 년에하치슨이한것처럼, 또한그후아담스미스가명저『도덕적감정의기원』에서한것처럼, 그들도또한인간의도덕적감정은괴로워하고있는자에대하여느끼는연민과동정의감정에그기원이있다는것을발견했다. 다시말하면그것이우리자신을타인과의동화한다고하는우리에게주어진성능에서발생했다는것, 우리의면전에서아동이매맞는것을볼때우리는거의생리적고통을느끼게되고우리의천성은이러한행위에반항한다는것을그들은발견한것이다.

이와같은관찰과만인주지의사실에서출발하여백과전서파는광범한일반화에도달했다. 이렇게해서그들은복잡한현상인도덕적감정을보다단순한제사실에의하여실제로설명한것이다. 그들은주지의이해하기쉬운제사실대신에‘지상명령’이니‘보편적법칙’이니하는종류의, 아무것도전혀설명하지않는불가해하고애매한용어를쓰지는않았다.

백과전서파의방법이지니는이점利點은명료하다. ‘천계天界로부터의영감’을이러쿵저러쿵말하는대신에, 도덕적감정에관한인간계이외의초자연적기원을말하는대신에, 그들은이렇게말했다.

“인간이이지상에출현한이래인간속에는언제나연민과동정의감정이있었으니, 그것은동포를관찰하는데서확인되고차차사회생활의경험에의하여완전한것으로된감정이다. 우리의도덕관념은이감정에서발생하고있다.”

이리하여 18 세기의사상가들은그연구방법을변경하지않고천체의세계에서화학적반응의세계로, 그리고물리적세계와화학적세계에서동식물의세계로, 다시사회의경제적정치적형태의발달로, 또한종교기타의진화로움아갔다. 방법은언제나동일했다. 과학의모든부문에서그들은언제나귀납법을적용했다. 그들은종교의연구에있어서, 도덕적감정의분석에있어서, 또한사유일반의해부에있어서, 그들의방법이실패하여다른방법을필요로했다는단하나의예에도마주치지않았다. 또한그들은어떤경우라도형이상학적개념(초월적존재에의하여고취된신이니, 불사의영혼이니, 생명력이니, 지상명령이니하는)이나변증법적방법에호소할필요가없었다. 그런까닭으로그들은동일한자연과학적방법에의하여전우주와그전현상을해명하려고한것이다.

현저한지적발달이성취된이시대에백과전서파는자기념비적인가치가있는『백과전서』를작성했다. 라프라스는『우주체계론』을, 돌바흐는『자연의체계』를발표했다. 라보아제는물질의불멸, 따라서또한에너지와운동의불멸을주장했다. 러시아의로마노소프는베이의자극을받아이무렵에벌써열에관한역학적이론을구성하고있었다. 라마르크는동식물의무한한변종의출현을상당한환경에의적응에의하여설명했다. 디도르는천상계天上界로부터의영감에호소하지않고서도덕적감정과습속, 원시적제도와종교를설명하려고했다. 루소는정치제도의탄생을설명코자사회계약에, 즉인간의의지적행위에의거하려고노력했다. 요컨대사실을기초로하여사실의관찰과경험에의하여검증된자연과학적귀납과연역이란동일의방법에의하여기도되지않은연구영역은하나도없었던것이다.

물론이러한거대하고대담한시도에오류를범한예가없는바아니다. 이당시에는아직지식이부족한분야에서는때로는앞질러나간, 때로는전혀그릇된가정이세워지고있었다. 그렇지만새로운방법이인지의전부문에적용되었으며이방법의덕택으로오류자체도뒷날에손쉽게발견되고정정되었다. 19 세기는이리하여강력한연구방법을계승했다. 그리고이방법이야말로우리의세계관을과학적기초위에구성할수있게끔했으며, 그것은또난관을회피하려고하는악습의결과도

9. 아나키스트의이상과선행의제혁명

아나키즘은전술한바와같이실제생활의지시하는바에서나온것이다.

1789 년?93 년의프랑스대혁명의동시대인인고드윈은혁명기에혁명의제력諸力에의하여탄생한정부권력이이번에는역으로혁명운동의발달에브레이크를거는것으로된사정을그의눈으로직접목도했다. 그는또영국의회의그늘에숨어서영국에서무엇이행하여지고있었던가를알았다. 그것은공유지의강탈이고, 유리한정부관직의매매이고, 빈자의아이들이영국전국에파견된특별계원회의하여모집되어작업장에몰아세워지고랑카시아의공장에보내어지고, 거기서떼를지어죽어갔다는것들이었다. 고드윈은또다음사실을이해했다. 즉정부는, 가령그것이자코뱅당의‘유일불가분의공화국’이라하더라도, 필요한혁명을 - 사회적공산주의혁명을완수하지못한다는것, 혁명정부라할지라도모든정부가옹호하지않으면안되는국가의수호자이고특권의보존자라는이유만에의해서도머지않아혁명의장애물로전화轉化한다는것이다. 혁명이승리기위해서는사람들이무엇보다도먼저법률, 권력, 질서, 재산권기타노예적과거로부터계승한각종의미신에대한신앙에서벗어나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아나키즘의사상을고드윈은이해하고표명했던것이다.

고드윈뒤에나타난제 2 의아나키즘이론가푸르동은 1848 년의좌절한혁명을체험했다. 그도역시그의눈으로공화국정부가범한범죄를바라보고동시에루이블랑의국가사회주의가얼마나무력한것인가를확실했다. 1848 년의운동기간에얻은체험의생생한인상아래그는『(19 세기에있어서의) 혁명의일반적이념』을쓰고여기서대담하게국가의폐지와아나키를선언했다.

끝으로인터내셔널에있어서도아나키즘의이념은마찬가지로혁명직후즉 1871 년의파리코뮌뒤에성숙했다. 코뮌의평의회 - 그것은당시의전혁명당파의대표 [자코뱅주의자, 블랑키스트, 국제주의자등] 를매우적절한비율로포함하고있었는데 -의완벽한혁명적무력, 런던에설치된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마찬가지무능및영국에서발송하는지령에의하여파리의운동을지배하려고하는어리석고도유해한요구권 - 이와같은두가지교훈은많은사람들의눈을열어주었다. 이와같은사태에직면하여바쿠닌을포함한인터내셔널의여성원들은일체의권력의해독에대하여 - 비록그것이코뮌이나노동자의인터내셔널에있어서처럼자유로선출된것이라할지라도 - 깊이생각하게됐다.

그로부터몇달지나, 매년개최하도록된대회대신에 1871 년에런던에서가만히소집된비밀협의회의석상에서채택된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결정은노동자의

자연과학의연구에사용된귀납법은그효능이입증되었고, 19세기백년간에
그이전의과거이천년에걸친기간에있어서보다더많은과학의진보를가져왔다.
그리고 19세기후반에인간사회의연구에이방법이적용되기시작했을때, 이것
을버리고헤겔이부활시킨중세스콜라철학으로되돌아가도록요구되는어느대목
에도마주치지않았다. 뿐만아니다. 자기의부르주아적교육을신봉한자연과학자
들이다윈주의의과학적방법에의거한답시고우리에게설교하기를‘너희보다약한
자를모두절멸하라. 이야말로자연의법칙이다’라고말할때에도이들의학자가사
도邪道에빠지고있다는것, 그따위법칙은있지않다는것, 자연은이것과는전혀
다른것을우리에게가르치고있다는것, 이러한결론은전면적으로비과학적이라
는것을우리는이동일한과학적방법에의하여손쉽게논증할수있었다. 우리들로
하여금민게끔만들려고하는다음과같은명제에대해서도마찬가지말을할수있다.
즉부의불평등은‘자연의법칙’이고자본주의적착취는훨씬유리한사회조직의형
태라고하는명제말이다. 다른아닌자연과학의방법을경제적사실에적용함으로
써우리는이러한부르주아사회과학 - 정치경제학을포함해서 -의이른바‘법칙’이
란것은법칙근처에도못간것이고, 단순한주장또는가설에불과할뿐더러아직실
제로검증된일조차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을것이다.

두서너가지더부연하겠다. 과학적연구가풍부한성과를가져오는것은다음과
같은조건에있어서다. 즉연구가일정한목적을갖고또그리고특정의정확히제기
된문제에대한해답을발견코자하는의도를갖고서계획된때라고하는것이다. 그
리고모든연구는, 해결을위하여제기된문제와우리의세계관의기본선과의사이
에존재하는관계가명료하게이해되면될수록더욱더많은열매를맺을것이다. 이
문제가우리의세계관의일반적테두리속에확고히편입될수록그해결도보다용이
한것으로된다.

그런데아나키즘이제기하는문제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겠다. 즉‘여하한
사회형태가소여所與의사회에있어서, 따라서또한인류일반에있어서행복의최
대량을, 그런까닭으로도한생활력의최대량을가장잘보증할것인가’- 나아가‘여
하한사회형태가가장잘이행복의총계를양적으로나질적으로성장발달시킬것인
가, 즉행복을보다완전하고보다일반적인것으로되게할것인가’라고.

이것은또겸하여진보를우리에게제공한다. 진화를이러한방향으로촉진시키
고자하는소망이나나키스트의사회적, 과학적, 예술적등등의활동의성격을결정
하는것이다.

입된우리의세계관을흐리게하는편견이나또는무의미하고애매모호한용어의일
소를가능케하는것이다.

3. 19 세기초의반동

주지하는바와같이프랑스대혁명의패배이후유럽은정치의영역에서나과학과철학의영역에서나일반적반동의시기를맞아했다. 부르봉왕가의백색테러, 자유주의이념과싸우기위하여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황제들간에 1815년에맺어진신성동맹, 유럽의상류사회층에유행하기시작한신비주의와경건주의, 도처에출현한국가경찰등이모든방면에서개가를울렸다.

그러나다른편, 혁명의근본원리는사멸하지않았다. 지금까지반노예적상태에얽매어왔던농민과도시노동자의해방, 법의앞에서의평등, 대의정치 - 이들의의세가지원리는프랑스혁명에의하여선언되고혁명군에의하여멀리폴란드에이르기까지전유럽에전파되어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전유럽에진출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대원칙을최초에선양한혁명뒤에점차적근대화 - 즉제도의점차적변화의과정에서시작되었다. 다시말하면 1789 년에서 1793 년까지의동안에선언된일반적원칙이일상생활속에적용되는과정에서시작된것이다. 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천명된원리가그후진화의길을따라실현을보게됨은사회발전의일반법칙이라고봐서무방할것이다.

비록사회와국가및과학마저혁명이‘자유? 평등? 우애’라는자기의부르짖음을써넣은깃발을짓밟고있었다할지라도, 또설사현존질서에의적합이당시는철학에서마저일반적슬로건으로되었다할지라도, 자유의대원칙은그럼에도불구하고생활속에침투해갔다. 허기야이탈리아와스페인에있어서프랑스혁명군이일찍이폐지한농노제와이단규문異端? 問제도가이제다시재건되기는했지마는, 그러나이미이들의제도에치명상이가해져있어거기에서회복할수는없었던것이다.

해방의물결은우선최초에서부독일에미쳤고, 계속해서프로이센과오스트리아에밀어닥쳤고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반도에번져갔다. 다시동방으로흘러가 1861 년에는러시아에다다랐고, 1878 년에는발칸제국諸國에까지흘러갔다. 북아메리카에서는 1863 년에노예제도가자취를감추었다. 동시에법앞에서의만인의평등과대의정치의이념도또한서방에서동방으로확대하여 19 세기말에는러시아와터키만이전제專制의굴레를쓴채남게되었다 - 물론그나마극히취약화한전제에지나지않았지만.

그뿐이아니다. 18,19 양세기의경계에경제적해방이란이념이소리높이선언되고있다. 1792 년 8 월 10 일파리의민중이왕권을무너뜨린직후, 특히 1793

감추어진일반화의맹아가구체적인사실의언어로번역되었듯이, 우리는사회생활의사실에대할때, 이러한방식으로접근해가려고한다.

형이상학자는인간의지적생활과감정생활이‘정신의내재적법칙’에따라발전하는것이라고자연과학자에게설득하려고한다. 그러나자연과학자는이와같은설명에고개를가우뚱하며생명? 지식? 감정의제현상에대한자기네의연구를참을성있게추진하여이것들이모두물리적, 화학적현상으로환원될수있다는것을논증하려고한다. 그들은이러한현상들의자연법칙을해명하려고노력한다.

이와똑같이헤겔의학설에따라일체의진화는‘정? 반? 합’을표현한다느니‘법의목적은정의의확립이고, 그것은지고의이념의물적실체화’라느니하는따위의설교를아나키스트에게들려줄때, 혹은또‘생의목적이란무엇인가’라고아나키스트에게질문할때, 그는마찬가지로고개를가우뚱하며이렇게자문할것이다. 즉“자연과학이현대처럼발달하고있는데여전히이러한‘케케묵은것’을믿고있는낡아빠진사람들이지금도있다는것은, 또한자연을‘의인화擬人化’하여인간의모습을한존재물에의하여지배되는것으로자연을본원시적미개인의말투로여태껏지껍리고있는뒤떨어진인사가현재도생존하고있다는것은도대체어찌된일일까”라고.

아나키스트는이러한‘듣기좋은말’에승복하는자는아니다. 왜냐하면이러한말들은언제고반드시단지무지無知를 - 즉불완전한연구를 - 감추는것이거나아니면더욱나쁘지만미신을감추는데에유용할뿐이라는것을알고있으니말이다. 따라서아나키스트가이런종류의말을들때그들은그것을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흘려버린다. 그들은자연과학적방법에따라과거와현재의사회관념및제도의연구를계속한다. 그리고인간사회의발전은이들의형이상학적정식을갖고판단할때생각하기보다사실인즉 훨씬무한히복잡한 [또한실천적목적에대하여일층흥미로운] 것임이명백하다.

우리는최근사회민주주의자들이사회주의적이상을구성함에있어서추존하는변증법적방법이란것에대하여다변多辯을농弄하는것을듣는다. 그러나어느자연과학에의해서도이것이승인되지않듯이, 우리도이방법을승인하지않는다. 금일의자연과학자에대하여이‘변증법적방법’이란것은오래전에이미사멸한것, 다행히과학의기억에서사라진지오래인것을상기시킨다. 19 세기에있어서의어느발견도, - 역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에있어서의어느발견도변증법적방법에의하여성취된것은아니다. 무릇이들의발견은유일의과학적방법인귀납법에의하여성취된것이다. 인간은자연의일부이고인간의개인적및사회적생활은꽃의피어남과같이, 또한개미나벌의사회생활의발전과도같이, 자연적현상이니까우리가꽃에서인간으로, 또한해리海狸의정주지定住地에서인간의도시로연구를진행해나갈때, 지금까지우리의연구에극히유효했던방법을저버리고형이상학의영토에서다른방법을빌려올까닭은조금도없는것이다.

8. 근대과학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지위

아나키즘은 19 세기의위대한지적운동에서어떤지위를차지하는가. 이물음에대한해답은앞에나온여러장에는술한바에서시사되고있다. 아나키즘은인간의사회생활을포함시켜자연환경을포괄하는현상의역학적해명에바탕을둔우주관이다. 그연구방법은자연과학의방법이니이방법에의하여일체의과학적결론이검증되지않으면안된다. 그경향은, 자연은온갖현상 - 인간의사회생활과그경제적, 정치적, 윤리적문제를포함시켜 - 을포섭하는종합철학을기초로두고, 그럴적에전술한바의원인으로말미암아공트나스펜서가범한오류에빠지지않고서그것을수행함에있다.

그런까닭에아나키즘은분명코근대생활에서제기된모든문제에대하여여태껏낡은형이상학적신앙에서해방되지못한정치적당파나, 또한마찬가지로어느정도로는사회주의적당파가제공하는해답과는다른해답을주고또한이들의당파와는다른입장을취하지않으면안된다.

물론자연과인간사회의완전히역학적인관념의구성은, 사회생활과그발달을대상으로하는사회학적부문에서는이제막착수했을뿐이다.

허나그럼에도불구하고, 확립된몇가지성과는 - 때로는무의식적으로그렇게되었음에불과하다 - 전술한성격을벌써띠고있다. 법철학에서도, 도덕이론에서도, 경제학에서도, 또한제국민과제제도의역사연구에있어서도, 아나키스트들은형이상학적결론에만족하는자가아니라자기의결론의자연과학적기초불임을탐구하는자임을증명하고있다.

그들은헤겔, 쉐링, 칸트등의형이상학에굴복하기를거부하고, 로마법이나교회법의주석자註釋者들, 학식있는국가법의교수들, 형이상학적정치경제학자들의영향아래서려고하지도않는다. 그들은자연과학자의견지에서최근 4,50 년간에수행된일련의업적에입각하면서이들의학문영역에서제기된모든문제에대하여명쾌한답을주려고노력한다.

각종형이상학적관념, 이를테면‘세계정신’, ‘창조적인자연력’, ‘물질의사랑의힘’, ‘이념의화신’, ‘자연의목적과그존재이유’, ‘불가지적不可知的인것’, ‘정신의영기靈氣’에고취된존재라는의미로해석된‘인류’따위의관념이이제야유물론적인 [역학적내지동력학적] 철학에의하여포기되고이들의용어의배후에

년 6 월 2 일에지롱드당을타도한후에파리를비롯하여전국의대도시에서의혁명지부支部나지방소도시의공청公廳의대부분도이방향으로행동했다.

프랑스지식인들은평등이단순한구호에그칠것이아니라사실로되지않으면안된다고선언했다. 그리고혁명이‘음모자 - 국왕들’에대하여수행되지않으면아니되었던전쟁의과정에서그중압이무엇보다도먼저빈민층위에덮여쓰워진결과, 민중은국민공회의원들에게약간의공산주의적, 즉평등주의적정책을취하게끔강요했던것이다.

국민공회자신도공산주의의방향으로나가고록강제되어‘빈곤의근절’과‘재산의평등’을목적으로하는일련의조치를채택했다. 1793 년 5 월 31 일에서 6 월 2 일간의봉기에의하여지롱드파가정부에서축출된후, 공회는토지뿐만아니라상업의, 적어도생활필수품의교역의국유화를기도하는일련의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뿌리깊은이운동은 1794 년 7 월까지계속되었는데이때에지롱드당의부르주아반동파가왕당파와결탁하여테르미도르 9 일에다시권력을잡았다. 이리하여이운동은단기간밖에계속하지못했다고는하지만그것은 19 세기에자기의명백한각인을 - 즉가장진보적인형태의공산주의적및사회주의적경향성을부여했다.

1793 년?94 년의운동이계속되고있는동안에민중출신의변사辯士가나타나운동의이념을표현했다. 그러나이시기의프랑스의문필가들중에는이들의이념 [당시그것은‘마라를넘어서’라불리고있었다] 에다이론적표현을부여하여사람들의마음속에영속적영향을미칠수있는사람은하나도없었다.

겨우영국에서 1793 년에고드윈이등장하여참으로주목할만한저노작勞作『정치적정의및그사회도덕에대한영향에관한고찰』을공간公刊했다. 고드윈은이책에서‘자주인적’사회주의즉아나키즘의최초의이론가가되었다. 다른한편으로바부프 [아마도보나로티의영향을받고는] 1795 년에중앙집권적사회주의, 즉국가사회주의의최초의이론가로서나타났다.

다음으로 19 세기가되어앞서말한것처럼, 18 세기말에선양된원리를발전시키면서현대사회주의의 3 인의시조始祖가중요한 3 학파를대표하고출현했다. 푸리에, 생시몽, 로버트오언이곧이들이다. 다시 40 년대로내려가면푸르동 이등장하여고드윈의노작을아는바없이새로아나키즘을기초해놓았다.

이리하여강권적및반강권적쌍방의사회주의의과학적기초는 19 세기초경에벌써풍부하게게척되고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금일의사람들에게등한시되고있다. 그런데인터내셔널의창립에비롯한근대사회주의는두가지점에서만 - 그것은극히중요한점인데 - 이들의사회주의창시자들보다전진하고있다. 그 하나는근대사회주의가혁명적으로되었다는점이고, 다른 하나는 1848 년까지즐거말해지던‘사회주의자? 혁명가로서의크리스트’라는관념을씻어없앴점이다.

근대사회주의는그이상을실현하기위하여사회혁명에필요불가결하다는것을이해했다. - 이경우사회혁명이란것은‘산업혁명’이니‘과학혁명’이니말할때

쓰이는 의미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용어의 정확하고 명료한 의미에서의 혁명, 즉 사회의 기초 자체의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사회주의는 약간의 그리스도교적 개혁자들이 제창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선티멘틀한 개혁에 자기의 견해를 혼동시키기를 그만두었다. 물론 이 점은 이미 고드윈, 푸리에, 로버트 오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행정, 중앙집권, 권력과 규율에의 궤배? 拜와 같은 것은 인류가 신정주의 神政主義와 로마제국의 법률에서 배운 것인데, 라브로프가 분명히 지적한 이들의 어두운 과거의 '유물'은 여태껏 많은 사회주의자를 완전히 얽어매고 있다. 그들은 이 점에서 프랑스나 영국의 선구자들의 수준에도 미달한 형편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에 기승을 부리던 반동이 과학의 발달에 끼친 영향에 관하여 여기에는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면 족하겠다. 즉 현대 과학이 금일 자랑하는 성과의 전부가 벌써 18 세기 말에 시사되고 있었다는 것, 아니 시사 뿐 아니라 때로는 정확한 과학적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학적 열이론, 운동 불멸설 [에너지 항존 恒存], 환경의 직접적 영향하에서의 종의 변화, 생리학 적 심리학, 역사? 종교? 법의 인류학적 고찰, 사상의 발전 법칙 -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과학적 세계관과 종합 철학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및 사회적 인 전 현상을 전체적,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철학] 은 18 세기에 벌써 소묘 素描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 반동이 승리함과 동시에 19 세기에 걸쳐 이들의 발견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시작되었다. 반동적 학자들은 이들의 발견을 '비과학적'이라 불렀다. 처음에 먼저 '사실'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 구실을 앞세워 그들은 학계에서 단순한 측정 에 불과한 연구 마저 배척하려고 했다. 이를테면 형제 세구안 에 의하여, 그 후 주르 에 의하여 수행된 열량의 작업량 作業當量의 결정 법 [일정의 열량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적 마찰 양] 도배척되었던 것이다. 금일의 영국 과학 아카데미에 해당한 '왕립 협회' 마저 주르의 연구를 '비과학적'이라 하여 출판 을 거절했다. 더욱이 힘의 통일에 관한 글로브의 주목할 만한 저작은 1843 년에 쓰였는데 1856 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등한시 되고 있었다.

19 세기 전반의 과학사를 읽으면 프랑스 혁명 패퇴 후 유럽에 얼마나 깊이 암운이 덮여 있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구름의 막은 돌연 50 년대 말에 걷히기 시작했다. 이때 서방에서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 가르바디의 쫓기, 이탈리아의 해방, 아메리카에서의 노예 제 폐지,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적 개혁 등 이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운동의 결과 농노제와 태형 拷刑의 폐지로서 나타났다. 철학에서는 쇠링과 헤겔의 권위 실추를 일으키고 니힐리즘이란 이름으로 불린 정신적 예측과 일체의 권위에의 궤배에 대한 대담한 부정 을 산출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의 지적 발달을 회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된다. 즉 과학을 짓누르고 있던 속박 을 타파 하기를 도운 것은 30?40 년대에 행하

노예를 의미 할 만큼 고액이었다. 이와 같은 배상액의 차이가 규정되도록 된 애당초의 사상은 틀림없이 싸움에서 살해된 수장의 가족은 가장 을 살해당한 보통 자유인의 가족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전자는 후자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법률로 전화 轉化 함과 함께 인간의 계급 분화는 그 후 오래 합법화 하게 되고 금일 까지 우리는 이러한 분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견고하게 법 제화 하는 결과로 되었다.

이것과 같은 것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입법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말하자면 전 시대에 행하여진 억압이 입법화 되어 항상 그 뒤 시대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부정은 그리스에 전해졌다. 마케도니아의 부정은 로마로 이행했다. 로마 제국과 동방의 참주 제 僭主制의 압제와 잔학은 갓 생긴 어린이 만족의 여러 나라와 그리스도 교회에 전 송 傳送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과거는 법률에 의하여 미래를 얽어매는 것이다.

사회 생활에 필 요불 가결한 보장의 전부, 민족적 생활 양식이나 농촌 공동체나 중세 제도 시에서의 사회 생활 형태 등의 전부, 또한 부족간의, 내려와서는 그 후 국제법의 기초로 된 공화 제도 시간의, 관계의 전 형태 - 한마디로 말해서 배심원의 재판 제를 포함 한 상호 부조와 평화 옹호의 형태의 전부는 무명의 민중의 창조적 천재가 산출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고대의 법전에서 금일에 이르는 모든 법률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서 구성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만인에 의하여 유익한 것으로 승인된 일정한 관습적 생활 형태를 확인, 고정 시킨 것이다. 다른 편으로, 둘째 요소는 기존 관습에 다 불인 부가물 - 그것은 종종 단순한 부가물이 간 하나 음험한 방식으로 기존 관습을 정식화 定式化 한 것으로서, 그의 도하는 바는 주인, 전사, 왕후 王侯, 승려 등의 발생 도상의 권력을 착안 시켜 굳혀 놓는데에, 즉 그들의 권력을 강화 하고 신성화 하는데에 있다.

과거 40 년간 행한 사회 발전에 관한 양심적인 많은 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는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 들을 이끌어 준다. 앞에서 말한 그러한 이 단적 결론을 학자들 자신이 대담하게 정식화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주의 깊은 독자 라면 그들의 노작 을 읽고 이러한 결론 에 도달 할 것은 필연적 이다.

빙하시대의어둠속에파묻혀있는아득히먼태고시대에도사람들은사회를이루어생활하고있었다. 그리고이들의사회속에서소중히준수되어온일련의습관과제도들이만들어져공동생활이가능케되고있었다. 그후도인류발달의전과정을통하여새로운조건들이발생함에따라새로운형태의사회생활, 상호부조, 평화의보장이이들의이름도없는군중의창조력에의하여형성된것이다.

다른한편으로근대과학은다음과같은것을아주명료하게보여주고있다. 즉일체의법률은, 그상상의기원이어떠한것이건간에 - 그것이신으로부터나왔다고주장되건, 혹은또그것이현명한입법자의손으로만들어진것이라논하여지건 - 여하튼, 일체의법률은기존의관습을고정하여항상적恒常의형태로결정結晶시키거나아니면그것을확대하거나했음에불과하다는것이다. 무릇고대법전은후세에전하기위하여문자로기록되거나혹은돌에새겨넣어진관습과전승傳承의수집에불과했다. 다만이경우법전은이미만인에의하여받아들여지고있는관습외에무장한호전적소수의부자들의이익에봉사하는약간의새로운규칙을부가하는것이상례였다. 이들의소수자에게유리한불평등과예종隸從의새로운관습은이러한법규에의하여강화되도록되는것이였다.

이를테면모세의법은이렇게말하고있다. ‘너희들죽이지말라, 너희들흠치지말라, 너희들거짓증언을하지말라’고.

그런데이들의훌륭한행동의규칙에다그는이렇게부가했던것이다. ‘너희들이웃사람의처, 그의노예, 그의당나귀를취하지말라’고.

이리하여그결과모세의입법은오래도록노예제를합법화함과함께부인을노예나태마? 馬와같이다루기를허락한것이다. 그후그리스도교는‘너희들이웃을사랑하라’고말했다. 헌데여기서도당장사도바울의입을통하여이렇게부가되었다. ‘노예는자기의주인에게복종해야한다’, ‘신으로부터나오지않은권력은없다’고. - 이와같이해서주인과노예와의구별을합법화하고, 신성화하고, 당시로마를지배하고있던악당들의권력을성화聖化한것이였다.

그리스도교의진수라할만한용서라는지고의이념을가르치는복음서조차다른편으로는언제나복수하는신에관하여말하고그것에의하여복수를설교하고있다.

로마제국몰락후의이른바만족蠻族들 - 고르인, 론고바르도인, 게르만인, 색손인, 슬라브인 -의법전에있어서도사정은마찬가지다. 그들의법전은일찍이행하여지고있던복수의법칙 [눈에는눈을, 이에는이를, 상해에는상해를, 죽음에는죽음을] 대신에당시일반으로보급되어있던의심할여지없이좋은관습, 즉상해나살해에대하여배상금을지불한다는관습을입법화했다. 이와같이만족의법전은씨족시대에지배한혈수제血讐制와비교하면진보한것이기는했다. 허나동시에그것은이시대에희미하게나타난자유인의계급분화를확립하게된것이다.

노예에대해서는얼마만큼의배상금을지불해야하고 [이경우배상금은노예의주인이받는다], 자유인의경우는얼마, 수장首長의경우는얼마의금액을, 이런식으로이들의부족법전은규정했다. 후자의경우배상금은가해자에대하여필생의

여진공화주의적및사회주의적이념의선전이고또한 1848 년의혁명이었던것이다.

사실이점은상술할것까지도없어다만다음의사실을주목하는것으로서충분할것이다. 즉앞서말한세구안도, 오귀스탄티에리 [중세에있어서의코원의민중적기구와연합주의적이념의연구의창시자] 도시스몬디 [이탈리아자유도시에관한역사자] 도모두 19 세기전반의 3 인의사회주의의시조중의한사람인생시몽의제자였다는사실이다. 또한다윈과때를같이하여자연도태에의한종의기원의이론에도달한알프레드 R 월레스는청년시대에로버트오언의열렬한귀의자歸依者였다.

오귀스트공트는생시몽주의자였고리카도도벤담또한오언주의자였다. 다른편으로유물론자칼포코트와 G. 루이스는글로브, 밀, 허버트스펜서, 기타여러사람들과같이 30 년대와 40 년대의영국의급진적사회주의운동의영향을받고있었다. 이운동에서그들은각기과학적작업에있어서의용기를길러오고있었던것이다.

1856 년에서 1862 년에이르는불과 5,6 년의단기간에글로브, 주르, 베르트로, 헤름호르츠, 멘데레프등의업적, 다윈, 그로드베르나르, 스펜서모레쇼트, 포코트등의여러저작, 인류의기원에관한라이에르, 베인, 밀, 뷔르노프의여러저작, 이러한업적이한꺼번에꽃핀결과, 당시의학자들의기본적견해에일대변혁이생기고과학은일제히새로운길로매진하게되었다. 인지人知의전부분은놀라운속도로정비되었다.

생명의과학 [생물학], 인류의제제도의과학 [인류학과민족학], 이성, 의지 및감정의과학 [생리심리학], 법과종교의역사등은우리의안전眼前에급속히성장하고그일반화의대담성으로말미암아, 또한그결론의혁명적성격으로말미암아, 우리의마음에충격을주었다. 전세기에서는단지막연한가정에불과하고가끔추측에불렀던것이이제야저울과현미경으로증명되어수천회의관찰과실험에의하여검증된것으로되었다. 저술방식자체도아주달라졌다. 앞서말한학자들은한사람의예외도없이귀납법의특징으로되고있는문체의간결함과정확함과아름다움으로되돌아갔다. 그리고이러한문체는형이상학을폐기한 18 세기의문필가들의것이기도했던것이다.

금후과학이어떠한방향으로추이해갈것인지는예언할수없다. 학자들이오를과같이부자와정부에의존하고있는한, 그들의과학은불가피하게그영향을받지않을수없겠고, 19 세기전반에보던바와같은과학의침체가재현하지않으리라는법도없다. 그러나단한가지확실한것이있다. 즉오늘보는바와같은과학에대해서는라프라스가그것없어도해나갈수있던저가설이라든지괴테가조소嘲笑한그런형이상학적‘잠꼬대’같은것은무용의사족에불과하다는것이다. 우리는유기적생과인류의생의발달을포함해서저대자연이란서적을읽을수있는것이다. 이서적을이해하기위하여우리는조물주라든지신비적‘생명력’이라든지불사의영혼따위에의뢰할필요도없거니와, 또한헤겔의 3 부작을참조할것도, 우리자신의실

재를부여하고있는어떤형이상학적상징의배후에우리의무지를숨길것도필요치않다. 기계적현상 - 그것은물리학에서인생의제사실로나아감에따라점점복잡하게되나여전히항상기계적현상이다 - 만으로자연의전모를설명하고다시이지상에존재하는일체의유기적지적사회적생활을설명할수있는것이다.

확실히, 이우주에는아직여러가지가알려지지않아애매하고불가해한채로남아있다. 그리고우리가지식의공백을메워감에따라언제나새로운공백이다시금입을벌린다는것도의심할수없는사실이다. 하지만두개의당구의공이부딪칠때라든지, 돌멩이가구를때일어나는단순한물리적사실과, 또한우리의주변에나타나는화학적사실에는눈을돌릴때, 우리가이들의현상을설명못할영역은하나도없다. 자연의전생활을해명하는데에이러한기계적사실에만주목하면그것으로족한것이다. 이들의사실이우리를기만한일은없으며, 기계적제사실만가지고는불충분한그런영역이있을것으로생각되지도않는다. 여태껏그런영역의존재를추측케하는것은아무것도없었다.

동시에국가는그대학에서타고난사악한성질이란신앙을지지해왔고, 지금도역시지지하고있다. 사회위에군림하는권력의필요성과‘도덕법’[그것은교묘한바꿔치기로성문법과동일시되게끔만들어진다.]의침범에대하여과하여지는형벌에의하여사회속에도덕적요소를고취하기위하여작용하여야할권력의필요성을논증하는것, 그리고이권력이필요불가결하다는것을사람들로하여금믿게끔하는것, 그것은국가의사할에관한중대문제인것이다. 왜냐하면만약에사람들이강권의힘으로도덕적원리를부식할필요성을의심하기시작한다면그들은당장지배자들의고매한사명에대한신앙을버리고말겠기때문이다.

이와같이우리의전교육 - 종교적, 역사적, 법률적, 사회적인전교육은인간이만약에그들이제멋대로방치될것같으면야수로타락하고만다고하는사상으로침투되어있다. 강권이없어지면사람들은서로물어뜯을것이다. ‘군중’에게서기대되는것로서는단한가지야수성과만인에대한각인의싸움이있을뿐이다. 이들의군중은만약그들위에선정된사람들 - 승려, 입법자, 재판관및그들의조수인경관과사형집행인이없었던들반드시멸망하고말았을것이다. 만인에대한만인의전반적전투를못하게제지하는것은다름아닌사람들이다. 그리고마찬가지로그들이야말로사람들을교화하여법률을준중케하고, 규율을확습케하고, 사람들의‘고집센마음속에’고상한관념이발달하여언젠가는형태刑罰와감옥과교수대가금일보다그필요성을감減하게되는날까지사람들을엄격히지도한다는것이다.

우리는 1848 년에추방된어떤왕이‘가련한나의신민들이여! 짐이없으면너희들은멸망하리라’고말한것을웃음거리로삼고있다. 우리는또자기네영국인은이스라엘의잃어버린일족의자손이고, 그런까닭으로‘열등인종’위에군림하여선정을베풀어줄의무가있다고믿고있던영국의한상인을웃음거리로삼고있다.

헌데과연우리는이와같은과대망상적자부심을, 어느국민이건대다수의잘난체하는치들속에서발견하는일이없을것인지.

이와반대로인간사회와제도의발달에관한과학적연구는이상과는전혀다른결론으로우리를이끌어간다. 그것은다음과같은것을보여주고있다. 즉상호부조와방위및평화를일반적으로확보할목적으로인류가창조한습관이나풍속은대개이름도없는군중에의하여산출되었다는것이곧그결론이다. 그리고이습관이야말로금일생존하고있는동물들과마찬가지로인간에대해서도또한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를가능케한바의것이다. 소위인류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들은사회속에관습법에의하여만들어져온것이외에아무것도역사에첨가하지않았음을과학은우리에게명시하고있다. 그들중의최량의지도자, 영웅, 입법자라일컬어지는사람들조차이들의관습법적제도에다형태를부여하고그것을인가했음에불과하다. 그러나이들의자칭비호자庇護者들의태반은그들의개인적권력의형성을방해하는그런관습법적제도를타파하거나아니면자기의개인적이익또는자기의계급의이익에합치하게끔그것을개악하려고어느시대에도나 노력했던것이다.

7. 사회에있어서의법의역할

이러한오류에빠진것은스펜서만이아니었다. 홉스에충실한 19 세기의전철 학은원시인을금수의무리와같은것으로보고, 그들은소가족으로분립하여살며 상호간에식물과여자를구하여싸우고있어자비로운권력이나타나야비로소그들사이에평화가도입되는것으로보기로고집해왔다. 헉슬리와같은박물학자마저이러한홉스의터무니없는견해를반복하여 [1885 년에] 다음과같이언명하고 있다. 즉소수의우수한개인들에의하여‘최초의사회가만들어지기’까지는인간은 당초‘만인에대한각인의’싸움을하며살고있었다고 [그의논문「생존경쟁-자연 의법칙」 참조]. 이처럼헉슬리와같이학식있는다윈주의자마저사회가인간의손 으로창조된것이아니라동물계에인간이등장하기훨씬이전에벌써존재하고있었다는것을생각조차못했던것이다. 선입견의뿌리깊음은이처럼강한것이였다.

이와같은선입견의역사를더듬어간다면그근원이종교속에있다는것은쉽게 발견될것이다. 요술사妖術者, 기우사祈雨師, 샤만교의주사呪師, 내려와서는 아시리아와이집트의승려, 그후는그리스도교의목사등의비밀결사는항상일반 인으로하여금이렇게밀게끔하려고노력해왔다. 즉‘세계는죄속에매몰되어’있어 주사나요술사나성자나목사들에의한인자한개입으로말미암아비로소악의힘이 인간을사로잡는것을막을수있고, 그들만이인간이범한죄를벌하기위하여온갖 불행을인간의머리위에퍼붓는일이없도록마신魔神을달랠수있다고.

원시그리스도교는확실히승직자僧職者에관한이러한선입견을약화하려고 했다. 현대그리스도교회는‘영원의불’에대한복음서자체의말씀에의거함으로써 도리어그것을강화하고말았다. 세상의죄를속하기위하여가사자可死者로서이 세상에강림했다는신의아들예수라는관념자체도역시이러한견해를확인하는것 으로되였다. 그리고이것이그후‘성스러운종교재판소’에대하여그희생자들에게 극히잔인한고문을가하는것을허락하고천천히회개할시간의여유를줌으로써저 세상에서의영겁의고통을면하게한다는구실아래희생자들을화형에서처하여서서 히죽여가게하는것을허용한것이다. 더욱이가톨릭교회만이이런방식으로행동 한것은아니었다. 같은원리에충실한모든그리스도교회는‘죄’투성이로된인간들 을교정하기위하여서로앞을다투어새로운고문과공포를발명했다. 지금도천사 람중의구백구십구명까지가한발旱魃, 지진, 역병疫病따위의자연재해는죄 많은인류를정도正道로바로잡기위하여모종의신이하늘에서내리신업보라고굳게 믿고있는것이다.

4. 콩트의실증철학

과학이이상과같은결론에도달하기시작했을때, 이들의모든성과를포섭하는 종합철학을구성하려는기도가시험되지않을수없다는것은명백하다. 철학자들은우리들의아버지나할아버지를대접하는데사용해온공상의산물, 즉‘실체’니 ‘우주의이념’이니‘생의목표’니하는따위의상징적표현에허된시간을낭비할것없이, 또한의인관擬人觀 - 즉자연과물리적제력諸力에다인간적자질이나의도를 부여하는따위의작품으로귀중하기짝이없는시간을허송할것없이, 우리의전지 식의종합적, 통일적인또한이성적인총괄을제시하는그런철학을구성하려고시 도함은참으로당연한일이였다. 이철학은단순한것에서복합적인것으로점차상 승함으로써우주적생의근본원리를해명하고자자연전체를이해하는열쇠를제공하 려고했다. 이러한방법에의하여이철학은사물상호간의새로운관련을 - 즉새로운자연법칙의발견을가능케하는강력한연구수단을우리에게제공한다. 동시에 또한, 설사그것이아무리시대대의통설과다르다할지라도우리의결론의정당성을 신뢰하도록고무할것이다.

이러한종류의많은기도가 19 세기에실제로시도되였다. 그중에서도오귀스트콩트와허버트스펜서의기도는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

확실히종합철학의필요성은이미 18 세기에백과전서파에의하여, 또금일까지여전히기념비적노작勞作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저찬연히빛나는『철학사전』에있어서의볼테르에의하여, 그리고튀르고에의하여, 내려와서는생시몽에 의하여일층명료하게저각되어왔다. 그러나 19 세기전반에이르러오귀스트콩트는같은모양의저술을자연과학의최근의진보에적응하는엄격히과학적인형태 로계획하고있었다.

주지하듯이수학과정밀과학에관해서는콩트가그과제를훌륭히성취했다하겠 다. 또한그가실증과학의영역안에생명의과학 [생물학] 과인간사회의과학 [사회학] 을도입한것이완전히훌륭함은일반의승인을얻고있는바라하겠 다. 그리고콩트의실증철학이 19 세기후반의여러사상가와학자들에게거대한영향을 끼쳤음도주지하는바다.

그렇지만이위대한철학자의찬미자들은이렇게묻는다. - 도대체무슨까닭으 로콩트는그『실증정치학』에서근대의제제도의연구, 특히윤리, 즉도덕관념의 연구를시도함에있어서저토록유약한태도밖에취하지못했을까.

어찌하여콩트와같이광대하고또실증적인지성이, 만년에보는바와같이하나 의종교와어떤종류의예배의창시자가되고말았을까.

그의제자중의혹자는공트의만년의단계와이전의노작과를조화시키려고이철학자가『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이란두저작에있어서동일한방법에의거하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주장은옳지않다. 때문에공트철학의두사람의정통적제자리토레와존스튜어드밀은다같이실증정치학을공트철학의일부라고조차보지않으려고한다. 그들은이저작을지성이쇠퇴한결과라고보고있다.

그러나공트의두저작 - 『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 사이에존재하는모순은극히특징적인것으로그것은오늘의가장중요한문제들중의몇가지에빛을던져주고있다.

공트가그의『실증철학강의』를완성했을때가장중요한사항, 즉인간의도덕적감정의기원및이감정이인간과인간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문제가가직자기의철학속에논해져있지않다는생각이났을것임에틀림이없다. 이감정의기원을연구하고또그것을공트가생의전체를설명하는데쓰던것과같은원인에의하여설명하는것이분명히필요한것이였다. 어째서인간은그어떤초자연적인힘의간섭없이이감정에복종하고혹은적어도그것을고려해야할필요를느끼게되는가를그는설명하지않으면아니되였다.

공트가여기에바른길을걸고있었다는것은극히주목할만하다. 후년에영국의위대한박물학자다윈이『인류의기원』에서인간의도덕적감정의발생을설명코자했을때, 공트가걸은이길을이어받았던것이다. 사실공트는『실증정치학』에서탄복할만한여러절절을쓰고있는바, 이대목은동물계에있어서의사회성과상호부조및이러한사실들의윤리적인의의를그가결코간과하지않았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이들의사실에서그럴법한실증주의적결론을이끌어내기에는그것이저술된당시아직생물학의지식이충분치못했고공트자신도거기에필요한대담성을상실하고있었다. 그래서그는신을, 다시말하면인간이도덕적이기위하여예배하고기도드리지않으면아니되있던기성종교의신을거부하고그대신에대문자로쓴인류로바꿔놓았다. 이새로운우상앞에무릎꿇고절하기를, 그리고또우리속에있는도덕적감정을발달시키기위하여그것앞에기도드리기를, 그는우리에게요구한것이다. 일단이렇게되어인간이자기밖에, 또는자기위에자리하는어떤것을우러러절해야한다고승인됨으로써인간적동물의의무의길을밝도록밖으로부터시켜지고보면, 이에따라나머지것은저절로따라나오게되는것이다. 그의종교적의식도동방에서발생한옛종교들을본으로해서구성된것이다.

인간의도덕적감정이그사회성이나사회자체와똑같이인간이전의기원을갖고있는현상이라는것을, 그리고그것이자연계의관찰과인간의사회생활의체험의축적에의하여인간속에보장된동물적사회성의일층진화하고발달한것임을공트가인식하지못한결과그러한결론에도달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공트는인간의도덕적감정이그육체적조직과같은정도로인간의본성의예존하고있다는것을알지못하고, 그리고이양자가다대단히긴세월의, 과거의수만년간계속된진화의과정에서생긴유전이라는것을알지못했던것이다. 공트는동물

그리고그는각개개체가지닌사회적본능이자기보존의본능보다훨씬강력하고항상적일뿐더러훨씬활발하다고하는생각을전개하기조차했다. 이러한견해는몇사람의‘다윈주의자들’이말하고있는것과는전혀정반대다.

『인류의기원』에서다윈이이문제를다룬여러장은일반적으로인간사회의성질과발달에관한극히시사示唆적인관념을만들어낼기초로될수있었을것이다[이를테면괴테는근소한사실에기초하여이것을벌써예견하고있다]. 그런데이여러장은주의를끌지않고간과되어왔다. 그러다가겨우 1879 년에이르러서야러시아의동물학자케스레르가행한강연에서생존경쟁과상호부조와의사이에자연속에존재하는관계에대한명백한이해를발견한다.

‘중의진보적진화를위해서는’- 그는약간의예를들면서말한다 - ‘상호부조의법칙은상호투쟁의법칙보다훨씬큰의의를갖고있다’고.

그로부터 1 년지나라산은「생존경쟁과투쟁을위한결합」이라는제목의강연을했다. 때를같이해서뉘히네르는『사랑』이란저작을간행했는데거기서그는최초의도덕적관념의발달에대하여동물간의동정심의중요성을지적했다. 다만그럴적에그는, 오로지친자간의사랑과보살핌의정에만주목한결과자기의탐구의범위를공연스레좁히게되고말았다.

나는 1890 년에출저『상호부조론』에서케스레르의이념을논증, 발전시켜정확한자연관찰과인간의제도사制度史에관한최근의연구에의거하면서이이념을인간에까지확대했는데그것은손쉬운과제였다. 상호부조는실제로동물의개개의종이그들에적대적인자연력에대하여, 또한다른적대적인종에대하여자기의생존경쟁을수행함에있어서가장강력한도구였을뿐더러동시에진보적진화의주요한수단이기도했던것이다. 상호부조는가장약한동물에대해서조차오래사는기회를[따라서또한경험의축적을] 주고그들에게자손과지적발달을보증한다. 그결과상호부조를보다많이실행하는동물의종이다른종보다도살아남을뿐더러그것들이육체적구조와지적발달의우월성의덕택으로 - 각기의강綱[곤충류, 조류, 포유류] 중에서 - 제 1 등의지위를차지하는소이연所以然이다.

스펜서는자연의이근본적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 각기의조이내부에있어서의생존경쟁, 한조각의식물食物을둘러싼‘이빨과발톱을갖고서하는’사정없는싸움을, 스펜서는아무런증명도요하지않는원리로서, 공리公理로서승인했다. 영국의시인테니슨이‘검사劍士의피로더럽혀진’자연이라묘사한것이동물세계에관한스펜서의관념이었다. 겨우 1890 년이되고서야그는『19 세기』지상誌上에발표한문에서어느정도까지동물의세계에서의상호부조[오히려동정의감정]의중요성을인정하기시작하고이방면에서의사실의수집과관찰에착수했다. 그러나스펜서는마침내죽을때까지원시인을‘이빨과발톱에의한’이웃사람의수중에서먹이의최후의한조각까지탈취함으로써생존을유지하는야수와같은존재로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이그릇된전제를, 결론을도출하는기초로서승인한스펜서가, 일련의오류와미망에빠짐이없이자기의종합철학을구성할수없었음은명백한일이라하겠다.

이외의영역에서채용한선입견에의하지않고대상을그자체로서고찰하지를않았던것이다. 그뿐만아니다. 스펜서는사회철학에착수하는대목에이르자마자, 물리학적제사실의연구에서는전혀이용하지않았던새로운극히미미적방법 - 즉 유사類似 [유추類推] 의방법을취하기시작한것이다. 이방법에의하여그는술한 선입관념을정당화할수있었다. 이리하여우리는금일에이르기까지자연과학과 사회학이란두부문에걸쳐동일의방법에의하여구성된참다운종합철학은아직보지 못하고있는형편이다.

스펜서는미개발인의원시적제도를연구하는데는가장부적당한인물이었다는것도부연할필요가있다. 이점에서그는태반의영국인에공통한결함 - 즉타국민의습속또는관습에대한몰이해를일층확대하고있다. 제임스롤즈와같이극히충명하고날카로운영국인도일찍이나에게이렇게말한바있다. “우리는로마법적인간데아일랜드인은관습법의인간이다. 그런까닭으로해서우리의상호이해는가로막혀있다.”고. 그런데이질의문명을이해하지못한다고하는이특성은일단영국인이‘열등인종’이라고부르는사람을상대로하는경우에이르면, 다시더욱명백한것으로된다. 스펜서의경우가바로그렇다. 자기의부족에대하여품는미개인의존崇의열念이나아이슬란드의신화에나오는영웅들이의무로본‘혈수血讐’를그는전혀이해하지못했으며, 또중세제도시에있어서의투쟁으로장식된파란만장의진보적인생활을또한그는이해할능력이없었다. 이들의시대에존재했던권리의관념은스펜서에게전혀불가해한것이었다. 그러한것속에그는야만, 미개, 잔인성을발견했을뿐이다. 이점에서그는오귀스트콩트에비해서도완전히후퇴하고있었다. 다른한편으로콩트는제제도의진보적발전중에서중세가수행한중요한역할 - 그것은당시프랑스에서너무도등한시된관념이었다 - 을이해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 더욱이이점은가장중대한오류였지만 - 스펜서는혁술리와기타의여러사람들과같은식으로‘생존경쟁’의의미를전혀부당한방식으로이해하고있었다. 즉그는이종의동물간의싸움 [늑대가토끼를잡아먹고, 많은조류가곤충을먹으며살고있다는등의] 뿐만아니라각각의종의내부에서동일종에속하는개체간에있어서의생존수단을돌려싼격렬한싸움으로서생존경쟁을이해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스펜서나기타의다윈주의자들이상상한것처럼그렇게격렬한투쟁은물론있지않다.

이와같은부당한생존경쟁관에다윈자신이얼마만큼책임이있는가를여기서논하지않기로하겠다. 그러나다음과같은점은확실하다. 즉 『종의기원』 이나오고서 12 년이지나다윈이 『인류의기원』 을썼을때그는생존경쟁이란개념을각개의종의내부에있어서의격렬한투쟁이라기보다훨씬광범위의, 좀더비유적인의미로이해하고있었다는것이다. 예컨대그는, 이제 2 의저작에서이렇게쓰고있다. “상호적동정과사회성의감정이가장잘발달하고있는동물의종은자기의생존을보존하고또많은자손을남기고보다많은기회를가진다.”고.

계에사회성이있고상호간에동정의감정이있다는생각은했으나당시대권위자로인정되고있던동물학자큐비에의영향때문에뵤폰과라마크가이미밝히고있던것 - 즉종種의변이성變異性을받아들이지못했다. 그는동물에서인간으로부단히계속되는진화과정을승인하지않았다. 그결과그는다윈이이해한바를, 즉인간의도덕적감정은최초의유인적類人的동물이이지상에출현하기보다훨씬이전에동물사회속에발달한상호부조본능의일종의진화에불과하다는것을인정하지못했던것이다.

결국공트는우리가오늘날잘알고있는다음과같은것을인정하지못했던것이다. 즉개개인은아무리비도덕적인행위를한다할지라도인류가멸망기에들어가지않은이상인간성속에는도덕적원리가본능으로서반드시포함되어있으리라는것, 이인간성에서나오는도덕적감정에위배되는행위는불가피하게타인속에반동을일으키리라하는것, 그것은흡사히물리적세계에있어서역학적움직임이반동을일으키는것과같다는것등이다. 개개인의반사회적행위에대한이와같은반응의능력속에인간사회에있어서의도덕적감정과사회성의습속을필연적으로버티어주는자연적인힘이뿌리박고있어, 그것은동물의사회에있어서그것들을일체의박으로부터의개입없이지탱하고있는것과똑같은것이고, 더욱이이힘은여하한종교나여하한입법자의명령보다도무한히강력한것이라는것을공트는이해하지못했던것이다. 그런데공트가이것을승인하지못한결과그는새로운신성神性인인류와새로운의식및새로운예배를발명하고, 이신종교가인간으로하여금도덕생활의길을건도록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이와같이하여공트는생시몽과같이, 또한푸리에와도같이, 자기자신의그리스도교적교육에공세貢稅를바쳤다. 평등한힘을가진악의원리와선의원리와의투쟁을인정하지않고서는, 또한인간이악의대표자에대한싸움에서자기를강화하기위하여선의대표자에의거한다는것을인정하지않고서는, 그리스도교는존재할수가없는것이다. 이러한그리스도교적이념으로침투된공트는도덕과이도덕을인간의감정및관념속에강화해야할수단에관한문제에마주치자마자단박에이그리스도교적이념으로도피하고말았다. 인류교는그에대하여인간을악의파멸적영향으로부터구출할수단으로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였다.

5. 1856 - 1862 년사이의각성

공트는인간의제제도의연구 - 특히도덕관념의연구 -에성공하지못했지만, 그러나그가『실증철학』과『실증정치학』을쓴것은앞서말한바와같이갑자기 과학의지평선이활짝열리고교양있는인사의세계관의수준이높아진저 1856? 1862 년보다훨씬전이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이 5,6 년의짧은기간에과학의각종분야에나타난노작은우리의자연관과생명관, 특히인간의사회생활에관한우리의견해에완벽한변혁을초래했는바, 이와같은변혁에필적할것으로는과거 20 세기간의전과학사의어디에서도발견할수 없을만한것이었다.

백과전서가가단지에견만했던것, 오히려예감한데불과했던것, 또한 19 세기의최고의지성들이그때까지간신히해명한것이, 이제문득일반적지식의성과에편입되게끔되었다. 그리고그것은자연과학의귀납? 연역적방법의덕택으로완벽하고도전면적으로성취되었기때문에그이외의모든연구방법은벌써불완전하고허위적이고고무효과적인것으로생각하여지도록되었을정도다.

여기서잠깐머물러서사이시기에과학이달성한성과를조망해보자. 아마도그렇게함으로써다음에허버트스펜서에의하여착수된종합철학구성의기도를좀더잘평가할수있겠기때문이다.

이 6 년간에글로브, 크라우쥬스, 헤름호르츠, 쥘르등등일군一群의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중에는화학적스펙트르분석의발견에의하여우리들로부터멀리떨어진천체인별의화학적구성을알수있도록한키르히호프도포함되겠다] 19 세기전반기에는물리학의영역에있어서의대담하고광범한일반화작업을학자들에게허락하지않았던한계를드디어돌파했다. 그들은수년간에모든무기적無機的세계에있어서의자연의통일을증명하고확립했다. 이때이후무수신비적인‘유체流體’에대하여 - 일찍이물리학자들이각종의힘을해명하기위하여호소해왔던열素熱, 자기나, 전기기타의유체에대하여말한다는것은전혀불가능한것으로되었다. 이제야광열, 전기, 자기등을포함한모든물리학적현상은바다의파랑이나베르또는음우뽁又의진동이생기게하는것과똑같은분자의역학적진동의결과라는것이명료하게되었다.

뿐더러, 우리는낙하하는돌이나진행중의열차의운동의에너지를측정하는것과마찬가지로저불가시적인운동을, 분자의진동을측정하기를 - 다시말하면그에너지를계산하기를 - 배워서알게되었다. 물리학은이리하여역학의한부분으로되었다.

6. 스펜서의종합철학

인류학 [즉인간의생리학적발달과종교및제제도의역사적연구] 이다른자연과학의연구와같은방법으로연구되도록된이래인류사의주요한근본특징을이해하는것이드디어가능케되었다. 동시에또한, 일찍이지질학의연구를방해해온성서의전승과같이, 역사연구를방해하여온형이상학을최종적으로일소하는것도가능케되었다.

따라서허버트스펜서가 19 세기후반에자기의‘종합철학’의구성에착수했을때, 공트의『실증정치학』에보였던그러한오류에는벌써빠질리없을터이라생각되었을것이다. 하지만스펜서의‘종합철학’은일보전진을의미하는것이긴했으나 [이철학속에는종교나종교의식을용납할여지는없었다] 그사회학적부분에는공트의노작에못지않은큰오류가포함되어있었다.

문제는다음점에있었다. 즉스펜서가사회심리학에도달했을때, 그는이분야를연구할적에자기의엄밀한과학적방법론을충실히키치지못했고, 이방법이도출해야할귀결을승인하려하지도않았다. 예컨대스펜서는토지가사유재산이어서는안된다는것을승인했다. 지주는자기마음대로소작료를인상한권리를가지기위하여토지에서실제로일하는소작인들이집약集約경작으로토지에서수확할수있는모든것을획득하는것을방해하기때문이다. 혹은또, 지주는토지를개간하지않고놀려두면서도자기토지의주위에서다른농민들이악착같이일한결과자기의지가가오르기를가만히앉아서기다릴수있으니말이다. 이와같은제도는 - 스펜서는당장승인한다 - 사회에대하여해롭고위험하기짝이없다고. 토지에관하여이러한폐단을인정하는한편, 이것과같은결론을기타의축적된부에대하여 - 공장시설은말할것도없고광산이나도크에대해서도인정하려하지않았다.

다음으로또한, 그는사회생활에대한국가의간섭을엄격히비판하여그의저작의하나에다혁명적강령을표시하는‘개인대국가’라는표제를붙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그는차차국가의방위적활동을보전하라는구실을내세워결국존현형태그대로국가를완전히복권하고다만근소한제한을그것에다붙여놓았을뿐이다.

이런종류의모순을초래한이유의절반은확실히다음과같은점이라할수있다. 즉스펜서가자기의철학의사회학적부분을구성한것은그가자연과학의부분을집필하기보다훨씬이전의일이고, 당시그는영국의철학적급진주의운동의영향아래있었다는사실이다. 사실그는 1851 년에『사회정학社會靜學』을썼는데그당시인간의제제도에관한인류학적연구는아직맹아상태에있었을뿐이다. 그러나여하튼결국스펜서도공트와마찬가지로인간의제제도를연구함에있어서과학

는바로이용기가결여되고있었던것이다 - 독일인의잠꼬대같은형이상학마저확실히일반화예의경향을육성하고있었다.

그러나당시의일반화는혹은변증법적방법에의하여, 혹은반의식적인귀납법에의하여행하여진것으로그결과는절망적으로막연한것이었다. 그중의전자, 즉 변증법적방법이란본질적으로극히단순하고소박한단정斷定에바탕하고있어그것은꼭고대그리스인들이유성遊星은우주공간을원형으로운행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논증함에있어서원은가장완전한곡선이기때문이라는따위의근거에기초하여있었던것과동곡이음同曲異音에불과하다. 이와같은단정의소박한 정도와, 그리고또증명이전연없음을엄폐하고있었던것은막연한의론과애매모호한용어및불명료하고그로테스크할정도로무겁고따분한문제였을따름이다. 다른한편으로반의식적인귀납법에의하여얻어진일반화에관하여말할것같으면, 그것은언제나관찰사례의극도의부족에기인하는것이었다. - 그좋은예를제공하고있는것은최근한바탕파란을일으킨, 극히한정된사실에바탕을두고행하여진와이즈만의거창한일반화일것이다. 이경우귀납은반의식적인것에불과했는데그의심스러운결론의가치는경솔하게도과장되어, 그것이마치다툼여지도없는법칙인것처럼받아들여지는결과가되었다. 허나그것은사실인즉단순한가정 - 가설, 일반화의맹아에불과한것으로서그결과를실지로관찰된사실과비교함으로써기초적인검증에불여필요가있었던것이다.

끝으로이들의일반화는 - 헤겔의‘정? 반? 합’이그예이거니와 - 너무도추상적이고애매모호한형식으로표현되고있었다. 그때문에사상가가실천적귀결을끄집어내려고할때어떠한귀결이라도이끌어내기를허용한것이다. 이래서이정식에서 [실제로하여진바와같이] 바쿠닌의혁명정신과그도레스렌봉기도도출될수있었고마르크스의혁명적자코뱅주의도, 그리고또많은사람들을‘현실과의화해’로, 다시말하면전제專制와의화해로이끌어간헤겔의이른바‘존재하는것의용인’도, 어느것이나이끌어낼수있었던것이다. 오늘날도우리의면전에서사회주의자들이빠지고있는여러가지경제학적오류를상기한다면충분할것이다. 이들의사회주의자는변증법적방법과경제학적형이상학에집념하는나머지모든국민의경제생활에대한현실적제사실의연구를게을리하고있는것이다.

나아가서는또, 동일한이수년간에, 우리들로부터멀리떨어져있는천체 - 은하계속에무수히발견되는태양조차 - 가지구상의모든물체가구성되어있는것과 똑같은단순한물체또는요소로구성되어있다는것, 또한지구상에발견되는것과절대로같은분자의진동이같은물리적화학적결과를수반하여거기서도행하여지고있다는것이증명되었다. 만유인력의법칙에따라공간을운동하고있는저천체운동자체도아마대우주의별들사이의공간을몇 10 억, 몇조킬로라는거리에걸쳐전파하는진동의결과에불과할것이다.

화학적현상을설명할적에도이것과동일한결과전기의진동만으로족할것이다. 화학은분자역학의일장一章에불과하다. 그리고온갖형태로표현되는동식물의생명마저도모든생물의생명조직이성립하고있는복잡한, 그런까닭으로또한, 해체하기쉬운화학적물체의광범한계열에있어서의분자 [또는분자속의원자] 의교환에불과하다. 생명이란요컨대극히복잡한분자들의일련의화학적분해와재결합 - 즉화학적, 무기적발효의영향아래생기는발효작용의계열에불과한것이다.

다시같은이연간年間에, 신경계통의세포의생활과정과자극을하나에서타他로전달하는능력이식물및동물의신경생활에있어서의자극전달의기계적설명을제공하는것임이이해되고, 계속해서 1890?1900 년사이에승인되고증명되도록되었다. 이들의연구의결과우리는이제순전히생리학적관찰의영역에머물러그테두리안에서어떻게해서심상心像이나일반적으로인상印象이우리의뇌수腦髓에심어지며, 어떻게해서그것들이서로작용하고, 그리고어떻게해서그것들에서개념이나관념이생기게되는가를이해할수있는것이다.

우리는이리하여지금은‘연상聯想’이라는것을, 다시말하면어떻게해서새로운인상이묵은인상을재생시켜가지를이해할수있다. 그결과우리는사유思惟의메커니즘자체를또한파악하고있는것이다.

물론우리는이방면에서‘모든것’을다알기까지에는아직도저히이르지못했다. 우리는겨우최초의일보를내디뎠을뿐이고아직무한히많은것을밝혀나가야하겠다. 과학은오랫동안자기를질식시키고있던형이상학으로부터간신히해방되었을뿐이고, 생리학적심리학이란이광대한영역의연구에막착수했을뿐이다. 그러나금후의연구를위한공고한기초는벌써뒹아진셈이다. 독일의철학자칸트가확립하려고노력한, 두개의별개로독립한영역으로갈라놓는케케묵은구분 - 즉그의‘시간, 공간내’에서연구해야할현상계 [물리적영역] 와‘시간내’에서만연구되는또하나의영역 [정신현상의영역] 이란구분은이제소멸하지않으면안된다. 그래서일찍이러시아의유물론자세초노프교수가제기한다음과같은문제 - ‘심리학은어디에귀속하며어떻게배워야할것인가’-에대하여해답은이미주어지고있다. 즉‘심리학’은생리학에속하고생리학적방법으로‘배워야한다’로하는것이그것이다. 사실최근의생리학자들의연구는사유의메커니즘과인상의발생과기억에로인상이고정해가는과정및그전달등에관하여지금까지형이상학이우리에게제공해온번쇄煩? 한고찰보다훨씬많은광명을던져주고있다.

이리하여형이상학은일찍이는의심할바없이자기의영토에속하는것으로보이던아성에있어서조차패퇴한것이다. 심리학의영토는자연과학과유물론철학에의하여점령되고말았다. 이분야에속하는사유의메커니즘에관한우리의지식을일찍이보지못한스피드로전진시킨것은이들의자연과학과유물론철학이었다.

그러나이 5,6 년간에나타난노작중에서여타의모든명성을압도한발군의저작이있으니그것은찰스다윈의『종의기원』이다.

이미전세기 [18 세기] 에는뵈폰이, 18 세기에서 19 세기에이르는경계선에서는라마르크가, 이지구상에생존하는동물의다양한종은영구불변의형태가아니라는것, 즉종은가변적이어서환경의영향아래부단히변화한다는것을감히주장하려고했다. 일정한군群에속하는상이한종사이에발견되는동과적同科的 유사성은이들의종이공통한선조에서유래했다는것을증명하는것이아니겠는가라고그들은말했다. 이리하여우리가초원이나소지沼地에서보는각종의모간毛? 은동일종의선조들의자손이아닐수없다. - 다시말하면그것들이서로다른생존의제조건속에서마주치게된변화와적응의결과로서변종해온자손인것이다. 또한낭狼, 견犬, 산견山犬, 호狐와같은금일의종은기왕에는존재하지않았다. 그것들대신에몇세기만에금일의냥, 견, 호, 산견을발생시킨일종의동물이있었던것이다. 말, 당나귀, 노새등에관해서는그것들에공통한선조가있었다는것은확실히알려져있고그뼈의화석이고대의지질층에서발견되고있다.

그러나 18 세기에이와같은이단적견해를토로한다는것은위험천만이었다. 이보다훨씬경미한이설異說을말한탓으로뵈폰은교회재판소의박해를각오하지않으면아니되었고, 결국그는그의『박물지』에서자기의설을철회하도록강제되었던것이다. 이시대에교회는아직도강력했으니승려들에게불유래하기짜이없는이단적언설을주장하려고결심한박물학자는감옥이나고문이나정신병원을각오하지않으면아니되었다. 그렇기때문에당시의이단자들은극히신중히조심조심말했던것이다.

그렇지만이제 1848 년의혁명후에는다윈과월레스가동일한이단설을과감히주장하게되었다. 그리고다윈은용감히부연하여이렇게주장했다. 즉인간도또한완만한생리학적진화의길을따라발달한것이고인간은유인원類人猿에서유래했으며인간의‘불사의영혼’과‘도덕적정신’은침팬지나개미의지혜및사회적습관과동일한방식으로발달해왔을뿐이다, 라고.

당시교회의장로들의다윈과그의용감하고유식하고충명한학도학슬리의머리위에얼마나무서운벼락을떨어뜨렸던가는주지하는바다. 학슬리는다윈주의의결론에서모든종교의승려들을공포의도가니속으로빠뜨린것을끄집어내서이를강조했던것이다.

투쟁은격렬했다. 하나다윈주의가드디어승리를거두었다. 이때로부터우리들의안전에전혀새로운과학, 생물학이 - 다시말하면생명의모든현상에관한과학이성장했다.

다윈의노작은다른한편으로물리적물질의활동, 유기체의생활, 사회생활등 모든종류의현상을이해하기위한새로운연구방법을또한제공하게되었다. ‘계속적발달’ 즉 ‘진화’란이념과제조건변화에따라개체와사회가새로운조건에점차적응을해나간다는이념 - 이사상은새로운종의기원을설명할뿐만아니라그이상으로보다광대한분야에도적용되었다. 이사상이자연일반의, 나아가인간과그능력이나사회제제도의연구에도입된때, 그것은새로운지평선을열고인간인知의전부문에걸쳐가장어려운사실로보이던것을해명할가능성을제공했다. 그처럼많은성과를내포한이원리에의거함으로써비단유기체의역사뿐만아니라인간의제제도의역사까지도재구성할수있도록되었다.

스펜서를매개해서생물학은우리에게다음과같은것을제시했다. 즉지구상에생식生息하는모든종류의동물이당초지상에존재했던약간의훨씬단순한유기체에서출발하면서어떻게해서발달해왔는가하는것이다. 그리고핵심은인간을포함한각종에걸쳐가능한계보의약도를그렸다. 그것만하더라도벌써훌륭한성과였다. 그러나다시그위에인간의습속, 관습, 신앙, 제도에관한역사에약간의최초의과학적기초를담아놓을수있게되었다 - 19 세기의오귀스트콩트에게전혀결여되었던것은바로이지식이었던것이다. 금일우리가이역사를쓸적에벌써헤겔의형이상학적정식定式에호소할필요도없고 ‘생득관념生得觀念’ 에도, 칸트의 ‘실체’ 에도, 위로부터주어지는영감에도의거할필요가없다. 우리는일반적으로이러한정식에의외함이없이과제를수행할수있는데다름아닌이정식이야말로탐구정신을질식시키고그배후에흡사히구름이덮고있듯이매양한결같은무지와구태의연한미신을감추어두고있었던것이다.

한편으로박물학자들의저작과다른편으로원시사회의제제도와그것에수반하는법률의연구에동일한귀납적방법을적용한헨리메멘및그후계자들의저작덕택으로인류제제도의발달사는최근 50 년간에동물의발달사와마찬가지로확고한기초위에놓일수있도록되었다.

물론 19 세기 30 년대프랑스의오귀스틴티에리의학파와독일의마우러및 ‘게르마니스트들’ 의학파 - 러시아에서의그계승자는코스토타로프와베리야에프등등이었다 - 에의한저작들을잊어서는부당할것이다. 진화론적방법은, 물론 훨씬이전부터백과전서파의시대이래습속과제도, 나아가서는언어의연구에도적용되어왔다. 그렇지만참으로과학적인결과가언어지도록된것은, 수집된역사적사실에대하여박물학자들이식물또는새로운종의기관器官의점차적발달을바라보는것과똑같은방식으로관찰하는태도가학습된이후의일이었다.

물론형이상학적정식도그런대로당시는대체의일반화를하는데유용하기도했다. 그것은잠자는사상을일깨워서자연의통일과그영원한생명에대한보호한암시를줌으로써사상을자극했다. 19 세기의최초의 10 년대에지배했던것과같은반동의시대에백과전서파와그영국및스코틀랜드의선구자들의귀납적일반화는망각되고더욱이신비주의가개가를올리고있는앞에서물질계와 ‘정신계’ 와의통일에대하여감히논술하는데는도덕적용기가요구된때 - 그런데철학자들에게

전출의장 [제 5 장] 에서이미말한바와같이 1856?62 년은자연과학과철학의비상하고조高潮를특징으로하고있다. 그것은또유럽과아메리카에서의급진사상의거의전반적인정치적부흥의시대이기도했다. 이둘두가지운동은노동자대중을각성시켰으니, 그들은자기자신의어깨에프롤레타리아혁명의과업을 짊어지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이해하게되었다. 1862 년의만국박람회는세계산업의위대한축제로보였고노동자의자기해방투쟁의출발점이되었다. 그리고국제노동자협회가일체구식의제정당과의절연絶緣을소리높이선언하고노동자가자기자신의손으로자기의해방을쟁취할결의를표명했을때, 그것은도처에서깊은감명을주었던것이다.

실제로인터내셔널은라틴계제국에급속히퍼져나갔다. 그전투력은얼마안가서위험적인규모로까지도달했다. 다른한편으로각연합조직의대회나전인터내셔널의연차대회는사회혁명이란어떤것이아니면안되는가, 또그것은어떻게해서성취될수있는가에대하여노동자자신들이스스로의할기회를제공했다. 이렇게해서그것은노동대중의창조력을자극하고그들로하여금생산과소비를위한새로운결합형태를탐구케했다.

당시는어디서나머지않아유럽에대혁명이일어나리라고기대되고있었다. 그러나그혁명이취해야할정치적형태에대하여, 그리고또한혁명의제 1 보가어떤것이냐에대하여다소나마명료한관념은아직없었다. 오히려반대로인터내셔널내부에서전혀대립하는사회주의의여러사조가한당에모여서서로충돌하고있었던것이다.

노동자협회의지배적사상은경제적지반에서행해져야할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 - 즉부르주아지가합의하는입법에의하지않고노동자자신이힘으로자본가로부터양보를뺏어내어서마침내그들을완전히향복시킨다는그런방식으로수행하는노동의해방이었다.

그러나자본가의굴레에서노동자를해방하는사업은어떻게해서달성될 것인가. 생산과교환의신조직은어떤형태를취할 것인가. 이문제에관하여 1864?70 년의사회주의자들은의견의일치를보지못했다. 그것은꼭 1848 년의파리에설치된공화국의헌법제정의회에참집한각종사회주의적학파의대표들의경우와같았다.

1848 년의프랑스의선구자들 - 그들의다양한회구는콘시데란에의하여『구세계에직면한사회주의』에서보기 좋게요약되고있다 -과마찬가지로인터내셔널의사회주의자들도하나의깃발아래규합되지못했다. 그들은가지각색의해결책사이를동요하고있었는데그중의어느것도지성을하나로통일할수있을만큼정당하지도명확하지도않았다. 뿐더러진보적지성의소유자인사회주의자자신들에있어서조차자본과국가권력을존경하는관념이아직완전히가시지는못했기때문에통일은더욱어려웠다.

이들의각종경향을훑어보기로하자.

거기에는우선프랑스공산주의자 [불랑키스트들] 의비밀결사의형태로프랑스대혁명의자코뱅주의의직계 - 즉바부프의음모단후계자들및독일의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동맹] 이있었다. 이들양파는어느것이나 1793 년의의심할바없는자코뱅주의의전통속에생명을잇고있다. 주지하다시피그들은 1848 년에는언젠가운이돌아오는날이면음모에의하여 - 또한아마도독재자의조력을얻어 - 국가의정치권력을수중에넣고, 1793 년의자코뱅의결사를모범으로해서 [물론이번은노동자의이익을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독재’를수립하려고꿈꾸고있었다. 이독재야말로 - 라고그들은생각했다 - 입법에의하여공산주의를강제할수있을것이라고.

운갖종류의억제적법률과과세에의하여재산소유의상태는극히곤란하게되어이윽고소유자는재산소유의고통을면하고자이것을숫제국가에인도하는편이도리어행복하게느껴지도록될것이다. 다음으로‘농민군’이파견되어전답의경작을하게될것이다. 공업생산도같은반군대적방식으로조직되어똑같이국가의손으로운전될것이다.

이와같은견해는인터내셔널창립당시도여전히사회주의자간에퍼지고있었다. 그리고그후도프랑스에서는불랑키스트간에, 독일에서는라사르파와사회민주당의자들간에지지고있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로버트오언의학파에속하는영국노동자들은이러한자코뱅적견해에정면으로대립하는견해를지니고있었다. 그들은혁명을달성하기위해서나사회주의사회의건설사업을위해서도또한, 국가권력에의거할것을단연코인정하지않고주로노동조합의활동에의거하려했다. 영국의오언주의자들은공산주의를바라지않았다. 반면프랑스의푸리에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 자유로조직되고상호결합한공동체나집단에그들은큰의의를부여했다. 이들의공동체나집단이야말로토지와공장을공동으로소유하고, 그리하여그것을이용함과동시에그들의생산을공동으로저장할것이다.

그들은생산의필요에따라혹은집단적으로혹은단독으로일할것이다. 공동체와집단에서의노동의보수및공동체상호간의교환은노동권에의하여행하여질것이다. 이노동권은공동체의경지와공장또는작업장에서의활동에소비된노동시간의양을표시한다. 그리고각공동체는개인적으로제조하여교환을위하여공동창고에인도된생산물에대하여노동권으로지불할것이다.

노동권에의한보수報酬라는이사상은전술한바와같이푸르동과상호주의자의사회개혁안에서도채용되고있었다. 그들도또한혁명에의하여탄생되어야할사회에있어서의국가권력의간섭을부인했다. 금일경제적사항에관하여국가의기능을구성하고있는것은무용한것으로되고말것이다. 왜냐하면일체의교환은민중은행과정산소에의하여행하여지고다른한편으로교육, 위생상의조치, 필요한기업활동, 교통수단등은각기독립한공동체의손으로운영될것이니까 - 그들은이렇게말했다.

교환에 있어서 화폐 대신에 노동권을 발행한다고 하는 이 동일한 사상이, 단이경 우일체의 토지, 광산, 철도 및 공장의 국유화란 이념과 결합되어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 사상은 1848년에 페쿠르와 비다르라는 두 사람의 주목할 만한 저작가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양인의 존재는 금일 사회주의자에 의하여 편협하게 무시되고 있다]. 그들은 이 체제를 콜렉티비즘 (집산주의) 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다. 비다르는 뤽산부르 위원회의 비서였다. 그리고 페쿠르는 1848년의 헌법 제정의 회의의 일원이고, 당시 이 문제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을 썼다. 그는 여기서 그 자신의 말을 빌려 말한다면, 사회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정의 회의가 실시로 옮겨놓기만 하면 될 충분한 법률의 형식으로 자기의 체계를 상설히 전개했다는 것이었다.

인터내셔널 창립 당시 페쿠르와 비다르 양인의 이름은 그들의 동시대 인간에서 조차 전혀 잊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양인의 사회조직의 사상 ‘콜렉티비즘’이란 이름으로 마치 새로운 발견물처럼 야단스럽게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인터내셔널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제이념 - 생시모니즘

앞에서 말한 각종 사회주의 학파와 나란히 생시모니즘의 이념도 있었다. 이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것은 1848년이 전이었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인터내셔널의 성원의 사회주의적 견해에 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재능 풍부한 다수의 저작가들과 사상가, 정치가, 역사가, 나아가서는 산업인들이 30년대와 40년에 생시모니즘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여기서는 철학에서의 오귀스트 콩트, 역사가로서는 오귀스탕티에리, 경제학자 중에서는 시스몬디의 이름을 드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무릇 이 시기의 사회 개혁자들은 이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생시모니스트들은 이렇게 말했다 - 인류의 진보는 지금까지는 노예가 농노로, 그리고 농노가 임금노동자로 전화한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야 임금제까지도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전 생산 시설에 대한 사유제까지도 소멸시켜야 할 때가 가까워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변화를 불가능하다고 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부언한다. 왜냐하면 사유제도 권력도 이미 역사의 과정에서 적잖이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의 폐지는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점차 행하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시모니스트들은 말한다 [이들의 조치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이 이미 선례를 보였음을 상기하자]. 이들의 조치는 예컨대, 국가가 상속에 다중세를 과함으로써 현 세대에 서 다른 세대로 넘겨주는 사유재산을 점점 많이 수탈함을 허락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인私人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사유재산의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사유재산은 차차 자취를 감출 것이다. 어찌서 그러냐 하면 부자 자신도 문명의 사멸기에 속하는 특권을 버리는 편이 유리하다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에 의한 자발적 재산 포기

와입법적방책에의한상속폐지는생시모니스트의국가로하여금토지와산업의유일의소유자로, 노동의최고규제자로전화케하고예술, 과학, 산업이란 3 기능의절대적수장, 즉지휘자가되게할것이다.

사회의각성원은이들 3 부문중의하나에서일하고생시모니스트의국가의역군이되는셈이다. 그리고이국가의정부는‘최량最良의인사’- 즉과학, 예술, 생업이란 3 계三界의가장우수한사람들의계층제에의하여구성된다는것이다.

생산물의분배는다음과같은정식에따라행하여질것이다. 즉능력에따라각인에게, 일에따라각능력에게.

이와같은미래의계획외에도생시모니스트학파와이학파에서나온실증철학은 19 세기에일련의주목할만한역사적노작을산출하여권력, 사유재산, 국가의기원을참으로과학적인견지에서검토했다. 이들의노작은금일까지가치를지니고있다.

동시에생시모니스트들은이른바고전학파, 즉아담스미스와리카도의경제학을냉엄하게비판했다. 이경제학파는후년‘맨체스터학파’란이름으로유명하게되고소위‘국가의무간섭’을주창했던것이다.

그렇지만생시모니스트들이산업적개인주의와자유경쟁이란원리에대하여싸우고있는동안에그들은처음에군사국가와그계층적구별에대하여싸웠을때비판했던그동일한오류에빠지고말았던것이다. 즉그들은결국국가의전능을승인하게되고, 자기의질서를 - 콘시데란이이미지적했듯이 - 불평등과권력위에, 또한행정적계층질서위에기초를놓았던것이다. 그들은이와같은정치적계층질서에다제사적祭司의성격마저부여하려고했다.

생시모니스트들은이처럼전사회에의하여생산된재화를각인에게제각기순개인적인부분을귀속시킨다는점에서공산주의자와웃소매를나누었다. 그들의많은경제학상의우수한노작을내었지만, 그러면서도그들은재화의생산이사회적행위 - 전세계적인행위라는관념에아직이르지못했다. 이점이생각났던들생산된재화의총량에서각생산자에게넘겨줘야할부분을정확히결정짓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을필연적으로인정하지아니할수없었을것을.

이점에관하여공산주의자와생시모니스트와의사이엔뿌리깊은대립이있었다. 그러나그대신양편이대개이개인과그권리를무시했다는점에서는완전히일치하고있었다. 공산주의자가개인들에게허용한것은겨우그들이자기네의관리와통치자를선출하는권리에지나지않았다. 생시모니스트들도한가지로이권리를마지못해서승인했다. 하지만이전에는그들은이선거권마저거부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여하튼공산주의자에대해서나생시모니스트에대해서나매일반으로각개인은국가의관리에불과하다. 『이카리아향해기』를쓰고아메리카에서공산주의의콜로니를건설한카베에있어서자코뱅적공산주의와개인의압박은가장완벽하게표현되었던것이다.

사실카베의『이카리아향해기』에는도처에권력, 즉국가를 - 각세대世帶의부역에이르기까지지발견할수있다. ‘조리調理의지침’을각가정에다배부하는것

역사의경과속에서지주, 재판관, 군인, 승려를공통의이익속에통합할목적으로형성된권력, 그리고또한역사속에서다소라도보장된자유생활을만들어내려고하는인간의시도를매양방해해온권력 - 이권력은시저주의, 제국주의내지교회가사회혁명의도구로되지못함과마찬가지로해방의무기로될수는없는것이다.

경제학에서아나키즘이도달한결론은다음과같다. 정작해악은자본가가‘잉여가치’또는순이익을자기네의손에넣는데있다고보다오히려이와같은순이익또는‘잉여가치’가가능케된다는사실그것에있는것이다. ‘잉여가치’가존재하는것은다만몇백만의인간이그노동력과지식을이것의존재를가능케할만큼의저렴한값으로라도팔지않고서는생활을해나갈아무것도가진것이없기때문일 따름이다. 그렇기때문에경제학에서우리가첫째로연구하지않으면안될것은소비에관한장章이고, 또한혁명에있어서해야할최초의의무는의식주가만민에게보장될방식으로소비를재편성하는일이아니면안된다. 1793?94 년에우리의선배들은이것을분명히이해하고있었다.

‘생산’에관해서는무엇보다도먼저전사회의제일의필수품이가급적빨리충족되게끔조직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런까닭에아나키즘은장래을혁명을단지금화대신에‘노동권’을사용하거나또는금일의자본가들자리에서자본주의국가를갖다놓는방식으로생각할수는없는것이다. 아나키즘은혁명속에국가없는자유코뮌주의에로의제일보를찾는다.

아나키즘의이러한결론은과연정당한것일까. 그해답은, 한편으로는아나키즘의기초의과학적비판이, 다른한편으로는실제생활이우리에게명시할것이다. 허나, 아나키즘의의심할여지없이전혀올바른한가지점이있다. 아나키즘이사회제제도의연구를자연과학의한부문으로보고형이상학과는영원히웃것을나누고, 현대과학과금일의유물론철학과구의성에유용한방법을자기의사유방법으로서채용한것, 바로이것이다. 그결과, 가령아나키즘이그결론에있어서어떤오류에빠져있다하더라도그것을깨닫기는아주용이하다. 그러나우리의결론을검증하려고하면, 그것은모든과학이거기에기초를두고있고또한일체의과학적세계관의발달이거기에의거하고있는과학적귀납? 연역적방법을쓰고서야비로소가능케될것이다.

※ 이논문은 1909 년런던프리덤사에서출판되고그후 1916 년미국의마서아스사에서출판되었다. 그런데이양쪽이서로대차大差가없다. 그외에볼드윈이편찬한『혁명논문집』에도이논문이합본되어있으나대단히생략되어있다. 이역서에는이들 3 자가참조되었다.

16. 결론

이이상아나키즘의제원리와아나키즘의행동강령의전개에들어가지않더라도현금의인간지식속에서아나키즘이차지하는지위를제시하는데는앞에서논술한바로서충분하겠다.

아나키즘이란자연과학의귀납? 연역방법에의하여얻어진종합을인간의제도의평가에적용하려고하는기도이다. 그것은또한평가에입각하면서인간사회의각단위에대하여최대량의행복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 평등, 우애로향하여나가는인류의걸음을예지豫知하려고하는기도이다.

아나키즘은자연과학에서의지적운동의불가피한결론이다. 이지적운동은 18 세기에비롯하여프랑스혁명의좌절후에유럽에승리의함성을올린반동으로말미암아침체한후, 50 년대말에이르러다시금전면적으로떨치고일어섰다. 이처럼아나키즘의근원은 18 세기의자연과학적철학속에있다. 그러나아나키즘이자기자신의완전한터전을닦은것은 19 세기후반의초두에일어나인간의제제도화사회의자연과학적기초에의한연구에새로운생명을불어넣은과학의부흥이후의일이었다.

1820 년대와 30 년대의독일의형이상학적철학자의득의만면으로자랑삼던소위‘과학적법칙’이란것은자연과학의방법이외의여하한방법도승인아니하는아나키즘의세계관속에들어설여지가없다. 아나키즘은일반으로인문과학이란이름으로불리어지고있는모든과학에도이러한방법을적용하려고한다.

이방법에의거하고, 또한이방법론의영향아래최근에이루어진일체의연구를이용함으로써, 아나키즘은인간에관한모든과학의종합을구성하려고힘쓰는동시에최근의민족학적연구에의하여전하여진자료를기초로또한그것들을일층확대하면서, 법이나정의와같은것에대한통설적관념을재검토하려고한다. 아나키즘은 18 세기의선구자들의노작에의거하면서국가에대립하여개인을옹호하는편에서고, 또한역사적제조건에의하여사회를지배하고있는권력에대항하여사회의편을들려고한다. 아나키즘은또한, 근대과학의손으로수집된역사적자료를이용함으로써금일점점그압박을증대시키고있는국가권력이우리들유럽인에대해서는 15 세기와 16 세기이래비로소대두한유해무익한상부구조에불과하다는것, 그것은또한자본주의의이익을위해서만들어내어진상부구조이고, 이미그대에는로마와그리스멸망의원인을이루고, 다시동양과이집트에서의제문명의모든중심지의붕괴의근본원인이기도했다는것을입증했다.

만으로는만족하지않고이카리아공화국은다시나아가국가가시인하는식물食物의일람표를작성하여농민과노동자에게그식료품을생산시켜이것을배급한다. 카페는이렇게쓰고있다.

“누구라도국가가배급하는이외의식물을가질수없으니국가에의하여승인안된식품을누구도먹을수없음은명백하다고하겠다.”[『이카리아항해기』 제 5 판, 1848 년, 52 면]

다시나아가위원회는식사의회수, 시간, 그길이, 그릇의수와식물의종류, 식사의순서까지규제한다고하는형편이다. 의복에관해서는위원회가일정한형을지정하여각인은그의사회적지위와상태를표시하는제복을착용한다. 항상같은것의생산활동에종사하는노동자가태반이다.

“이만큼이나질서와규율이지배하고있다”고카페는환성을올리고있다.

누구든지공화국의허가없이아무것도출판하지못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겠다. 게다가저작자가되기위해서는시험을쳐정식으로면허를얻은뒤가아니면안된다.

카페의유토피아가꼭그대로의형태로인터내셔널내에서다수의신봉자를갖고있었다고는생각될수없을것이다. 허나그정신은잔존하고있었다. 다음과같은것은아주확실하다 - 그리고우리는권위주의자, 특히독일의공산주의자들과행한전쟁에서이것을분명히느꼈던것이다 - 즉금일에서는어림도없는어리석은일이라생각되고있는, 앞에서말한그런엄격한규제가당시는슬기로움의표현으로받아들여지고있었던것이다. 우리의비판에대하여사람들은카페의말로이렇게대답한것이다.

“확실히공산체는부자유와속박을강요할것이다. 하지만이것은그주요한임무가부와행복을산출하는데있기때문이다. 이중의번거로움이나낭비를피하기위하여, 그리고또한농업생산과공업생산을절약함과함께그생산력을 10 배나올리기위하여, 사회가일체를집중하고처리하고지휘하는것이절대로필요하다. 사회는일체의의욕, 일체의행동을, 자기의규칙, 자기의질서, 자기의규율에복종시키지않으면안된다. 좋은시민은명령되지않은일체의일을자발적으로삼가지않으면안된다.”(『이카리아항해기』 제 5 판, 403 면)

가장난처한일은, 권위주의자들이다음과같은신조를여태껏지니고있다는것이다. 즉카페가말한것처럼결국‘공산체제는공화국의대통령아래서와마찬가지로군주아래서도실현가능하다’고하는신조말이다. 이이념이바로나폴레옹 3 세의쿠데타에길을 열어준것이고, 또한그후권위주의적사회주의자가부르주아적반동에직면하여대수롭지않게‘방임’의태도를취하는것을허락한이념이기도했다.

끝으로인터내셔널창립당시에프랑스와독일에다수의신봉자를거느리고있던루이불랑의학파에대하여한마디해야겠다. 이학파는독일에서는라사르파라는마무리진집단으로규합하고있었다. 이들의사회주의자는국가신봉적경향의지지자도, 그이전의사회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다음과같이보고있었다. 즉만약

에혁명의의하여탄생하고사회주의적견해에의하여고취된정부가노동자를원조하여광범한노동자의생산협동조합을조직하게하고그것에다필요한자본을정부가대부한다면, 산업시설을자본가의손에서노동자의수중으로옮아가도록할수있으리라고. 이들의협동조합은국민생산의광범한일대조직으로결합될것이다. 만인에게평등한보수제도가과도적조치로서승인될것이다. 그러나각생산자의필요에따라행하여지는생산물의분배가언젠가는달성되어야할최종목적일것이다.

그것은콘시데란이아주정당하게도지적한바와같이민주주의국가에의하여통치된‘공산주의적생시모니즘’이었다.

광범한국가신용제도에의거하여극히저리低利로국가로부터대부를받아자본가적생산과경쟁할수있게끔국가의명령으로알뜰히원조된이들의노동자의조합조직은머지않아산업에서자본가를몰아내고자신이그자리를차지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의조합조직은농업에도확대할수있을것이다. 노동자들이잇어서는안될것은그러한경제적, 사회주의적목표다. 그것은부르주아정치가의단순한민주주의적이상인것은아니다.

무릇이들의제이념은 1848 년이전의사회주의적선전에의하여, 그리고또 1848 년의 2 월혁명및 6 월사건에의하여탄생한것이었는데그것들은세목에있어서여러가지변용을가지면서인터내셔널내부에널리 보급되고있었다. 상호간견해의거리는컸다. 그러나이미앞에서도보았듯이이들의학파의신봉자들은다음의한가지점에서의견을같이하고있었다. 즉그들은모두장래의혁명의기초에강력한정부가놓이지않으면안되고이정부는나라의경제생활을그수중에거두어들이지않으면안된다고하는점이곧그것이다. 그들은모두중앙집권적계층적인국가조직을승인했다.

다행히도이들의자코뱅적제이념과병립하여그것과대항하는형태로푸리에주의자의이념이또한존재했다. 다음에이이념의검토로옮아가자.

마련되고있다고호언하면서그러면서도이들의폭동을방해하려고하는것은벌써범죄라할수밖에없다. 현대선거의선동운동에만정력을쏟으면서노동자에대하여그들이사회혁명의모든혜택을입게되리라고애써설득하고, 다른한편으로혁명정신이역사적으로고조된국민속에발생하는개개의폭동적행동에대하여악의에찬온갖욕설을퍼붓는것은스스로혁명과일체의진보에대한방해물 - 언제나변치않고그리스도교회가그러했던것과조금도다름없이혐오해야할방해물이되고마는것이다.

말할것같으면, 우리는다음과같이이해한다. 즉당초는개개인이자기들의주의에 발견하는사태에깊이마음이동요하여개별적으로반역한다. 그들은대부분이렇다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한채사라진다. 그러나사회의무관심을이들의전초의덕택으로흔들어놓은것이다.

현상에만족한자도, 마음이좁은사람들도, 이제는다음과같이자문하지않고서는배길수없게되었다 - 도대체무슨까닭에이들의젊은, 성실한, 힘이넘쳐나는사람들이자기네의생명을내어던졌을까, 라고. 벌써무관심한채로머물러있을수는없게된것이다. 찬부贊否간에태도를밝혀야하게된것이다. 이리하여사상은각성했다.

조금씩, 사람들의소집단도마찬가지로혁명정신에침투되어갔다. 그들도때로는부분적성공을획득할것을기대하고, 이를테면스트라이크에승리하여자식들에게빵을사다줄수있다거나가중可憎스런관리를추방한다거나하는목적을달성하려고반역하고나선다. 그러나다른편으로, 극히빈번히아무런성공의기대도갖지않고서반역하기도한다. 왜냐하면벌써그이상을참을수가없었기때문이다. 혁명에선행하는것은이런종류의반역행위, 더욱이 1 회나 2 회나 10 회의반역이아니라몇백번이란불기인것이다. 어떤인내에도한도라는게있다. 이는금일의아메리카합중국에서도보이는바다.

러시아에있어서의농노제도의평화적폐지에대하여종종지적들한다. 하나그럴때, 일련의긴농민폭동의역사가그것에선행하여있고, 이것이바로농노제폐지를이끌어왔다는것은전혀맞고있거나아니면전혀알려져있지않다. 이들의반란은 50 년대에벌써시작되고있었다. 그것은아마도 1848 년혁명의반향이거나아니면 1846 년의가리시아에서의농민반란의반향이었다. 그리고해마다점점러시아전토에확대하여점점심각한것으로되고, 지금까지보지못했던사나운성격을띠기에이르렀다. 이러한사태는 1857 년알렉산드르 2 세가, 드디어리투아니아의귀족들에게서간을보내어, 농민의해방을약속하기까지계속했다. ‘앞아서밑으로부터의해방을기다리기보다는위로부터해방을주는편이 낫다’고하는저게르첸의명언 - 그것은, 알렉산드르 2 세에의하여, 모스크바의농노제지지에고루한귀족들의면전에서되풀이되게끔된말이다 -은단순한위협은아니었다. 그것은현실을반영하고있었다.

혁명이가까워질무렵에는이것과같은일이좀더큰정도로발생했다. 일반적인법칙으로서어느혁명의성격도그것에선행하는폭동의성격과목적에의하여규정된다고말할수있겠다. 아니오히려그뿐만아니라, 역사의사실로서다음과같이확정할수있겠다. 즉아무리심각한정치혁명도만약에혁명이시작된후에일련의지방적폭동의형태로계속하지를않고, 또한만약에인심의동요가 1906 년과 1907 년의러시아의경우처럼개인적복수의성격을취하는대신에폭동의성격을띠는일이없었다면결코성취하지를못할것이라고.

따라서장래을혁명의성격을결정하는폭동의선구先驅없이헛되이사회혁명을대망하고이러한희망적관측에빠지는것은유치하고어리석다. 전반적봉기가

12. 아나키즘 (속)

인터내셔널에서의사회주의제이념 - 푸리에주의

프랑스혁명의동시대인푸리에인터내셔널이설립되었을때이미세상을떠났었다. 그러나그의사상은문인門人들 - 특히푸리에의사상에다과학적성격을붙여준콘시데란 -에의하여널리 보급되고있었으므로인터내셔널의가장교육있는성원들은의식적무의식적으로푸리에주의의영향을받고있었다.

그런데당시의푸리에의영향력을이해하는데는다음것을주의할필요가있다. 즉사회주의의역사를서술하는서적에흔히지적되고있는것과는달리, 푸리에의지배적이념은부의생산을위한자본과노동및재능의결합은아니었다는것이다. 그의주요한목적은이윤추구를위하여행하여져필연적으로성설치못한대규모의투기로이끌어가는일체의생산물의교환을행하는자유로운국민적조직을창설할것을제안했다. 이와같이그의이념은저파리의민중이지롱드당원을국민공회에서추방하고생활필수품에대한최고가격법이가결된후, 1793?94 년의과정에서프랑스혁명이실현코자한이념을부활시킨것이다.

콘시데란이그의저작『구세계에직면한사회주의』[이책을금일의사회주의자들에게크게추천하고싶다] 가운데서말하고있듯이, 푸리에금일의착취의온갖추악한형태를제거하는수단을‘생산자와소비자간의직접적관계의수립에, 다시말하면생산지에서직접받아서직접소비자한테건네주는생산물의보관자 - 그소유자가아니라 -의역할을다해야할공동체의중개적대리자를설치하는데서발견했다.

이러한조건아래상품의가격은투기의대상이되기를그칠것이다. 가격에는운송저장및집무에소요된거의무시할수있을정도의실비가가산될뿐일것이다.

푸리에어릴때일찍부터양친을도와상점에서일하면서장사의나쁜측면을실컷경험했고상업에증오심을품고있었다. 그때로부터그는상업과싸우기로맹서하고있었다. 장성해서프랑스혁명의시대에그는저투기 - 처음에는교회나귀족한테서몰수된국유재산의매매에즈음하여, 나중에는전쟁의시대에발생한온갖물자의가격폭등에즈음하여, 끔찍한투기를소상히목격한것이다. 그는또자코뱅당의국민공회도테러도이들의투기를제지하지못하는것을봤다. 그래서그는사회화된교환제도가없는한, 민주주의를위하여승려와귀족에게서토지를몰수함으로써달성된경제적혁명의성과도헛된일로돌아가고만다는것을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는 상업의 공유화의 필요를 이해했고 이 방향에서 생퀴로트가 1793 년과 94 년에 시험한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제 그는 이 이념의 사도使徒로 되었다.

푸리에의 의견에 의하면 생산품의 보관자인 자유코원은 생활필수물자의 교환 및 분배라는 대문제의 해결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코원은 금일의 상인이나 협동조합처럼 그 소유자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고 생산품을 분배하기 위하여 창고에 수납하는 한편, 소지자로부터 일체 공세를 징수하지 않고, 또한 물자의 변동을 틈타 투기를 하는 일도 없다.

소비와 분배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이 기도는 푸리에를 가장 심원한 사회주의적 사상의 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농업코원 또는 공업코원의,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합체농? 공업코원의 전성원이 파란지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들의 코원은 토지, 가축, 농구, 기계를 하나로 결합하여 토지를 경작하고 혹은 공장에서 일함으로써 토지, 기계, 공장 등이 성원 전체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자본에 대하여 각인이 공헌한 액額을 엄밀히 계산上할 것이다.

두 가지 주요 원칙이 파란지에서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푸리에에는 주장한다. 첫째로, 그것은 불유쾌한 노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일체의 노동은 항상 사람들을 유쾌하게끔 조직되고 배분되어 다채다양한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자유로운 결합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에는 여하한 강제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강제가 필요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파란지의 각 성원의 개인적 필요에 대한 다소 신중한 주의와 각종 성격의 특수성에 대한 약간의 관용이 있다. 그리고 농업, 공업, 지적? 예술적인 각종의 노동을 하나로 결합한다. 그 결과 현대의 사회제도 아래서는 종종 해악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인간적 격정 - 그리고 항상 그것이 강제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는 이러한 격정마저 진보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파란지의 성원은 머지않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격정의 본질을 인식하여 그 사회적 적용의 방도를 찾아내면 족한 것이다. 새로운 사업, 위험한 모험, 사회적 태동, 변혁의 갈망 등은 이들의 격정에 필요한 배출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기는 아직 푸리에가 국가가 적 이념에 집착을 남기고 있긴 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공동체 조직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진정한 조화’의 선구자로 되어야 할 ‘단순한 조화’를 우선 시험해보자고 ‘군주의 참가’를 앙청仰請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프랑스 국왕에게 인류를 사회적 혼란에서 구출하는 명예를 위탁하여 전세계의 조화의 창설자, 해방자가 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초기 저작 중의 하나에서 말했다. 그는 이 동일의 이념을 1808 년의 『네 가지 운동의 이론』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그 후 그는 루이 필립 왕에게 이 목적의 실현을 위탁했던 것이다 [페라랑,

고립한 개인도목은 사회 형태의 파괴가 성취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파괴를 위한 정당한 표현 내지 정식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파괴의 작업을 다 소라도 넓혀서 나라의 일부에서 생긴 사태를 전 지역에 확대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파괴의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1789?94 년의 혁명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새로운 생활 형태는 혁명 후목은 생활 형태의 폐허 위에 탄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신 형태가 민중의 건설 작업 속에서, 한꺼번에 수 천 군데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속에서, 스스로 형태를 갖추지 않는 한,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그것들의 표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라서 1789?94 년의 혁명의 제사건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와 파리로 된 및 그 제 지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추측했을 것인가. 또한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인가. 미래를 법에 복종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것은 그 주요한 경향을 추측하여 그 길을 말끔히 닦아 놓는 일이다. 우리가 하고자 애쓰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 혁명의 과제를 이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이나 키즘이 ‘현존 국가에서의 권력 장악’을 목표로 내거는 강령에 동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권력 장악이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싸우지 않고서 자기네의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저항도 않고서 순순히 물 수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편으로 사회주의자가 정부의 일부로 들어가 부르주아지와 권력을 나누게 된다면, 이에 따라 그들 사회주의자는 불가피하게 퇴색한 자가 되어 갈 것이다. 그러지 않을 라치면 사회주의자의 기관지機關紙상에서도 인정하다 시피, 수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훨씬 강력한 부르주아지가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사회주의자에게 인정할 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영국 또는 독일에 봉기가 일어나 사회주의의 임시 정권의 등장이 가능케 되었다 하더라도, 민중 자신의 건설 활동을 결할 것 같으면 그러한 정권은 전혀 무력하고, 얼마 안 가서 혁명의 방해물 즉 브레이크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반동의 대표자 즉 독재자의 발판 될 것이다.

혁명의 준비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어떠한 혁명도 의회기타 어떤 대의 집회의 저항이나 공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혁명은 민중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더군다나 미상불어떤 혁명도, 주피터의 두뇌에서 튀어나오는 미네르바와 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무릇 혁명은 어느 것이나 부화기 孵化器 외에도 진화기 進化期를 갖고 있었고, 그 기간에 민중은 당초에는 극히 조심성 있는 요구를 내어 놓다가 극히 완만한 걸음걸이로 차차 혁명 정신에 침투되어 간다. 이리하여 그들은 점점 대담 무쌍하게 되어 가서 자기네의 힘에 자신을 얻고 절망의 정지 상태를 벗어나 점차 자기네의 강령을 확대해 간다. 당초의 ‘온건한 건의’가 마침내 혁명적 요구로 전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수중에 권력을 장악할 만큼 강력한 공화주의의 소수파가 탄생되는 데는 1789 년에서 1793 년에 이르는 4 년간이 프랑스에 필요했다. 부화기에 관해서

그로부터 50 년지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은 나폴레옹 3 세가 1848 년경 프랑스에 발전하고 있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적 공화제의 이상 속에 있는 제 2 제정 수립을 위한 제 요소가 완전히 마련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실로 70 년에 걸쳐 모든 지방 생활을 갈아엎고 도시와 농촌에서의 일체의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국가의 테두리 밖에서의 이니셔티브 [조합운동, 노동조합, 사적私的 회사, 코뮌 등] 도 압살한 이 중앙집권적 세력의 하야프랑스는 금일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적 약속을 타파하려는 최초의 기도 -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상의 제 1 기를 개척한 기도 - 는 1871 년에 가서 파리의 프롤레타리아의 손으로 비로소 행하여졌을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즉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중앙집권 국가의 수중에 노동수단의 사회화를 꾀한다고 하는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립에 향해진 그들의 기도가 필연적으로 물고갈 결말은 공공상의 파산이요, 또한 군사 독재일 것이라고.

여기서는 우리의 견지를 확증하는 각종의 혁명운동을 분석하기를 할애하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장래의 사회혁명 은 자코뱅 독재도 아니려니와 국민공화내의 회내지독재자의 손으로 행하는 사회제도의 변혁도 아니다. 혁명은 일찍이 한번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예가 없다. 만약에 노동자의 봉기가 실제로 이러한 방향을 더듬어 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지속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파멸이 약속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혁명은 광범하게 확대하는 혁명이고, 그 사이에도 중이 봉기하는 지방의 모든 도시, 모든 농촌에서 민중 스스로 사회의 재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 - 즉 농민과 도시의 근로자 - 이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 소간에 광범한 코뮌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건설적, 계몽적 활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만민에게 먹을 것과 집을 주도록 수배하고, 다음으로 만민의 식량, 주택, 의복의 공급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폭력에 의하거나 또는 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정부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40 년대의 프랑스에서 이름 붙여지고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호칭되고 있는 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이 건, 혹은 또한 호성으로 영접되고 또 선출되어 성립한 ‘임시정부’ 이 건, 그리고 또 ‘국민공화’ 이 건, 우리는 일체 그런 것에다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러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미리부터 단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개인적 기호에서 가 아니다. 혁명의 물결에 번롱? 쾰리어 정부의 자리에 밀어올려진 사람들은 결국 충분히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원리 위에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당하여 고립한 인간은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현신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필경 무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경작지, 주택, 운전중의 공장, 철도, 선로를 달리는 객차, 기선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대중의 집단적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푸리에, 그 생애와 교설』 4 판 114 면].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최초의 준비의 시도에 관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조화’ 또는 ‘보편적 조화’라 붙여진 사회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는 여기서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화는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혁은 사회? 정치? 경제? 도덕 등 일체의 관계에 있어서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푸리에가 국가의 비판에 착수했을 때, 그는 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철저한 비판을 했다.

“정치적 무질서는 사회적 무질서의 결과이고 그 표현이다. 불평등은 부정의로 전화하고 있다. 권력이 그 이름 아래 행동하는 국가란 것은, 그 기원에 있어서나 그 원리에 있어서나 특권 계급의 봉사자이고 잔여 계급에 대립하여 자기네의 이익을 지키는 옹호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밖에도 이러한 어조로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푸리에의 제원칙이 완전히 적용된 결과 출현해야 할 ‘조화적 사회’에서는 도무지 강제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푸리에 는 프랑스 혁명의 패배 직후에 문필 활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자본과 노동 및 재능 간의 결합이란 원칙을 승인할 필요를 역설했다. 그 결과 파란지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는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제 1[총액의 반 내지 12 분의 7] 은 노동의 보수에, 제 2[12 분의 3] 는 자본에, 제 3[12 분의 2 내지 3] 은 재능에 충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내부의 푸리에 문하들의 태반은 그의 체계의 이 부분에는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는 푸리에가 글 쓰고 있던 당시의 영향이 보이고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푸리에의 교설의 근본적 특징에 유의하고 있었다. 즉,

- 1) 자유 코뮌 즉 독립한 작은 지역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고 단위로 된다.
- 2) 코뮌 은 그 내부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관리자이고, 일체의 교환의 중개자이다. 그것은 동시에 소비자의 결합체이고, 대개의 경우 동시에도, 생산의 단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위에 그것은 직업 집단 또는 생산자 그룹의 연합이기도 할 것이다].
- 3) 이들의 코뮌은 상호 간에 자유로 결합하여 연합, 지방, 국민을 형성한다.
- 4) 노동은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을 요한다. 그것이 없고 보면 노동은 언제나 억압의 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회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은 금일에 있어서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 5) 이런 종류의 코뮌에 있어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하한 강제도 필요치 않다. 세론의 영향만으로도 충분하다.

생산물의분배및소비에관해서는극히다양한의견이표명되고있다. 인터내셔널창설후사회주의의제이념은점점많은성공을거두었다. 특히 1868년의브뤼셀대회, 1869년의바젤대회에서인터내셔널은절대다수로경지, 임야, 철도, 운하, 전신등, 나아가서는광산과기계에대한집산제를선언했다. 집산제와그것을달성하는수단으로서의수탈을승인함으로써, 인터내셔널의반권력주의적성원들은콜렉티비스트 [집산주의자] 라칭하여, 마르크스, 엥겔스및양인의신봉자들의국가주의적중앙집권적공산주의에대하여, 그리고바부프와카베의권위주의적전통을지닌프랑스의공산주의에대하여명확한일선을그었다

1867년에 J. 기욤 - 그자신도콜렉티비즘의선전활동에적극적으로참가했다 -에의하여공간公刊된『사회주의론』, 마찬가지로그의주저인『인터내셔널 - 기록과회상』 [1905?10년에파리에서 4 권본으로공간되있음], 끝으로기욤이『생디칼리즘의백과전서』에최근기고한「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콜렉티비즘」에서, 인터내셔널에있어서의가장활발한연합주의적성원들 - 바르랑, 기욤, 도페프, 바쿠닌및기타의동지들에의하여‘콜렉티비즘’이란말에붙여진정확한의미의상세詳細가는술되고있다. 그들의언명에의하면, 권위주의적공산주의에대항하여그들은콜렉티비즘이란말아래서비권위주의적연합주의적또는아나키스트적공산주의를이해했던것이다. 그들은콜렉티비스트라고자칭함으로써무엇보다도우선그들이반권위주의자라는것을역설했다. 그들은수탈을완전한사회에서소비가취해야할형태를사전에결정하려고아니했다. 그들에대하여중요한것은사회를엄격한틀안에다역지로가두어넣는짓을하지않겠다는희구이고, 이점에서그들은진보적그룹에대하여가장광범한자유를보류하려고했다.

불행히도인터내셔널내부에서뿌려진집산제라는이념은바젤대회후 10 개월이지나서보불전쟁이일어난당시, 노동자대중간에널리알려지기에는이르지 못했다. 그결과파리코뮌때에도이러한집산제실현의방향으로의진지한기도는전혀없었다. 코뮌이괴멸한후도연합주의적인터내셔널은그주요한이념 - 즉사회혁명을실현코자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을실행하기위하여노동자의세력을반권위주의적조직으로결집한다고하는이념의존속에전력을기울이지않으면 아니되었다.

이리하여미래의문제는필연적으로배경으로후퇴하게되었다. 아나르코코뮌니즘이란의미로해석될콜렉티비즘의이념은약간의신봉자에의하여계속선전되고있었으나그것은한편으로「공산당선언」의제이념을포기하기시작한후에마르크스주의자들이전개한국가집산주의의관념과충돌했고다른한편으로는블랑키스트의권위주의적공산주의와충돌했다. 그것은또푸르동에의한권위주의적공산주의의가혹한비판의영향아래 1848년이후라틴제국諸國의노동자대중에착근着根하기시작한공산주의일반에대한널리퍼져있는편견에맞닥뜨렸다.

이저항은극히강력했다. 그래서이를테면스페인 - 여기서는연합주의적인인터내셔널이노동조합의광범한연합체와밀접히연결되고있었다 -에서당시나월썬그뒤나콜렉티비즘이라하면단지집산제의주장으로만받아들여졌고, 반국가

게그대로유지하고다만권력자를바꿀뿐으로사회주의의기구를도입할수있다고 가르치고, 또한노동자의지성을도와서그들에게적합한새로운생활형태의탐구로향하게하는대신에그것을방해하는것은범죄이며하나의역사적과오라고우리는보는것이다.

끝으로우리는혁명의당파이고, 따라서우리가역사속에서연구하는것은무엇보다도우선과거의혁명의발생과발전이아니면안된다. 이렇게함으로써우리는 지금까지끊임없이역사에부여해온그릇된국가주의적해석에서역사를해방하려고한다. 지금까지기록된각종의혁명사속에서우리는아직민중의모습을발견하지못하며혁명의기원에관하여아무것도아는바없다. 봉기전야의민중의절망적 상태에관한서론에서보통되풀이되는관용어는이러한절망의한복판에서어떻게해서개선이가능성의희망과신시대의등불이나타났고, 반역정신이어디로부터발생하고어떻게해서퍼져나갔는가에대하여아무것도말하여주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역사책을내버리고우리는원자료로대결하여민중속에일어난각성의경로에대하여, 또한혁명의소용돌이속에서수행된민중의역할에대하여그어떤정보를얻고자한다.

이리하여우리는프랑스혁명을무엇보다도자코뱅글라브에의하여지도된거대한정치운동이라고내다본루이블랑과는달리이혁명을이해한다. 우리는프랑스혁명속에무엇보다도우선위대한민중적운동을발견한다. 그리고특히농촌에서의농민운동의역할을 [농민반란에관한위원회의보고자그레고아르목사가역사가시로세르에게말한것처럼‘모든촌락이자기자신의로베스피에르를갖고있었던’것이다] - 말하자면봉건적농노제의유물의배제와각종의욕심많은돈놀이뿐이나지주들의손으로농촌공동체에서약탈한토지의농민에의한수탈 - 예컨대농민들은특히프랑스동부에서이일에성공했다 -과를주요한목적으로삼고있던운동의의의를인정한다.

4 년간에 걸쳐 계속된 농민 봉기의 결과 혁명적 상황이 출현했고 도시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코뮌주의적 평등으로의 경향이 발전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지는 왕과 귀족의 권력을 착실히 무너뜨려 이 대신이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려고 교묘하게 활동하여 권력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 목적으로 부르주아는 완강하게 사정 없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어 내려고 서둘러 이 국가에 다 일체를 병탄 併呑 시킴과 함께 부르주아지에 게재 산권 [혁명 때에 그들이 약탈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까지 포함시켜] 을 보증시키고, 동시에 또 민을 착취할 완전한 자유와 국부를 법률적인 제한 없이 마음대로 투기할 자유를 그들을 위하여 인정케 했다.

이 권력, 이 착취의 권리 - 이 일방적 자유방임 - 를 부르주아는 실제로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치 형태 - 중앙 집권 국가에 있어서의 대의 정치 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고 자코뱅 당원의에 의하여 산출된 이 국가주의적 중앙 집권 속에서 나폴레옹 1 세는 제정 수립의 알맞은 지반을 발견했던 것이다.

물론독일황제도, 스위스에서권좌에오른자코뱅당원도, 이목표로전진하는 자는아니다. 그들은반대로과거로눈을돌려국가의손에모든것을집중시켜지역적및직능적독립의일체의흔적을파괴하려고애쓰다.

우리가주목하지않으면안될것은유럽과아메리카의사회에있는진보적부분이다. 거기에는국가의테두리밖에서조직되어점점국가에대신하여, 한편으로중요한경제적기능을장악하고다른한편으로국가가여전히자기의직무로자인하고는있으나여태껏한번도적당한방식으로이행할수가없었던제기능까지도장악하려는경향이분명히보인다.

교회의사명은민중을지적예속상태에불들어매어두는데있다. 다른한편으로, 국가의사명은민중을반기아상태로경제적예속속에가두어두는데있다. 이제우리는이들두개의사슬에서벗어나려고노력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을안뒤에는벌써우리가점점증대하는국가에의종속을진보의보증으로인정할수는없다. 제도는이론가의희망대로그성격을변경하는것이아니다. 그런고로, 우리는개인의최대한의완전한해방속에, 개인과집단과의일층광범한창의의발달속에, 동시에또한국가의직권의제한속에 - 그확대가아니라 - 진보를구한다.

우리가전진이라생각하는것은, 우선첫째로 16 세기이래사회를갈아엎고계속자기의직권을증대시켜온정부권력의배제로향하는운동이고둘째로는협약과일시적계약의요소의최대한의발달및특정의목적에따라발생하여각자의연합에의해서사회전체에번져있는다종다양한집단의독립성의일층광범위한발달로향하는운동이다. 이와동시에, 우리가생각하는사회구조는결코최종적형태를취하는일이없이부단히생명에넘쳐있고, 따라서순간마다의필요에따라그형태를변해가는것이아니면안된다.

이와같은진보관, 또는미래에대하여바람직한것 [만인의행복의총량을증대하는데이바지하는것] 에관한우리의관념은필연적으로투쟁을위한전술의형성으로이끌어간다. 그리고그전술이란모든집단에있어서, 또모든개인에있어서최대한의개인적이니셔티브를발달시키는데있고, 그럴적에행동의통일은목적의동일성에의하여, 그리고또모든이념이자유로표현되고진지하게토의되어그결과올바른것으로인정된때필시가지게될신념의힘에의하여달성될것이다.

이러한경향은아나키스트의모든전술위에, 또한그들이결성하는일체의서클의내적생활위에자기의각인을눌러찍는다.

우리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즉정부의수중에중앙집권화하여, 그결과전능으로될국가자본주의가닥쳐오도록일한다는것은, 앞에서말한바와같은국가의테두리밖에서사회의새로운조직형태를희구하는진보의조류에역행해서일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

사회주의의참된역사적과제를국가사회주의자들이이해하지못하고있는점에그들의심각한사상적혼미 - 절대주의적, 종교적편견의유물이있다고우리는보며, 그것에대하여우리는싸운다. 노동자들에대하여그들이국가기구를말짱하

적이념을강조하려면콜레티비즘이란말에다별도로‘밋아나키’란말이첨가되었다 [anarquia colectivismo]. 그런데다가그럴때생산자와소비자의개개의집단이여하한 - 공산주의적인, 그렇지않으면그이외의 - 분배방식을취할것인가는미리결정짓지않고남겨두었다.

끝으로금일의사회에서사회주의사회로이행하는방도에관해서는인터내셔널의활동가들은푸리에가이에관하여말한것에다큰의의를부여하지않았다. 그들은유럽에혁명적상황이성숙해가고있다고느꼈고더욱이 1848 년의혁명보다도훨씬심각하고전반적인혁명이박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었다. 그리고그때노동자들은정부의명령을기다릴것도없이그들자신의힘을다하여자본으로부터그수중에쥐고있는독점을탈취할것이라고보았다.

파리코뮌이준충격 - 바쿠닌

이상각장에서행한개관에서인터내셔널에서의아나키즘의이념이어떠한터전위에서발전하고있었는지밝혀졌을것이다.

그것은중앙집권적이고권위주의적인자코뱅주의와지방적독립및연합이란이념과의혼합을보여주고있었다. 그리고이두가지가다같이 - 방금우리가본바와같이 - 프랑스혁명에서유래하고있다. 중앙집권적이념이 1793 년의자코뱅주의의직계라한다면, 지방의독립적행동이란이념은 1793?94 년의파리의제지구및제코뮌의건설적이고혁명적인강력한활동의유산이었다.

그러나이들의두조류중에서전자즉자코뱅주의편이우세했다. 인터내셔널에가입한부르주아지식인의태반이자코뱅적정신의소유자이고노동자는그들의영향을받고있었다.

유럽과아메리카의노동자대중간에서혁명사상에새로운방향을잡아주기위해서는파리코뮌과같은거대한중요성을가진사건이필요했다.

1870 년 7 월에가공可恐할보불전쟁이일어났다. 나폴레옹 3 세와그조언자들은필연적으로닥쳐올것이에측되고있던공화주의의혁명에서제국帝國을구출코자전쟁에돌입했다. 전쟁은프랑스의소멸과제정의파멸, 티에르와간벳트의임시정부및파리코뮌을초래했고, 계속해서마찬가지의기도가상에티엔느, 나르본느기타의남프랑스제도시에서, 그후는스페인의바르세로나와카르타제나에서발생했다.

인터내셔널에대하여 - 적어도발생한사건에서교훈을끌어내어생각할줄아는성원들에대하여 - 이들의코뮌의봉기는하나의계시였다. 파리의노동자들이바리케이드위에서사수한사회혁명의붉은깃발아래이들의봉기는라틴제국민속에일어날장래의혁명의정치적형태가어떠한것이아니면안되며또한아마도어떠한것이리라하는것을보여주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1848 년에생각되었던그러한민주주의적공화국이아니라
코뮌 - 자유롭고독립한, 그리고아마도공산주의적인코뮌인것이다.

민중혁명의시기에그성공을확보하려면어떠한정치적및경제적방책을취해
야할것인가에대하여, 당시의지성을지배한훈란이파리코뮌에도감돌고있었음
은확실하다. 인터내셔널내부에나타난이러한지적혼란은코뮌에도지배하고있
었다.

자코뱅주의자도코뮌주의자 [자치주의자] 도 - 말하자면강권적중앙집권주
의자도, 연합주의자도파리의붕기에다같이등장하여, 이윽고코뮌내에서양파간
에충돌을빚어냈다. 가장전투적인분자는자코뱅주의자와블랑키스트중에있었
다. 그러나블랑키는투옥되고있었으며블랑키스트지도자들 - 태반이부르주아
였던 - 간에그선구자인바부프주의자들의공산주의적이념이거의소실되고있었
다. 그들에대하여경제문제는코뮌이승리를거둔뒤에다루지않으면안될문제였
다. 이런견해가당초부터아주널리퍼져있었기때문에민중적인공산주의적견해
는충분히보급되지않았다. 뿐더러파리코뮌이단명으로끝난결과이러한견해는
확립되기에는이르지못했다.

이와같은조건아래때배는순식간에닥쳐왔다. 공포의밀바닥에떨어졌던부르
주아지의사납게설치는복수를볼때, 코뮌의승리는경제적지반에서의정복과병
행하는발전으로써민중이코뮌수호에궤기하지않고서는도저히불가능하다는것
이다사한번증명되었다.

정치적혁명을달성하려면이것과병행하여경제적혁명이수행되지않으면안
되는것이다.

그러나동시에파리코뮌은또하나의귀중한교훈을주었다. 그것은라틴계제국
민간에프롤레타리아혁명의이념을선명히했다.

자유코뮌 - 이것이바로사회혁명이취해야할정치적형태인것이다. 설사전국
이, 설사모든이웃나라가이러한행동양식에반대한다하더라도일단어떤코뮌의,
어떤지역의주민이그생활필수품의소비의사회화를결의하고또이들의물자의교
환과생산의사회화를바란다면, 그들은이것을그들자신, 그들의손으로실현하지
않으면안된다. 만일그들이이것을한다면, 만일그들이이위대한사업을위하여전
력을기울인다면, 그들이뒤떨어진적대적인또는무관심한부분을포함한전국토
의사태진전에정신을쓰고있을때는한번도가져보지못했던힘을자기자신의코뮌
속에발견할것이다. 혁명의발목에감겨붙은무거운짐과같은이들의뒤떨어진분
자를질질끌고견기보다는이들과공공연한일전을감행하는편이좋다.

뿐만아니라우리는다음과같이본다. 만약자유? 독립의코뮌을지배하는중
앙집권적정부가필요치않다면, 만약전국민적정부가타도되고국토의통일이코
뮌의자유연합으로달성된다면, 마찬가지로중앙의시정市政도또한유해무익한
것으로될것이라고. 개개의코뮌내부에서결정해야할사항은한국가전체에있어
서보다훨씬간단한것이되고, 시민의이해관계도훨씬단순하고모순없는것으로

취하여그들의영유로귀속시킴으로써공유지를파괴했고지금도그렇게하고있다.
또한러시아에서는현재도역시니콜라이 2 세의정부의손으로농민의공동체에서
토지를갈취하고있다. 이러한사실들을새삼재언할것도없으리라.

끝으로이집트, 톤킹, 트란스발과같은정복된나라는말할것도없고, 여태껏
모든국가에는예외없이온갖종류의거대한독점을만들어내고있다. 매년각국의의
회가새로운독점을철도, 전차, 가스, 수도, 전기, 학교, 기타만반의영역에서만
들어내고있는데, 마르크스가과거의조건으로서말한본원적축적을새삼그집어
낼필요도없을게다.

한마디로말하면, 일찍이한번도어느국가에도 1 년이라도, 아니한시간이라
도‘자유방임’의체제는존재한적이없었던것이다. 항상국가는자본의지주이고지
지자이고, 또한직접간접의창조자이기도했고, 금일도여전히그러하다. 따라서
‘무간섭’의체제의존재를확인한다는것은대중의빈곤이자연의법칙이라고논증
코자하는부르주아경제학자에대해서나허용될일이지사회주의자가노동자를보
고이동일한문구를말할수는없는것이다. 착취에저항하는자유는여태껏일찍이
한번도어디에도없었던것이다. 도처에서이자유를싸워서얻기위하여일보, 일
보, 미증유의희생자로싸움터를메우면서투쟁하지않을수없었다. ‘무간섭’과그
리고단순한‘무간섭’이상의것이 - 원조, 지지, 비호의손이, 항상착취자의이익만
을위하여내밀어져왔던것이다.

그리고그와는달리있을수는없었던것이다.

앞에서말했듯이, 사회주의가역사속에어떤형태로나타나든시간에, 코뮌주
의로접근하기위하여정치관계에있어서사회주의독자의형태를찾아내지않으면
안될것이다. 사회주의가목은정치적형태를이용할수없음은그것이종교적계층
제도와그교설을, 또한제정내지독재적통치형태와그이론을이용할수없음과꼭
마찬가지다. 무슨방식으로든지사회주의는대의정치체제보다훨씬민중적으로
되어고대로마식의포럼으로일층접근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은대의제에의존
함이좀더적게되고자치제에좀더가까워지지않으면안될것이다. 1871 년에파리
의프롤레타리아가괴한것도바로이것이였다. 1793?94 년에파리코뮌의각구를
비롯해서기타의여러군소코뮌도또한이것을시도한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의정치생활을바라볼때, 거기에는도시및농촌의독
립자주의코뮌이형성되어이것들이가지각색의술한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제
각기특수하고특정한목적으로체결된연합적협약에의하여결합하는아주뚜렷한
경향이씩고있다. 이들의코뮌은전주민의수요를만족시키기위한필요물자의
생산자로점점전화하는경향을 띠고있다. 코뮌의경영으로운영되는전차외에도
원거리에서몇개의도시의연합체에의하여부설되는수도가있고, 다시가스, 전
등, 공장의동력도코뮌의손으로운영되도록되었다. 나아가서는코뮌의탄광炭坑
이나유제품공장, [토케이에있어서의] 결핵환자를위한산양방목장또는온수배
급과채소밭의경영등이있다.

15. 행동의수단

아나키즘이그연구방법이란점에서나그근본원리한점에서나강단講壇과학뿐아니라사회민주주의의동배同輩와도큰차이를가지는만큼행동의수단에있어서도또한이들양자와다르지않으면안될것이다.

우리의법? 법률? 국가관에서보면국가에대한개인의점점증대하는중속속해진보의보증을찾아낼수도없겠거니와하물며사회혁명에로의접근을볼수도없는것이다. 근대자본주의의기원은‘생산의무질서상태’에, 즉이른바‘국가의무간섭의이론’에있고, 국가는‘자유방임’의정식을실시한것이다, 라는따위의천박하고피상적인사회평론가들의입버릇을우리가되풀이할수는없다. 왜냐하면그것은옳지않으니말이다. 정부는적빈赤貧상태로몰아세워진노동자들의노동력을사용하여이윤을추구할자유를자본가들에게제공한반면, 19 세기의과정의어디서도노동자들에게‘하고싶은대로할’자유를준일이없었다. 우리는이를잘알고있다. 따라서‘자유방임’의정식을일찍이한번도실제로적용되지는않았던것이다. 어째서그렇지않다고하겠는가.

프랑스에서는저사나운‘혁명적’자코뱅의회마저스트라이크에대하여, 조합에대하여, 사형을선고한것이다. 나폴레옹제국이나, 되살아난왕조나, 부르주아공화제하의사정에대해서는더말할필요도없다.

영국에서는 1813 년에스트라이크를한혐의로교수형에처하여지는형편이었는데, 1831 년에는노동자가대담하게도로버트오언의노동조합을만들려고한탓으로오스트레일리아로유형되었다. 60 년대가되어서도‘노동의자유옹호’라는주지의구실아래스트라이크참가자는강제노동에보내어지는형편이었다. 금일에와서도 1903 년에영국의어떤회사는, 노동조합이스트라이크에조응하여노동자가공장에들어가취업하는것을그만두게했다는혐의로 [이른바피켓팅] 회사측에 127 만 5 천프랑의손해액의지불을명하는판결을했다. 리옹에서의아나키스트의소요와몬소광산에서의노동자들의운동의결과겨우 1884 년에도노동조합의설립이허가되도록된프랑스에대해서는불문가지다. 벨기에, 스위스 [아이로에서의학살을상기해보라!], 더군다나독일과러시아에대해서도새삼부언할필요도없었다.

다른한편으로국가가그조세에의하여, 또한그손으로만들어놓은독점에의하여, 얼마나도시와농촌의노동자를꼼짝달싹도못하게손발을묶어공장주에게인도하고, 그들을빈궁의밑바닥으로밀어넣었던가를상기해야겠다. 영국에서는지방의귀족들 [그들은단지재판관에불과했고지주는결코아니었다] 이공유지를형

될것이다. 따라서코윈에있어서의생산자, 소비자, 기타각종그룹간에일치를보기위해서는연합주의의원리로죽할것이다.

파리코윈은다시진정한혁명가들을괴롭힌어떤문제에도또한해답을주었다. 프랑스는두번에걸쳐사회혁명을실시하려고괴했다. - 더욱이두번다중당정부를개재시켜서했던것이다. 즉 1793 년?94 년에는지롱드당원추방후‘사실상평등’을, 말하자면참된경제적평등을엄격한입법조치로써도입코자했다. 다음으로 1848 년에는헌법제정의회를통하여‘사회민주주의적공화국’을실현코자했다.

그리고그결과두번다프랑스는실패했다. 현대이제야생활자체가새로운해결책을제시한것이다. 자유코윈이곧그것이다. 코윈자신이자기의영역에서혁명을실행하지않으면안된다. 동시에그것은중앙집권국가에서해방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이새로운이념은‘아나키’라는이상을강화하게되었다.

이때우리는푸르동의저작 『19 세기에있어서의혁명의일반이념』 속에깊이실천적이념이포함되어있는것을이해했다. 그것은다름아닌아나키의이념이었다. 라틴제국민들의진보적인사의사상은이런방향으로움직이기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그것은라틴계나라들의사이에서만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게스위스및와론계주민의사이에서만이었다. 이에반하여독일은프랑스에대한승리에서이와는전혀다른결과를끌어냈다. 그들은국가의중앙집권주의에무릎을꿇고절하게되었다. 그들은여전히로베스피에르적단계속에파묻혀있어서자코뱅주의자의역사가들이 [실정과는정반대로] 논술하고있듯이, 자코뱅글라브를송배하고있었다.

견고하게집중한권력을갖추어여하한국민의독립에의경향에대해서도적의를갖고대하는국가, 관료진의견고한계층적중앙집권및강대한정부권력 - 독일의사회주의자와급진파가도달한것은이러한결론이었다. 프랑스에대한독일의승리는사실인즉 1870 년의프랑스가갖고있던모집병제도에대한독일의일반징병제도에의하여가능케된거대한군대의승리에지나지않았다는것, 그리고승리는혁명의위협을받고있던제 2 제정의부패로말미암아언어진것임에지나지않다는것을그들은이해하려하지않았다. 미상불프랑스제정을위협하고있던혁명이독일의침략에의하여방해되지않았던것은전인류에이익을주는바를것이었다.

이리하여파리코윈은라틴계제국에아나키즘이념의발달을촉진했다. 다른한편으로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권위주의적경향이점점강하게전인터내셔널을위협하게된결과, 이것도또한마찬가지로아나키스트적경향에박차를가하게되었다. 마르크스와엥겔스는파리코윈이무너진후에런던으로망명한프랑스의블랑키스트들의도움을얻고총무위원회에부여한권력을이용했다. 총무위원회는협회의행동강령속에정해진자본에대한노동의직접투쟁을부르주아의회에서의선동으로바꿔치기해버렸다.

이쿠테타는인터내셔널을죽이고말았다. 그러나그것은많은사람들로하여금눈을열게했다. 어떤맹신가라도자기자신의일을정부의손에위임하는결과가 -

가령그정부가인터내셔널총무위원회의선임의경우처럼민주주의적원리에입각하여선출된정부라할지라도 - 그것이얼마나어리석은것으로되는가를깨닫게되었다. 그래서스페인, 이탈리아, 쥐라, 와른계벨기에및영국일부의각연합이자치론자들이총무위원회의권력에대항하여결기했던것이다.

이제야미하일바쿠닌의모습속에인터내셔널에서발전하고있던아나키스트적경향은강력하고정열적인옹호자를발견하게되었다. 바쿠닌과쥐라연합의우인들의주위에스위스와스페인의젊은이들로된작은서클이결집했고, 그들은바쿠닌의사상의폭넓은전개에기여했다.

바쿠닌은역사와철학상의광범한지식을중심으로구사하여힘찬일련의팸플릿, 논문, 서한속에근대아나키즘의제원리를확립했다.

그는대담하게국가를그전조직, 전이념, 전경향에걸쳐완전히배제한다고하는이념을천하에천명했다. 일찍이국가는역사적필연이었다. 그것은종교적카스트가장악한권위에서발전해나온제도였다. 그러나금일은국가의완벽한배제야말로역사적필연이되었다. 왜냐? 국가란자유와평등의부정증명에불과하고, 만인의이익에봉사해야할것을실현코자할때조차착수된모든것을망가뜨리고말기때문이다.

아무리작은규모의것이라할지라도모든국민, 모든지방, 모든코뮌은이웃에대한위협으로되지않는한, 하고싶은대로자기자신을조직함에있어서완전히자유가아니면안된다. 이른바‘연방’이니‘자치’니하는원리만으로는불충분하다. 이것들은단지중앙집권국가의권력을은폐하기위한말에불과하다. 코뮌의완전한독립, 자유코뮌의연합및코뮌내부의사회혁명즉현존사회의국가적조직에대체되어야할생산을위한협동조합적결합 - 이것이야말로바쿠닌이논한바와같이과거의암흑에서현대문명의면전에그모습을나타내고있는이상이다.

개인은그의주위의만인이자유롭게되는한에서만자기도자유롭게될뿐이라고하는것을이제야이해하게되었다.

이와같은이념을품는한편바쿠닌은동시에사회혁명의열렬한선전자였다. 당시사회주의자의태반은사회혁명의박두를예견하고있었으나바쿠닌은바로이혁명을타오르는불과같은격렬한말로그서한이나저작에서주장했던것이다.

부연하면우리들의유럽문명[우리가속하고있는과거 15 세기간의문명]에있어서국가는 16 세기에이르러발생한사회생활형태에불과한것으로그것은일련의원인의영향아래생긴것이다. 이에대하여는줄저『국가와그역사적역할』에서언급되고있다. 이시기이전에는로마제국의붕괴이후국가는 - 로마적형태로는 - 존재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에국가가역사의교과서가운데존재한다면, 그것은역사가들의상상의산물에지나지않고이들의역사가는프랑스왕조의계보를메로빙거가의수장首長에까지, 러시아의그것을류리크까지소급시키려하고있는것이다. 참역사의빛에비춰보면근대국가는중세제도시의폐허위에구축되었을뿐이다.

다른한편으로정치? 군사적권력으로서의국가및근대정부의사법과교회및자본주의는서로분리할수없는제제도라는것이밝혀진다. 역사상이들네개의제도는상호보강하면서발달해왔다.

그것들은단순한우연의일치로서가아니라서로곤계결합되어있다. 그것들사이에는인과의연결이있다.

국가란요컨대인민에대한지배권력과빈민의착취를각자가보장하기위하여지주, 군부, 재판관및목사간에맺어진상호보험회사와같은것이였다.

이것이바로국가의기원이고그역사다. 그리고금일에와서는그본질을이룬다.

국가를유지시켜그원조를받아가지고동시에자본주의를배제할것을꿈꾼다는것은, 국가란것이본래자본주의의발달을조장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이건언제나자본주의와더불어성장하고강화되어온이상, 그것은우리의생각으로는노동자의해방을교회나시저주의의도움을얻어성취하려고하는것과마찬가지로사도邪道이다. 하기는 19 세기의 30 년대, 40 년대, 심지어 50 년대까지도사회주의적, 시저주의적으로공상한술한몽상가들이있었다. 더욱이이전통은바부프의시기로부터금일까지계속되고있다. 허나 20 세기에들어와서아직까지도이와같은환상속에살고있다는것은사실너무도소박하다고하겠다.

경제조직의새로운형태에는정치조직의새로운형태가필연적으로따르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변혁이혁명을통하여급격히발생하거나, 아니면점차적진화에의하여완만히생기거나, 여하튼경제와정치의양면의변혁은서로손잡고병행하지않으면안된다. 경제적해방을향한일보, 일보, 즉자본에대한진정한승리의하나하나는동시에권력에대한승리 - 정치적해방을향한일보일것이다. 그것은당사자전원의지역적, 직업적및기능적인자유로운협정의방식으로되는국가의명으로부터풀려놓임이라하겠다.

“보라, 제군의정의를받아들여도자본가가노동자를착취하고있다는것을역시인정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라고. 이와같은얘기라면팜플릿같은데서는기분 좋게들리겠지만과학으로되기에거리가멀다.

일반으로學으로서의경제학은이와는다른방식으로구성되지않으면안될 것으로본다. 그것은자연과학으로서다루어져새로운목적제기하지않으면안된다. 생리학이동식물에대하여차지하는것과비슷한지위를경제학은인간사회에대하여점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은사회생리학이되지않으면안된다. 목적으로서제기하지않으면안될것은사회의부단히성장하는수요와그것을충족하기위하여쓰이는각종수단의연구가아니면안된다. 그리고이들의수단을분석하여그것이어느정도로과거및현재에이목적에적합한것인지를검토하지않으면안된다. 끝으로 [베콘이오래전에지적한것처럼] 모든과학의최종목적은예보와실제생활에의적용에있는이상, 경제학도금일의모든수요를가장잘충족시키는수단, 말하자면최소의에너지소비 [경제] 에의하여인류일반에대한최선의결과를얻을수단을연구하지않으면안된다.

이리하여다음의것이명백할것이다. 즉우리는부르주아경제학및사회민주주의의입장에서있는경제학자들의대부분의결론과는몇가지점에서아주다른결론에도달하고있다는것, 우리는그들에의하여지적된몇가지상관관계를‘법칙’이라고는인정하지않는다는것, 우리의사회주의론은그네들의것과다르다는것, 우리가현실의경제생활가운데관찰하는발전경향의연구에서도출한결론은원망願望과가능성에관하는그들의결론과크게차이를가진다는것, 바꿔말하면그들이도달하는귀결이국가자본주의및집산주의적임금노동제임에반하여우리의것은자유공공주의라는것등이다.

우리가잘못이고그들편이옳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럴는지도모르는것이다. 그렇지만우리들중에서누가옳고누가그릇되었나를검토코자하면그것은어떤저술가의논설에대한또는설說하려고한것에대한, 비산친식주해註解에의하여할수도없으려니와해젤의 3 부작을원용함에의해서도, 하물며저변증법적방법에호소하는방식에의해서도하지못하는것이다.

그것은다만자연과학의제사실을연구하는그런방식으로경제관계의연구에착수함에의해서만가능한것이다.

아나키즘은언제나이동일한방법에의하여사회의정치형태특히국가에관한아나키즘독특한결론에도달한다. 아나키스트는다음과같은종류의형이상학적명제에굴복할수없다. ‘국가란사회에있어서의최고의정의는관념의확증이라’느니, ‘국가는진보의도구이고그담당자라’느니, ‘국가없이는사회가없다’는따위의주장말이다. 아나키스트는자기의방법론에충실히따라, 흡사히자연과학자가개미나벌이나북국의호반에집을지으려고날아오는새들의사회를연구하는것과똑같은태도로국가의연구에대처한다. 우리는이미 10 장과 12 장에서된짧은요약과거의정치형태및미래의있을수있는, 그리고바람직한진보에관한연구성과를말했다.

13. 아나키즘 (속)

현상에있어서의아나키즘의관념

1848 년의전야에, 또한그후인터내셔널에이르는기간에, 국가에대한반역이사회와그위선적도덕에대한개인의반역이란성격을띠고, 더욱이주로부르주아의젊은세대가운데나타났다고한다면, 이제야노동자들간의이의반역은일층심각한성격을띠게되었다. 그것은금일국가가밀어주는압박과착취에서해방된새로운사회형태의탐구로변화하고있다.

인터내셔널도그것을창립한노동자들의자각에있어서는, 앞에서말한것처럼사회혁명에의하여갱신된사회가취해야할미래상의맹아를비취주는노동자의제집단의광범한연합이아니면아니되었다. 말하자면그미래의사회란금일의통치기구와자본주의적착취가자취를감추고생산자와소비자간에맺어지는새로운관계에자리를비켜주어야할것이였다.

이러한조건아래아나키스트의이상은개인적인것이기를그쳐야했다. 그것은사회적인이상으로된것이다.

양세계의노동자들이그들을갈라놓는국경에상관없이직접관계를맺고서로상대편을잘알게됨에따라그들은사회문제를훨씬잘연구, 해명하게되고자기네의힘에대하여일층자신을갖게되어갔다.

그들은다음과같이내다보았다. 즉, 가령민중이토지를소유하게되고공업노동자가공장이나작업장을소유하여자신들의손으로산업을관리하고국민생활의필수품의생산에그것을활용하게된다면사회의기본적필요를빠짐없이광범하게공급하기가용이할것이다. 최근의과학과기술의진보는그성공을보증한다. 그럴때제국민의생산자는바른기초위에서국제적교환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작업장과공장, 광산, 농업, 상업을잘아는사람에게이것은아무런문없이아주명료하다.

동시에국가가그관료적계층제도와역사적전통의중압과함께독점이나착취로부터해방된자유로운새사회의도래를방해하지않을수없다는사정을깨달은노동자의수는점점불어날뿐이다.

역사상국가는토지의사유권을한계급을위하여확립하고, 그독점권을유지시킴으로써발달해왔으며, 이리하여누구보다도지주계급은지배계급으로되었던것이다. 따라서노동자들자신이자기자신의손으로자기네의결합가운데서이독

점을타파하는수단을찾지않고서어찌하여이러한수단을국가가제공할수있다고 하겠는가. 19 세기의과정에서는국가는공업소유권, 상업, 은행을부유한계급의 수중에독점시키고농촌의공동체에서토지를수탈하여농민을중세로억누르고이 들의부유계급을위하여값싼노동력을제공함으로써강대화한것이다. 이특권을 배제하기위하여국가는과연여하한편의를제공할수있겠는가. 국가의통치기구 는이들의특권을창조하고유지할목적으로발달해왔는데도대체다름아닌이들의 특권을배제하는역할을그것이말할수있겠느냐말이다. 이새로운기능은그것에 알맞은새로운기관을과연필요로하지않겠느냐말이다. 이새로운기관은이제야 노동자자신의의하여국가와는아무상관없이노동자자신의조합, 노동자자신의 연합속에서만들어내지않으면안되는것이아닐까.

국가에의하여출생하고강화되어온특권이소실할때국가도또한그존재이유 를상실할것이다. 일단인간관계가착취자대피착취자의관계이기를그친다면, 전 혀새로운사회집단형태가생길것이다. 부자가빈자의노동을착취함에의하여일 층부유하게되게끔짜여있는현존기구가무용화하자마자생활은단순화할것이다.

지역적결합을위한독립한코뮌및사회적기능별로결합한노동조합의광범한 연합 - 그럴적에양자는서로연결하여사회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지주를제공 한것임 - 이라는이념은아나키스트가해방된미래사회의있을범한조직을구체적 현실적인방식으로구상하는단서로되었다. 다시그위에코뮌및노동조합과병립 하여개인적관계로맺어지는집단 - 이를테면온갖종류의목적충족시킬필요에 서생기는무한히다양한일시적또는장기적으로존속하는무수한집합체가여기에 첨가될것이다. 이런종류의결사는이미현금의사회에서도정치적또는직업적집 단과별도로술하게생기고있는것이다.

이들세종류의결사는그물눈처럼서로엮혀서가지각색의사회적요구를 - 소 비, 생산, 분배, 교통, 위생조치, 교육, 침략에대한상호방어, 상호부조, 지역방 위, 나아가서는또과학상, 예술상, 문학상의요구와오락의요구등등모든것을충 족시킬것이다. 이들은모두활기에차서사회적, 지적환경의새로운요구와새로운 영향에응답하면서재빨리이에적응할수있을것이다.

가령이와같은사회가다양한기호와요구가발전할수있을만큼충분히광범위 하게다수의주민을가진지역에서라나발달한다면, 여하한권위주의적강제도벌 써무용지물에불과하다는것은머지않아만인의눈에명백하게될것이다. 권력에 의한이러한강제는사회의경제생활을유지하는데에무용지물일뿐더러대부분의 반사회적행위를저지하는데도쓸모가없을것이다.

실제로현금의국가에서사회생활에필요불가결한도덕적수준을향상, 유지하 는데가장큰장애물이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도사회적평등의결여이다. 평등없 이 1793 년에표현된말로하면‘사실상의평등’없이 - 정의의감정의일반화는절 대로불가능하다. 정의는평등주의적인것이아니면안된다. 현대우리들의계급사 회에서는평등의감정이한결을마다, 한순간마다패배를맞보고있는것이다. 만인

즐거자처하는사회주의자들간에 - 받아들여져, 애깃거리도안될만큼나이프 (소 박) 하게자연법칙으로서제시되고있다. 현대이들의소위법칙의대부분이옳지못 한것일뿐더러이들의법칙을확신하고있는사람들마저만약에그들의수량적명제 를마찬가지로수량적연구에의하여검증할필요가있다는것을깨닫게만된다면곧 이들의법칙이그릇된것임을스스로납득하리라고우리는주장한다.

그런데우리들아나키스트에대하여경제학은, 경제학자들 - 부르주아진영에 속하건사회민주주의의입장에서있건 -에의하여제시되고있는것과는약간다른 형태로생각되어지고있다. 본래과학적, 귀납적방법은이들양쪽경제학자의관여 하는바아니므로그들은‘자연법칙’이란표현을함부로쓰고싶어하지만, 그것이기도 대체어떠한의미의것인가에대해서는전혀알지못한다. 무릇자연법칙은조건부 란성격을띠고있다는것을그들은알지못한다. 자연법칙은항상다음과같은형식 으로표현되는것이다.

‘만약에이러이러한조건이자연속에발견된다면, 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 나타날것이다. 만약에교차하는점의양면에등각等角을짓게끔한직선이다른직 선과엇갈린다면, 그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될것이다. 만약에성좌星座간에 우주공간에존재하는운동만이두개의물체에작용하고그리고무한이아닌거리에 서이들의두개물체에작용하는다른물체가없다면, 이들두개물체의중심重心은 이러이러한속도로서로접근할것이다 [이것이만유인력의법칙이다].

이러한식이다. 항상여기에‘만약에’가달려있다. 어떤조건이불어있다.

결국경제학의이른바법칙이나이론이란것은실제로는다음과같은성격을가 진명제에불과하다. 즉‘만약에어떤나라에국가가 [조세의형식으로] 강요하려는 조건, 그리고국가가토지, 공장, 철도등의소유자로인정하는사람들에의하여제 공되는노동조건을받아들이지않고서는 1 개월도, 아니반개월조차도살아갈수 없는다수의인간이항상있다고한다면, 그결과는이러이러한것으로되리라’.

지금까지에는언제나경제학은이와같은조건아래일어나는일의열거로끝났 지조건그것을열거하거나분석하는일은없었다. 경제학은이들의조건이개개의 경우, 어떻게작용하는가에대해서도, 이들의조건을버티어주고있는것이무엇이 냐에대해서도검토하지않았다. 설사이들의조건이어디에선가언급된경우에도 곧장잊혀버리고말았다.

경제학자는그러나이러한조건을깨끗이잊어버릴뿐만이아니었다. 그들은이 들의조건들의결과로서유래하는제사실을속명적으로확고부동한법칙으로서제시 했던것이다.

사회주의의경제학에관해서말하면, 그야물론이들의결론을약간비판하고혹 은다른방식으로약간의결론을해석한다. 그러나사회주의경제학도또한예에빠 지지않고앞에서말한조건을망각하고항상자기자신의길을계속견지않았다. 그 것도역시전철을밟아구태의연한상태에있었다. 사회주의경제학이 [마르크스에 있어서] 달성한최대의성과도요컨대형이상학적부르주아적경제학의제정의定 義를섭취하여이렇게말할뿐이었다.

는돌보다훨씬큰속력을얻는다는것을처음인정한사람은과학적발견을한사람이다 [아담스미스는이것과같은일을가치에관하여행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발견자의뒤에나타나강우량은청우계가평균점에서내려간저울논의양에따라계량된다는니, 낙하하는돌이통과하는공간은낙하의시간에비례하고그것에의하여계량된다는니주장하는사람은어리석은말을지껄이고있을뿐이다. 뿐더러이런사람은과학적탐구의방법이무엇인지를전혀이해하지못하는사람이고, 그런사람의저작은과학적인것이아님을 - 비록그책이과학적은어隱語에서빌려온용어로장식되어있다할지라도 - 증명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또, 상품의가치와그생산에필요한노동의양을정밀한척도로확정하는데는정확한데이터가결여되어있다는핑계를한다면, 그것은근거없는구실이라는것을지적하고싶다. 자연과학에서는두개의양이상호의존하여한편이불어나면다른편도불어난다고하는이와같은허다한상관관계의사례가있다. 예컨대식물의성장속도는무엇보다도그식물이받는열과광의양에의존한다. 또한총포의반동은탄약통의화약의양을증가하면증대한다.

그러나무릇학자라이를만학자라면 - 양자의양적관계를계량함이없이 - 이상의결과로서식물발육의속도와그것이받는열량, 그리고총포의반동과탄약통彈藥筒의화약량은정비례한다고하는기묘하기짝이없는사상을주장하겠는가. 만약에한편이 2 배, 3 배, 10 배로증가한다면다른편도같은비율로증대하지않으면안된다고, 바꿔말하면가치와노동량에관하여리카도가이후주장되고있는바와같이, 양자는한편이다른편에의하여계량된다고논하는그런과학자가있겠는가.

이러한종류의관계가두개의양량사이에존재한다고하는가설을, 즉가정을만들어놓고서대담무쌍하게도가가설을법칙이라고제시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이러한단정을서슴지않고하는것은오직경제학자나법학자들즉자연과학에서‘법칙’이란말이무엇을의미하는지일편의지식도안가진사람들뿐이다.

일반적으로두개의양사이의관계는극히복잡한것이니, 이는가치와노동과의관계에대해서도타당하다. 교환가치와노동량은서로정비례하는것은아니다. 말하자면한편이다른편에의하여계량되는것은결단코아니다. 그리고이것을지적한것은아담스미스였다. 그는각물품의교환가치가그것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량에의하여계량된다고말한뒤에 [상품의가치를연구한후] 즉시이렇게부연하지않으면아니되었다. 즉원시적교환제도아래서는그러했다할지라도자본주의제도아래서는별써그렇지않게되었다고. 이는완전히옳다. 강제노동과이윤추구의교환이란자본주의제도는이와같이단순한관계를파괴하여노동과교환가치사이의관계를변경시키는여러가지새로운원인을도입했다. 이것을무시하는것은경제학에종사하는일이못된다. 그것은관념을혼란시켜경제학의발달을방해하는일에지나지않는다.

가치에관하여앞에서지적한바는거의모든경제학적명제에도들어맞을것이다. 이들의명제는, 금일에는확고부동한진리로서 - 특히과학적사회주의자라고

에대한정의의감정이사회의풍속습관에침투하려면평등이실제로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정의가가능케되는것은평등자의사회에서뿐이다.

이렇게되었을때강제의필요, 좀더정확히말해서강제력에호소하려는욕구는벌써발생하지않을것이다. 금일행하여지고있는것처럼법률상의또는신비적인형벌의공포에의하여, 혹은우월자로인정된인간에대한복종에의하여혹은또공포심내지무지로말미암아창조된형이상학적존재에대한궤배에의하여개인의자유를제한할필요가벌써전혀없다는것을만인이똑똑히알게될것이다. 현대현금의사회에서는앞에서말한모든것은지적에종隸從으로, 개인적창의의억압으로, 도덕적수준의저하로, 또한진보의정체停滯로이끌고있는것이다.

평등주의의환경에서는인간이안심하고자자기자신의이성에지침을구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이성은이러한환경에서발달하는까닭에필연적으로주위의사회적습관의각인刻印을떨것이다. 인간은자기의전능력의완전한발달을 - 개성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이와반대로금일부르주아가‘우수한천분天分을지닌자’에대하여인간성의완전한발전을달성하는수단을제공한다고떠들고있는개인주의란것은자기기만自己欺瞞이외의아무것도아니다. 뿐만아니라그들이찬양하는이개인주의란것은독특한개성의발달을저해하는것이다.

허구한나날을개인적이윤의추구에지새우며, 그결과전반적빈곤으로전락해있는사회에서는, 가장유능한사람도자기의생존을지탱하기에필요한제수단을획득하기위하여격렬한경쟁에종사하지않으면안된다. 개성의자유로운발달에필요한일정한여가를간신히얻게된극소수의사람들은어떠냐하면, 이여가들이용함에있어그들은현금사회에의하여다음과같은하나의조건이부과되고있는것이다. 즉부르주아적범속성凡俗性的의법과관례와이속박에복종할것, 그리고너무지나치게신랄한비판또는반역의행위에의하여이범속성의왕국을동요시키지않을것, 이것이그조건이다.

‘개성의충분하고완전한발달’이허락되는것은부르주아사회에아무런위협을안주는인간, 말하자면부르주아사회에대하여흥미있는인물이기는하나위협하지않은인물뿐이다.

전술한바와같이아나키스트는관찰의결과로얻어진논거에기하여미래에관한예견을한다.

사실우리가 18 세기말이후교육받은계층간에지배해온사조를분석할때부르주아간에도, 부르주아적교육을받고자기자신도부르주아에한축들기를바라고있는노동자들간에도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경향이극히강력하다는것을승인하지않으면안된다. 이와반대로반권위주의적, 반중앙집권적, 반군국주의및자유합의의이념은노동자간에도, 또한훌륭한교양을갖고다소라도자유로운정신을가진부르주아적지식인간에도많은지지자를얻고있다.

사실다른저작 [『빵의정복이』 나 『상호부조론』] 에서지적한것처럼, 금일에는국가와교회에테두리밖에서온갖종류 - 경제 [철도회사, 노동조합, 기업

자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정치, 학술, 예술, 교육, 오락, 선전 등 -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기성, 기만의 결사를 자유로 구성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이 있다. 기왕에는 의심할 바 없이 국가와 교회의 무였던 것이 금일은 자유로운 제조직의 활동 부문으로 되고 있다. 이 경향은 점점 현저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자유로운 제조직이 몇 천 개씩 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입김이 교회와 국가의 탐욕스런 권력욕을 숨죽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자유에 대한 두 개의 노회老獪한 적인 교회와 국가의 권력이 더욱 제한되는 날이면 자유로운 조직은 보다 광범하게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미래와 진보는 이 방향에 있다. 그리고 아나키는 바로 이 양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부정

아나키스트의 경제관에는 경제학이 여태껏 방황하고 있던 혼돈 상태의 영향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사회주의 자간에도 그렇지만 아나키스트 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회주의자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회주의적 당파와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도 현존 토지 사유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한 금일의 생산구조와 함께, 악랄하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또 현대 사회가 고대의 제문명과 같이 붕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제도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변혁을 달성하는 수단에 관해서는 아나키스트는 국가 사회주의의 모든 당파와 완전히 소매를 나누고 있다. 말하자면 아나키스트는 생산을, 적어도 그 주요 부문을 국가의 수중에 거두어 들이는 국가 자본주의가 지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대신들의 지휘 아래 현금 국가의 손에다 우편이나 철도를 넘겨 주어 운영케 하는 것은 우리가 품은 이상은 아니다. 우리의 견지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형식의 임금노예제이고 새로운 형식의 착취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것이 임금노예제와 착취의 폐지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과도적 형태라고 믿지도 않는다.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폐지한다고 하는 참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한, 아나키스트는 이러한 사회주의와 손잡고 나왔다. 양자가 다 같이 사회혁명을 예상하고 그 도래를 대망했다. 다만 사회혁명의 결과 등 장해야 할 사회의 반권위주의적 형태에 대하여 양자가 견해를 달리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국가 사회주의자의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유력한 당파가 자본주의의 착취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의 세대에 대한, 그리고 또 금일 우리가 경과하고 있는 경제 발달의 단계에 대한 문제는 착취를 완화하는 데 있을

입되어 있는 곳에도 덕성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닐지 검토해 보지 않으려는가.

끝으로 우리도 퀴이오처럼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 분석해 보자.

그런 뒤에 인간의 도덕적 감정 - 예컨대 이웃 사람에 대한 평등 사상에 표현된 감정이 발달하는데 역사가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인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이 세 가지 요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떠한 사회 조건과 어떠한 사회 제도가 미래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는 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종교가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경제? 정치적 불평등이, 나아가서 또 법률, 형벌, 감옥, 재판관, 옥리獄吏, 사형 집행인 이 도덕 감정의 발달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것이다.

이 모두를 하나하나씩 상세히 연구하자. 그래서야 비로소 우리는 도덕에 대하여, 그리고 법률, 재판, 경찰관의 도덕적 감화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중간한 지식의 천박하고 피상적임을 폐하는 데 소용이 있을 뿐인 거창한 말들은 쓰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들의 과대한 망언도 어떤 특정의 시기에는 불가피했을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일찍이 유익했던 지어떤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금일은 우리가 정원사나 식물학자가 식물의 생성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연구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현하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의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정세에 있으니 그와 같이 해 보지 않으려는가.

경제학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완전히 개방된 시장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계산된다” [리카도, 푸르동, 마르크스 기타 참조] 고 경제학자가 말할 때 이 주장이 이러한 권위자들에게 의하여 말해졌으니 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 상품의 가치를 계산하는 참된 척도 이다 라고 주장하면 ‘아주 사회주의적’으로 들리니까라든지, 하는 이유로 이 주장을 우리가 신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명제가 옳바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제군이 그렇게 언명함에 의하여 제군은 가치와 노동량이 필연적으로 비례하는 것이고 그것은 꼭박하하는 물체의 가도 價度와 낙하의 계속하는 초수秒數가 비례하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생각이 미치지 않는가. 이와 같이 하여 제군은 이 두 가지 크기 사이에 특정한 양적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군은 양에 관한 단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인 계량을, 다시 말하면 양적으로 계산된 관찰을 하고 있던단 말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환가치는 필요 노동의 양이 증대할 때에 증대한다” 고 제군이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도 이미 결론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들 두 개의 양은 정비례하여 한 편은 다른 편 의 척도 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비유하면 명일의 강우량은 청우계 晴雨計가 일정한 계절에 특정의 장소에서 설정된 평균점이 하로 몇 밀리 내려갔는가, 그 양에 비례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큰 잘못이다.

청우계의 강하와 강우량과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주목한 사람, 그리고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돌은 겨우 1 미터의 높이에서 떨어지

제적중재 [강제적중재란 - 이무슨모순이라] 란관념을집어넣고, 혹은일일최저
 몇시간이라는식으로강제노동시간의원칙을삽입한다. 이리하여스트라이크에
 있어서철도의군대식착취의길이열리고또는이전의법률에의하여토지를빼앗긴
 아일랜드의농민의소유권상실에법적인가를부여한다. 혹은또질병이나노령보
 험이나실업보험의제도마저도도입되나, 이것으로써국가는다동자의매일每日
 을통제할권리와무를손에넣어국가와관료의인가없이는다동자가제대로휴
 가를할수조차없게끔할권리를확보한다.

그리고이런사태는다회의일부가사회전체에대신하여법률을제정하는한, 금
 후도계속될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그들은자본주의의주요한지주인국가권력
 을항상증대시켜간다. 일반적으로법률이만들어지고있는동안는다사정이변하
 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만큼고드윈이라어나키스트는다일체의성문법을부인하는데일관했다.
 하지만어나키스트는다누구나어느입법자보다도몇갑절이나정의를간절히바라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정의란평등과같고평등없이정의는다불가능하다고보는것
 이다.

다음과같은반론이우리들앞에제출될것이다. 즉법률을부인함으로써우리는
 일체의도덕을또한부인하게된다. 칸트의이른바‘정언적定言의명령’을우리
 가인정안하기때문이라고. 이에대하여우리는이러한반대론의어법자체가우리
 의이해理解를초월한것이며, 우리에게는다전혀인연이없는것이라고대답하겠다.
 그것은도덕성을연구하는자연과학자가그것을불가능하고기이한것으로느끼는
 것과마찬가지다. 따라서는다쟁에들어가기전에우리는상대방에게다음과같은물
 음을제기할것이다. ‘이정언명령이란말로당신는다도대체무엇을의미하려하는가.
 당신은자기의주장을남이알아들수있는말로번역할수없는가. 이를테면라프
 라스가고등수학의공식을만인에게알려지는말로표현하는방법을발견했던것처
 럼. 대학자란사람들은다그렇게했던것이다. 어쩌서당신도그렇게하지않는가’
 라고.

실제로‘보편법칙’인‘정언명령’이니말할때, 그것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그의미는다‘남이너에게대하여하여지고싶지않은것을너도남에게해서는안된다’
 고하는관념이만인에게있다고하는것인가. 그렇다면대단히좋다. 우리도 [허치
 슨이나아담스미스가한것처럼] 어디로부터이도덕적관념이인간에게생겼는지,
 어떻게해서그것이발달해왔는지연구하자.

다음으로정의의관념이얼마나평등의관념을함축하고있는지연구하자. 이것
 은극히중요한문제다. 왜그런고하니, 타인을자기와평등한자로생각하는사람만
 이‘남이너에게대하여지고싶지않은것을너도남에게해서는안된다’는다규칙에따를
 수있겠기때문이다. 농노소유자나노예상인들이‘보편법칙’이나‘정언명령’을농
 노나흑인에대하여승인할수없었음는다명백하다. 왜냐하면그들은농노나흑인을
 평등자라고인정안했기때문이다. 가령우리의이말이옳다면불평등의관념이주

뿐이고, 이를위해서는자본가에대하여약간의법적규제를강제하는것으로족하
 다고하는사상에물들때, 아나키스트는다단연코그들과결별하지않으면안되게되
 었다.

이러한사상에어나키스트는다동의할수없었다. 우리는다음과같이주장하는자
 이다. 즉자본주의적착취의폐지를미래에바라한다면, 우리는금일부터전력을기울
 여그배제에도력하지않으면안된다고. 우리는벌써금일생산에필요한모든것 -
 광산, 공장, 교통수단, 무엇보다도생산자의생존제수단 -을자본가의손에서생
 산자의집단의수중으로직접넘겨오도록힘쓰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나아가서또우리는생존수단을현금의부르주아국가의수중에넘겨주는일이
 없도록유하지않으면안된다. 전유럽의사회주의제정당은금일있는그대로의
 부르주아국가에의한철도, 염鹽생산, 철광및석탄광, [스위스에서는] 은행, 알
 콜전매의국유화를요구하고있다. 현대우리는부르주아국가에의한이러한공동
 재산의취득에서는근로자, 생산자및소비자의수중으로나라의부가인도되는것
 을방해하는최대의장애물의하나를발견하는것이다.

우리가보는바로는그것은자본가를강화하여반항하는노동자에대한투쟁에
 있어서자본가의힘을키워주는수단인것이다. 자본가중에서도현명한인사는이
 일을잘간파하고있다. 이를테면그들의철도자본은철도가일단국유재산으로되
 어국가의손에군대식으로운영되면훨씬안전한것으로된다는것이다. 사회현상
 을그층체에있어서전망하는데익숙한사람들에게는다다음점에관하여의심할여지
 가없을것이다. 이것은사회적공리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바람직한방향으
 로한걸음내딛지않고서사회변혁을준비할수는다없다. 이방향으로걸어가지않는
 다면목적지로부터멀어질뿐이다’라고.

그리고실제로, 만약생산과교환의회, 각료, 현금의관료들의손에넘겨주
 는데착수한다면, 그것은생산자와소비자가스스로생산의주인이되는시점에
 서떨어져나감을의미할것이다. 국가가대자본의종자從者인이상, 금일이들의
 무리는당연히대자본의도구다.

새로운독점을, 더욱이틀에박히듯이구독점자의이익이되도록신설하면서과
 거에성립한독점을파괴한다는것이도대체될법한말인가.

교회와국가는, 특권계급이대두하여자기의지위를확립하기시작할때, 일체
 의특권과잔여의민중에대한권리와합법적소지자가되고자의거하는정치권력
 에지나지않다. 이것을잊어서는다안된다. 국가란이들의특권을누리기위한지배자
 상호간의보증을확립하는제도인것이다. 국가는농민과노동자에대한특권계급
 의지배를강화할목적으로몇세기에걸쳐정비되어만들어내어진것이다. 그결과
 이제교회도국가도이들의특권을제거하는데유용한힘이될수는다없다. 하물며이
 들의특권이제거된때에등장해야할사회조직의형태는다더욱될수없다. 역사는
 우리에게가르치고있다. 국민생활속에매양새로운경제형태가나타날때마다 -
 이를테면노예제가농노제로, 농노제가임금노예제로교체할때마다 - 새로운정
 치적결합의형태가나오지않으면아니되었다는것을.

교회가 인간을 옛적의 미신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또한 인간에게 자유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윤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찍이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듯이, 또 일체의 인간의 평등, 연대성, 통일의 감정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모든 종교가 가이 구동성으로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의하여 주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하고서 야비로 소인류간에 널리 전파되었듯이, 이와 똑같이 경제적 해방이 성립하는 것도 국가 속에 표현된 낡은 정치적 형태가 분쇄될 때가 아니고서는 가망이 없다. 금일 국가가 그 관료간에 분배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대신 수행할 새로운 조직 형태를 인간은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나키즘이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 생활 형태가 꽃피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개화는 근대적 지식의 도움을 얻고 민중의 창조력이 발휘되어, 위대한 해방 운동이 성취된 과거의 어느 시점에나 항상 그랬듯이 금후도 또한 기필코 달성되리라 고본다.

그러나 만큼 아나키스트는 입법자의 역할도, 다른 일체의 국가적 활동도 거부한다. 우리는 법률에 의하여 사회 혁명을 발생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은 비록 그것이 헌법 제정의 회의에 의하여 길거리의 대중적 압력 아래 채택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의회에서는 다종다양하게 대립하는 제 이해를 화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보나], 또한 그것이 이미 채택된 뒤의 것이라 하더라도, 요컨대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의 승낙에 불과한 즉, 민중 속에 위치한 활동가들이 그 에너지, 그 창의, 그 조직적? 건설적 재능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부르는 초대장에 그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식 定式과 원만 願望을 현실 생활의 사실로 전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 용의가 있는 힘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 아나키스트들은 인터내셔널의 출현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직접 투쟁의 목적으로 산출된 노동자의 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이 투쟁은 일체의 간접적 행동보다도 훨씬 노동자의 생활을 얼마만큼이라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또 자본주의 기구와 그것을 지지하는 국가가 사회에 초래하는 해악에 대하여 노동자의 눈을 열어 주었고 동시에 자본가와 국가의 개재를 허락하지 않고서 관계자 상호간의 소비, 생산, 직접적 교환을 어떤 식으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사고를 일깨워 주었다.

자본과 국가의 간섭에서 해방된 사회에서의 노동 생산물의 분배 형식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나키스트의 견해는 분열해 있다.

가령 국가가 금일에 이미 철도, 우편, 교육, 상호 보험, 국토 방위를 그 수중에 넣고 있는 것과 같이 생산과 교환 수단까지도 소유하게 된다면, 그때 출현할 새로운 형태의 임금 제도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모든 아나키스트가 일치한다. 이미 국가가 가장 악한 힘 [조세, 영토 방위, 국교회 國敎會 등] 에다 이러한 새로운 힘, 즉 산업의 힘까지 첨가한다면 거기서 나올 것은 압제의 새로운 무서운 도구일 것이다.

그러므로 금일 아나키스트의 대부분은 아나르코 코뮌리즘의 해결책에 결집하고 있다. 문명 사회에서 가능한 코뮌주의의 형태는 단 하나 아나르코 코뮌주의의 형

14. 아나키즘의 약간의 결론

아나키즘의 기원과 그 원리를 서술한 후, 이번에는 우리의 이념이 현대의 과학과 사회 운동 가운데서 차지하는 지위를 좀더 정확히 결정하는 두 서너 본 보기를 제시하겠다.

에컨대 사람들이 대문자를 쓴 법에 관하여 ‘법이란 진리의 객체화이다’라느니, ‘법의 발전 법칙은 인간 정신의 발전 법칙이다’라느니, 혹은 또 ‘법과 도덕은 동일하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라고 언명할 때, 우리는 이런 따위의 들기 좋은 문구에 대하여 괴테의 『파우스트』 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랬듯이 마이동풍으로 흩날려 버린다. 이와 같은 문구를 써 놓은 사람들은 그것을 심원한 진리라고 확신하고 이러한 사상에 생각이 미치기까지 많은 정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은 사도 邪道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문구가 표현하는 것은 아주 황당 무제한 기초 위에 구성된 무자각적인 일반화의 시도에 불과할 뿐 더러 사람들을 최면술에 걸려 고명 문구로 흐려 놓을 일반화에 불과하다.

기왕에는 법률에 대신 적 神의 기원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직물 織物의 진화나 벌이 꿀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 관념의 기원과 그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 학자들의 노작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미개인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습속과 법 관념을 연구하고 역사상의 각 시대의 법전을 통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법률의 점차적 발달의 차이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이나 온한 장에서 말한 결론에도 도달한다. 즉 일체의 법률은 이중의 기원을 갖고 있으니 이 점이 바로 관례에 의하여 세워져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규칙을 표시하는 관습에서 법률을 구별하는 것이다. 법률은 이들의 관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 結晶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 지배자와 군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새로운 제도를 슬쩍 도입하려고 항상 이 관습에 편승한다. 이를테면 법률은 노예 제도를, 또한 계급 분화를, 그리고 가장 家長, 승려, 군인의 권력을 도입하거나 신성화하거나 한다. 또한 그것은 농노 제도를, 후에는 국가에의 예종을 슬쩍 끌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를 쓰게 되어, 벌써 유혈의 혁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명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어느 시대나 사태는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리하여 현대에 이르렀고 있다. 같은 사정은 금일의 소위 노동 입법에 대해서도 말하여진다. 이 입법은 ‘노동자의 보호’를 공인된 목적으로 구가 하면서 실상은 연중 에스트라이크가 일어날 때 국가에 의한 강

인공동주의자에 대하여 퍼붓는 비판의 중요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들은 아나르코코뮌주의자가 중앙집권주의나 관료주의 편으로 빠져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체의 자유사회의 제일의 원천인 자유로운 개인에 항상 정신을 쏟도록 설득한다. 낡은 미신에 빠져 버리는 경향은 진보적 혁명가들 간에서조차 너무도 많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는 바이다.

금일 아나르코코뮌주의는 노동자 간에 - 특히 라틴계 제국의 노동자 간에 -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 노동자는 다 소간에 목전에 막두한 혁명 행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벌써 국가의 혜택에 신뢰를 두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제정당의 무익한 선동의 권외에 노동자의 전투력을 단결시키고 선거라는 허황한 기구와는 별개의 유효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헤아릴 수 있도록 된 노동 운동은 아나르코코뮌주의의 제이념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예상하더라도 이는 필시 과대한 희망적 관측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도시와 농촌과의 근로 대 중간에 진지한 운동이 전개되기 비롯할 때, 아나키즘의 방향을 향하여 무엇인지가 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는 1793 년 및 1794 년의 프랑스 인민에 의한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태라는 견해가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다. 코뮌주의는 본질적으로 평등주의이고, 더욱이 일체의 특권의 부정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무지배 사회가 가능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만민에 대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최소한의 생활 물자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코뮌주의와 아나키즘은 필연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두 개의 이념이다.

그러나 코뮌주의란 조류와 아나키즘 속의 개인주의의 복권(復權)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끝으로 이 조류에 대하여 약간 부연하겠다.

개인주의적 조류

아나키즘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경향이란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생각된다. 말하자면 이왕에는 생산 방법이 금일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그러한 능력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그런 시대에 코뮌주의라 하면 일반적인 궁핍 및에 속화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60 년 이전에는 미상불 사소한 여유도, 약간의 여가도,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소수의 인간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소수의 특권자에 속하지 못하게 될 날을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내다보았다. 당시 푸르동이 프랑스의 전 생산을 1 인당 1 일 5 스으라고 계산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금일은 벌써 이 장애는 없어졌다. 농업에서도 공업에서도 인간 노동력의 거대한 생산성이 달성된 결과 [참조 『전원, 공장, 작업장』 참조], 만민에 대한 노동의 복지 수준을, 현명하게 조직된 코뮌주의적 노동으로 극히 용이하게, 더욱이 단시일 내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벌써 조금도의 심할바 없다. 더욱이 이때에 각인은 하루 4,5 시간의 노동이 요구될 뿐이고 적어도 하루 5 시간의 아주 자유로운 여가의 시간을 만민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코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반대론은 벌써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고, 개인주의적 조류는 금일 두 개의 주요한 지맥으로 갈려져 있다. 첫째는, 슈티르너의 의미에서의 순 개인주의자이다, 이 경향은 최근에 와서 예술적 향기가 높은 니체의 저작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지 않겠다. 이미 앞에서 나온 한 장에서 말했듯이, 이 ‘개인의 확립’이란 것은 형이상학적이어서 실생활에서 거리가 멀다. 또한 그것은 일체의 해방의 기초를 이루는 평등의 감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끌어간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남을 지배하려고 욕망하면서 자기를 해방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뿐더러 그것은 ‘개인주의자’라 자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족, 승려, 부르주아, 관료 등 그들 자신을 대중보다 ‘우월한’

자라고자부하는소수자에게접근케하며국가, 교회, 법률, 경찰, 군부기타의오랜 세월에걸친온갖압제는다름아닌그들특권적소수자의존재에기인하는것이다.

또하나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의지맥은푸르동의의미에서의상호주의자들로형성된다. 이들의아나키스트는사회문제에해결을구하여노동권에의한생산물의교환을도입하는자유롭고자발적인조직을형성하려고했다. 노동권은주어진공업적수준에있어서어떤대상을생산하는데필요한노동시간수또는공공의이익으로인정된기능을수행하는데개인이소비한시간수를표시하는것이다.

이와같은제도는그러나사실인즉결코개인주의적인것은아니다. 그것은공동주의 [코뮤니즘] 와개인주의간의타협을표현한다. 말하자면생산자에대한보수에는개인주의가, 반면생산수단의소유에관해서는공동주의가채용되고있는것이다.

이이중성은우리가보는바로는, 이런형식의제도가운영될적극복이안될장애물일것이다. 두개의대립하는원리, 즉한편으로는일정한날까지생산된모든것을공유로하고, 다른한편으로는생산된것에대하여개인주의를보존한다. 게다가그때이러한개인주의원리는취미도수요도무한히다양한사치품뿐만아니하여느 사회에서나평가가한결같이정해져있는생활필수물자의생산에대해서도적용된다. 이러한원리로서사회가조직될수는없는것이다.

다시다음과같은점도간과되어서는안된다. 즉거대사회에서산업이발달해있는경우지방에따라기계와생산방식에큰차이가있다는사정말이다. 이러한차이가있는까닭으로어떤기계를갖고같은양의노동을투하한결과다른기계를사용하는경우보다 2 배나 3 내의생산량을올릴것이다. 이를테면금일의직물산업의경우직기織機의성능에대한차이가있으니까, 한사람의노동자가관리할수있는직기의수는 3 대에서 20 대 [노오스로프식직기] 까지로차이가난다. 다른한편으로도, 상이한생산부문에서개개노동자가소비하는근육노동과두뇌노동과의힘에도차이가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이와같은차이를고려한다면과연노동시간이생산물의매매교환상의척도로서쓸모가있는지어떠니하는문제가나올것이다.

현금의상업적교환이라면이야기는알만하다. 그러나노동력이매매되는상품이기를그쳐서벌써거래대상이아닌노동시간이란것에평가의기초를두는매매교환은이해하기어렵다. 노동시간이생산물의등가 [오히려근사치적평가액] 를산정하는데에쓸모가있는것은이미대부분의생활필수품에공동주의적원칙이승인되고있는사회에서뿐일것이다.

만약에개인적보수란이념에대한양보로서‘단순’노동시간에대한보수외에미리수업修業의연한을요하는‘숙련’노동에대한특별의보수를도입하거나직원의계층제도에있어서의‘승급의기회’를설정하거나한다면, 그결과는우리가잘알고있으며따라서그폐단을제거하는수단을강구하고자하는현금의임금제도의특징을부활하는셈이될것이다.

그렇지만상호주의자의이념은아메리카합중국의농업에서다소간의성공을거두고있으니거기서는약간의대농장조직에서작용을계속하고있는듯하다. 이역시잊어서는안될것이라하겠다.

상호주의자에접근하는것은아메리카의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이니그들은 19 세기 50 년대에 S.P. 앤드류스, W. 그린, 후에는리산다 ‘스푸너, 그리고금일에는여러해에걸쳐『자유』지를발행하고있는벤자민터커에의하여대표된다.

그들의이념은푸르동에서유래하고있으나동시에허버트스펜서에서도나오고있다. 그들은아나키스트를구속하는단하나의법이있고, 그것은자기자신의일에스스로종사한다는것이다, 라는명제에서출발한다. 그래서개개인및개집단은제각기하고자하는대로행동할권리가있으며, 가령그렇게할힘이있기만하다면전인류를복종시켜도상관없다. 만약에이들의원리가전면적으로적용된다면하등위험할것은없다고터커는말한다. 왜냐하면개개인의힘은다른모든개인의마찬가지의권리에의하여제한될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이생각하는것은우리의의견으로서형이상학에과대한경의를갖고공상적억측을함부로하는것에불과하다. 어떤자가그렇게할힘이있기만하다면전인류를복종시킬권리가있고, 더욱이이권리는타인이가지는평등한권리에의하여제약을받는다고하는이런말투는그야말로변증법에빠지고있는것이다. 반면실제생활의영역에발을붙이고있는우리에게는성원의한사람의일이다성원전부는아니라하더라도그다수에게무관계한그런사회또는다소간의공통한사항을가지는사람들의단순한집합체를상상해본다는것은절대로불가능하다. 하물며성원간의부단의상호관계가나머지다른사람들에대한각인의관심을조금도환기하지않고사회에대하여자기의행동이 가져올결과를고려하지않고서도행위할수있는그런사회를생각해보려고해도그것은될수있는일이아니라하겠다.

그런까닭으로터커는스펜서와마찬가지로뛰어난국가비판론을전개하고개인의권리의강력한변호를펴는일방, 타면으로는개인의토지소유권을승인하면서결국은개인주의자의시인들로서로동류간의싸움을연출하지않도록한답시고국가를재건하기에이른것이다. 허기야터커는국가에대하여그성원을옹호할권리만을승인했다. 하지만금일보이는바와같은막대한권리를갖춘국가성립하기위해서는상기의권리와기능이승인되기만하면충분한것이다.

미상불국가제도의역사를검토해본다면, 개인의권리의옹호라는이구실아래 세워지지않은국가가없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법률, 침해된개인을보호할권한을받은관리들, 법률의적용을감시하기위하여세워진계층제, 법률의원류를연구하기위하여개설된대학, 법의이념을신성화하는교회, 질서를유지하기위한계급제도, 병역의의무, 그전매권, 끝으로그해악과그압제 - 이모든것은타인에의하여침해된개인의권리를보호한다고하는이제일의구실에서발전해온것이다.

이상간략하게개관한것만가지고도어째서개인주의적아나키즘의체계가부르주아적‘지식인’간에신봉자를가졌을뿐근로자대중간에거의보급되지못했던가그이유가판연할것이다. 그러나그렇다해서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가그동지